

칸라판/소년소녀 위인전기 59

방정환

글 박홍근
그림 신동우





삼국 통일의 명장
1 김 유 신



인류의 스승
2 그리스도



신라의 고승
3 원효대사



항해 탐험가
4 콜롬부스



고대한 문장가
9 최 치 원



근대 교육의 창시자
10 페스탈로찌



고려의 시조
11 왕 건



천재 음악가
12 모짜르트



한국의 발명왕
17 장 영 실



가곡의 왕
18 슈베르트



조선 중기의 학자
19 이 황



동화의 아버지
20 안데르센



《동의보감》을 쓴
25 허 준



아프리카의 탐험가
26 리빙스턴



북학파의 영수
27 박 지 원



농민을 그린 화가
28 밀 레



서역을 토벌한
5고 선 지



자연 과학의 아버지
6갈릴레이



해상 무역의 왕
7장 보 고



근대 과학의 건설자
8뉴 우 톤



목화씨를 들여 온
13문 익 접



유럽을 정복한
14나폴레옹



위대한 임금
15세종대왕



악성
16베에토벤



여성의 귀감
21신사임당



노예 해방의 대풍령
22링 켄



죄적을 무찌른 성웅
23이 순 신



진화론의 창시자
24다 아 윈



천재 화가
29김 흥 도



민주주의의 시인
30휘 트 먼



실학의 거두
31정 약 용



백의의 천사
32나이팅게일

칼라판/소년소녀 위인전기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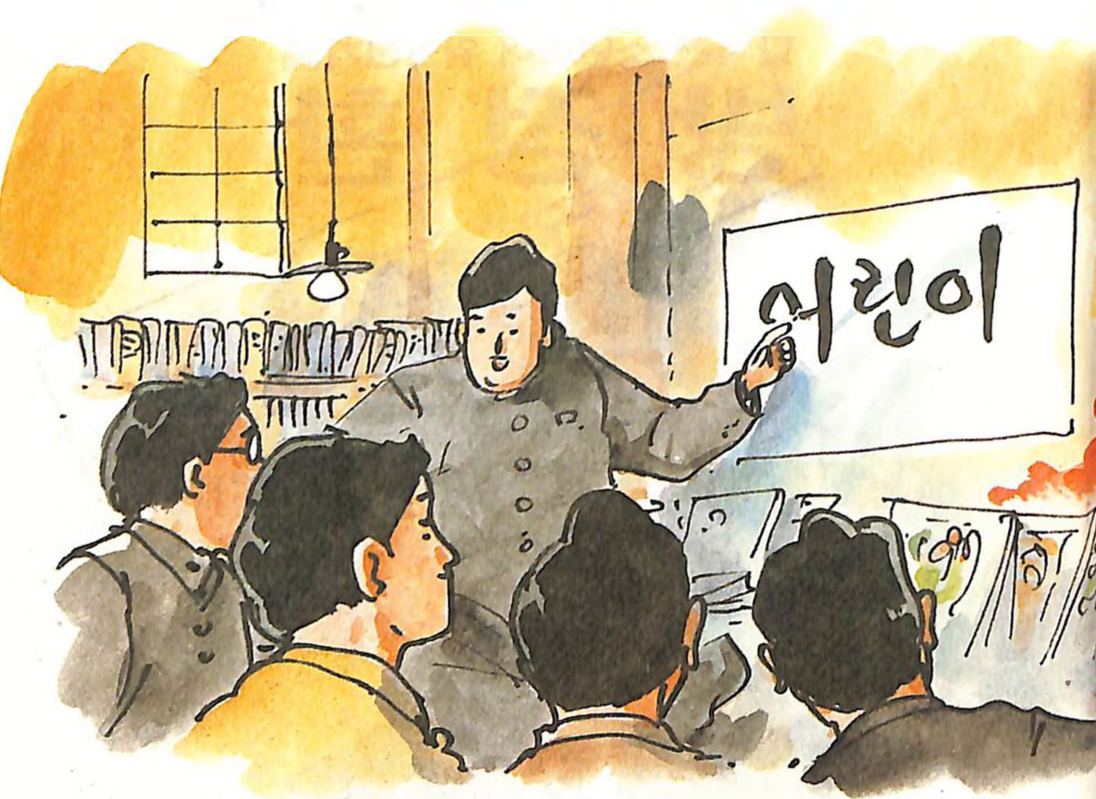
방정환

글 박홍근
그림 신우원

10002664



금성출판사



머 리 말

방 정환 선생님은 우리 민족의 선각자의 한 분이
있으며, 또 드물게 볼 수 있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분은 빼앗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온 민족이 죽음을 각오
하고 맨주먹으로 쫓기했던 3·1 운동은, 우리에게 있
어서 그야말로 정의롭고 빛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힘을 갖추지 못한 정의는 애통하게도 일
제의 무자비한 무력 앞에 다시 굴복하지 않을 수 없



었습니다.

방 정환 선생님은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또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다음 시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소년 운동에 아낌없이 일생을 바쳤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였고, 어린이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 아동 문학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선생님의 업적도 길이 빛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한없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쓴 고무
풍선을 일제히 하늘에 날렸습니다. 가장 먼 곳까
지 날아간 어린이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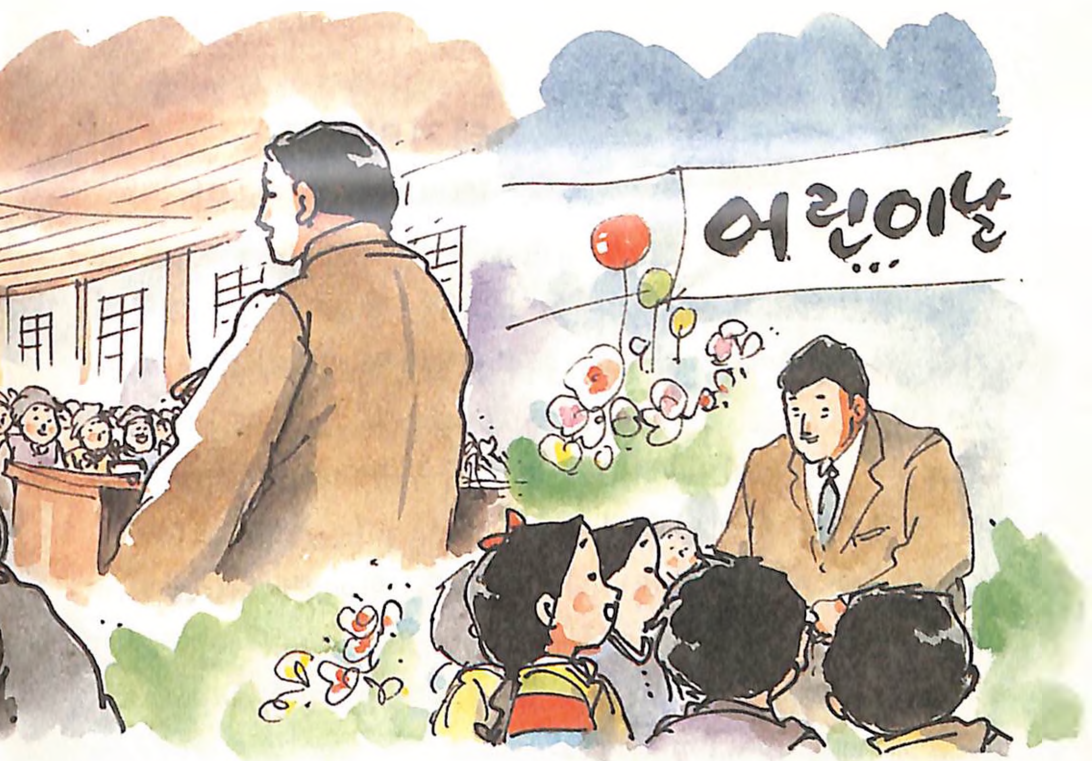
(본문 92페이지에서)





차 례

머리말.....	2
땡기머리를 자른 꼬마.....	8
《천자문》과 신학문.....	19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자.....	27
장가 든 방 정환.....	40
〈청년 구락부〉와 《독립 신문》.....	46
한국 최초의 어린이 잡지.....	56
어린이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66
〈색동회〉 창립.....	77



어린이날 제정.....	80
제 2 회와 제 3 회 어린이날.....	90
주목받는 방 정환.....	105
교포 어린이를 위한 잔치.....	112
눈 뜨게 해야 할 어머니들.....	117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	120
눈을 좋아했던 방 정환.....	129
경관도 눈물 흘린 구연 동화.....	141
검은 마차를 타고.....	147
해설 · 연표.....	154

■ 역사 인명 사전.....	161
-----------------	-----



땡기머리를 자른 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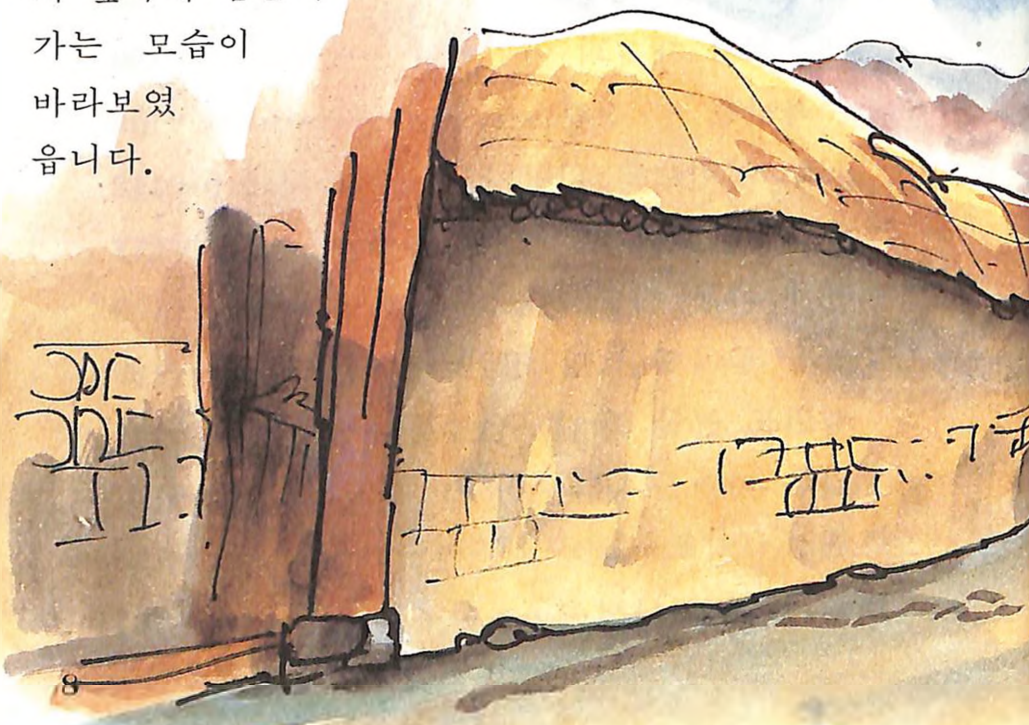
방 정환은 그 때 여섯 살이었습니다. 어린 방정환의 가슴 한 구석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촌이 다니는, 신식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를 구경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삼촌은 학교로 갈 채비를 끝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삼촌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던 방 정환은 아무도 모르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저 앞쪽에 삼촌이
가는 모습이
바라보았
습니다.



방 정환은 길 가는 사람들의 뒤에 숨어서 살금살금 삼촌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는 멀지 않는 곳에서 삼촌이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래, 저기가 보성 소학교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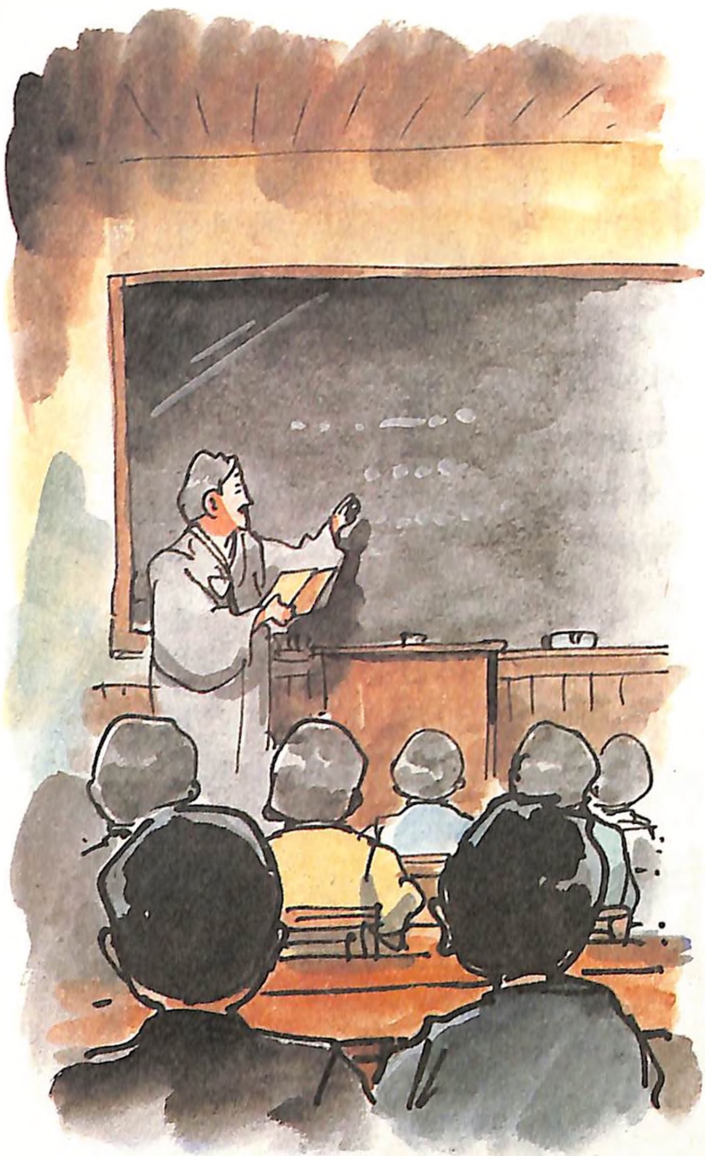
방 정환의 작은 가슴은 뛰었습니다.

이윽고 조회 시간을 알리는 종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갔는지 학교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가 보자!’

하고 방 정환은 교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교문 앞에 이르자 좀 망설여졌습니다. 방 정환은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다가 교문 안에 들어섰습니다.

방 정환은 삼촌이 있는 교실은 어딜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까운 교실을 향해 발걸음 소리를 죽여 살금살금 창문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창문은 방 정환의 키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발돋움을 해야 가까스로 교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뒤에는 새까만 칠판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다가 분필을 들고 까만 칠판에 하얀 글씨를 쓰기도 하고, 또 지우개로 쓱쓱 문질러 지우기도 했습니다.

어린 방 정환에게는 그것이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니

었습니다. 방 정환은 이 때까지는 붓으로 쓰는 글씨밖에
보지 못했으니까요.

한번 쓴 붓글씨는 다시는 지울 수 없는데, 짧고 하
얀 막대기 같은 것으로 쓴 글씨는 얼마든지 지우고, 또
쓸 수 있는 것이 희한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방 정환이 발돋움을 하고 정신 없이 교실의 칠판을
지켜 보고 있는데,

“애, 꼬마야. 뭘 그렇게 정신 없이 바라보고 있지?”
하는, 어른의 묵직한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방 정환은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습니다.

“너 어디서 왔지?”

하고 어른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방 정환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른은 머리를 서양 사람처럼 짧게 깎았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너 몇 살이지?”

하고 어른은 또 물었습니다.

“여섯 살이에요.”

“그래, 너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름이 뭐지?”

“방 정환이에요.”

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왔느냐?”

하고, 어른은 방 정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예, 다니고 싶어요. 우리 삼촌도 이 학교에 다니는 걸요.”

방 정환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허어, 그놈 정말 똑똑하군…….”

“아저씨, 이 학교에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방 정환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하도 어른스러워, 그 어른은 소리 없이 웃고 나서,

“이 학교에 다니려면 그 댕기머리를 잘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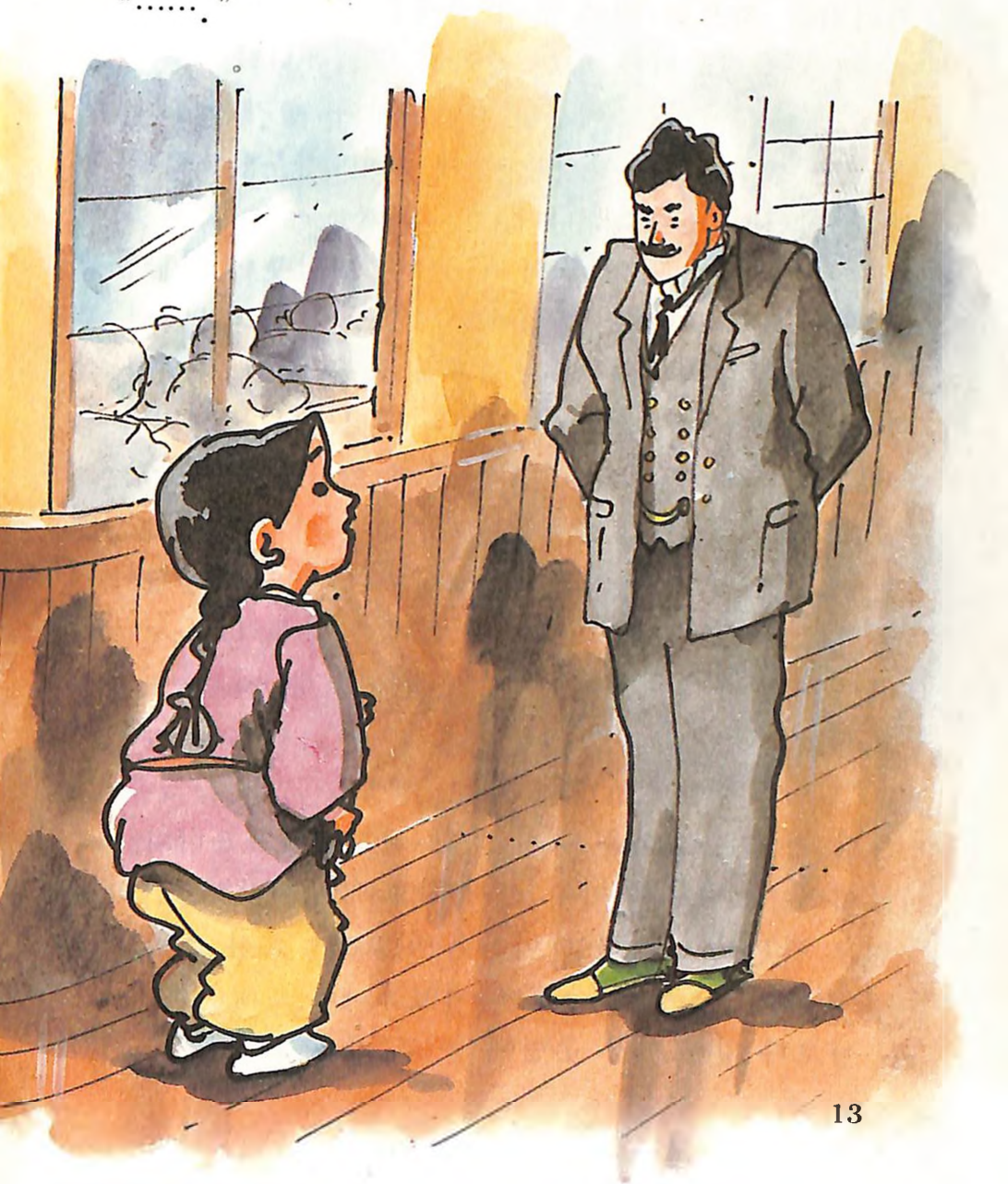
하고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예! 땡기머리를요?”

하고 방 정환은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싫으냐?”

“.....”



방 정환의 눈앞에는 성난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난 할아버지의 얼굴에 방 정환은 풀이 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른들이 상투를 자르거나 아이들이 땡기머리를 자르는 것에 몹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천한 상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부터 아이들이나 총각들은 머리를 땡아서 늘이고, 장가를 들게 되면 상투를 트는 풍속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서양 문명이 차차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새로운 서양 문명에 눈 뜨게 되었고, 마침내 1895년 고종 임금의 단발령(머리를 깎도록 영을 내려 종래의 상투의 풍속을 폐하게 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서양식으로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머리를 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완고한 사람들은 단발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되어도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방 정환의 할아버지도 그러한 완고한 사람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꾸중을 하실 텐데…….’

방 정환은 결심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린 방 정환과 마주 서서 학교에도 입학하고, 또 머리도 깎으라고 권하는 어른은 바로 이 보성 소학교 교장 선생인 김 중환(金重煥)이었습니다.

남보다 일찍 서양 문명에 눈 뜬 김 중환 교장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깎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개화하는 빠른 길이라고 믿고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방 정환에게도 신식 공부를 권하는 동시에 머리도 깎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었읍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으면 빨리 머리를 깎아야 한다. 어디 내가 깎아 줄까?”
하고 교장 선생은 말했읍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는 방 정환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읍니다.

“머리를 깎아 주세요.”

하고, 방 정환은 교장 선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읍니다.





“착하기도 하지.”

교장 선생은 방 정환을 데리고 큰길에 나갔습니다.
인력거로 두 사람은 교장 선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하인의 손에 의해 방 정환의 땡기머리는
빹빹 깎이고 까까중머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까까중머리가 된 방 정환을 보고 온 집 안이 떠들썩
하게 할아버지는 노발 대발했습니다. 그러니, 식구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내 손자의 머리를 깎은 놈이 대체 어떤 놈이냐. 그
놈을 가만 안 둘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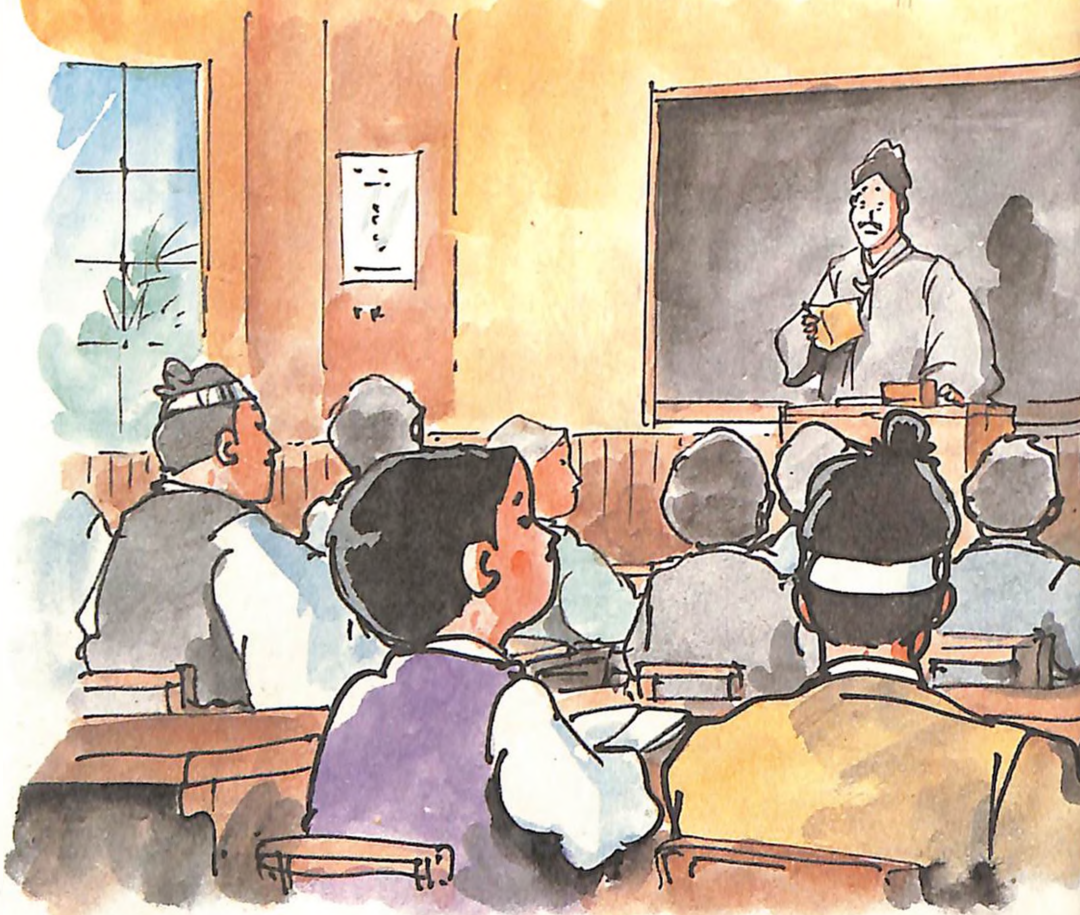
하고 할아버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깎아 버린 머리털을 그전대로 붙일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꼴 해 가지고 밖에 나가 집안 망신을 시키지 말고, 내일부터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거라. 한 걸음도 밖에 나가선 안 돼!”

하고, 할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
를 질렀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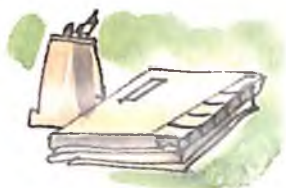




그러나, 방 정환은 할아버지의 눈을 피해 학교로 갔습니다. 또, 할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방 정환은 집을 빠져 나가 학교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집안 식구들도, 그러한 방 정환에게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방 정환은 보성 소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까까중머리를 한 귀여운 여섯 살의 방 정환은 아들 딸까지 있는, 상투를 틀어 올린 어른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자문》과 신학문

방 정환은 1899년 11월 9일, 서울 야주개(당주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방 경수(方慶洙)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방 정환네 집은 미역이며 말린 물고기 등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과, 또 쌀이나 콩 같은 곡물도 파는 큰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 앞은 언제나 물건들을 실어 오고, 또 실어 가는 마차들로 붐비었습니다.

방 정환네 집은 큰 가게를 경영하는, 야주개에서도 손꼽히는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가게일이 바빠서 거의 온종일 가게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와 병을 앓아 누워 있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간호하는 방 정환보다 두 살이 위인 누나가 늘 함께 지냈습니다.

방 정환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장난에 싫증을 느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장난의 상대는 두 살 위인 삼촌과 또 두 살 아래인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이 셋이 밖에 나가서 놀 때면 해가 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놀이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나 할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방 정환은 피를 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빠져 나가곤 하였습니다.

장난꾸러기인 방 정환은 동네에 나가서는 남의 가게에서 닥치는 대로 과자 같은 것을 집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게 주인이나 아주머니는

“어허, 저놈 봐라…….”

“어머나, 또 왔네…….”

하고 웃어넘겨 버리기가 일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방 정환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처지이기도 했지만, 어린 방 정환이 너무도 귀엽고 또 영리했기 때문에, 파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방 정환이 집어먹는 것쯤은 아까와하지도 않았으며, 또 꾸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난꾸러기 방 정환의 장난 상대는 앞에서 말한 외에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게에서 일하는 수십 명의 하인과 또 대궐에서 물건 사러 오는 내시들이었습니다.

어린 방 정환은 심심하면 하인들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인들은
“개구리 구워 줄까?”
하고 놀려 댔습니다.

“얼마든지 가져 와요.
먹어 보일 테니까!”



방 정환은 큰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방 정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구운 개구리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봄이 약한 손자에게 약으로 먹인다고 할아버지는 땅
군들에게 부탁하여 개구리를 잡아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방 정환은 구운 개구리를 먹는 것이 싫었습
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종아리를 때려 가면서 억지
로 먹였던 것입니다.

방 정환은 땅군만 보면,

“보기도 싫어. 이 땅군!”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곤 하였습니다.

한편, 방 정환은 할아버지에게서 《천자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자문》을 방 정환의 앞에 놓고 막대기로 한 자 한 자 짚어 가면서,

“하늘천(天), 땅지(地)…….”

하고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면, 방 정환도 어린 목소리로,

“하늘천, 땅지…….”

하고 귀엽게 받아

읽었습니다.



방 정환은 처음 한동안은 할아버지가 읽는 대로 소리를 내어 받아 읽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방 정환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 글의 뜻이 뭐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소리 없이 웃고 나서,

“자꾸만 읽으면 뜻은 저절로 알게 되는 법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놈은 보통은 넘는 놈이야.’

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읽어야 하는 것이 방 정환에게는 여간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엄한 할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 정환은 책을 보지 않고도 《천자문》을 완전히 읽어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다른 글은 가르쳐 주지 않았었습니다.

방 정환이 가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이제 다른 글을 가르쳐 줘요.”

하고 졸라 대면, 할아버지는

“《천자문》만 완전히 통달하면 다른 글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하고, 방 정환의 청을 받아 주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읍니다.

방 정환은 할아버지 앞에서 《천자문》을 읽고 있었읍니다. 그 때에 마침 손님 한 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읍니다.

손님은 방 정환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어린 놈이 참 잘도 읽는구나. 기특도 하지.”
하고 탄복했읍니다.

손님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 한 닢을 방 정환에게 상으로 주었읍니다.

‘이건 참 신나는데.’

하고 정환은 속으로 외쳤읍니다.

그러나, 그 손님에게는,

“감사합니다.”

하고 깍듯이 인사를 했읍니다.

“그놈 인사도 잘 하는구나.”

하고 손님은 또 칭찬을 했읍니다.

그 후부터, 방 정환은 할아버지 방에 손님이 찾아온 것 같으면, 방에 들어가서는 소리높이 《천자문》을 읽는 것이었읍니다. 손님들이 돈을 주는 것에 재미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 정환은 삼촌에게서 그야말로 뜻밖의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삼촌, 할아버지는 《천자문》만 알면 모든 글을 다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이야?”

하고 방 정환은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이 때까지는 《천자문》 같은 것이
최고의 공부인 줄로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
도 이제 서당을 그만두고 학교에 다니겠어.”

하고 삼촌은 말했습니다.

“삼촌,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 주는데?”

“신학문을 가르쳐 주지.”

“신학문? 그게 뭔데?”



방 정환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삼촌을 쳐다보았습니다.

“신학문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공부야.”

“잘 모르겠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방 정환에게는….”

“예를 들어서 기차라든지, 전차라든지, 또는 전깃불이라든지, 수도 같은 건 모두가 신학문을 공부하여 발명한 것들이야.”

삼촌은 신학문에 대한 설명을 방 정환이 이해하도록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방 정환은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촌, 나는 학교에 못 가요?”

“못 갈 리야 없지.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릴 뿐이야..” 하고, 삼촌은 방 정환이 희망을 가지게끔 말했습니다.

그 후 곧, 삼촌은 보성 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방 정환은 학교에 가서 신학문을 배우는 삼촌이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 정환은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학교에 대한 동경심을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나도 한번 가 봐야지!’

그리하여, 끝내 삼촌의 뒤를 밟아 보성 소학교로 갔으며, 땀기머리까지 깎고 학교에 입학하고, 집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자

방 정환이 아홉 살 때, 작은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빚 때문에, 온 집안은 몇 채의 큰 집과 많은 물건들을 빚장에게 넘겨 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방 정환도 정든 야주개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 되었습니다. 정다운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 눈을 감고 도 돌아다닐 수 있는 골목들, 그러한 모든 것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이부자리와 부엌 세간만을 실은 조그마한 달구지 뒤를 따라가는 방 정환의 가슴은 미



어질 듯이 서럽기만 했습니다.

방 정환네가 새로 이사 간 곳은 도정궁(都正宮 : 오늘날의 사직 공원 뒤) 앞동네였습니다. 새로 얻은 집은 거의 쓰러져 가는 계딱지 같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살림살이와는 너무나도 격차가 심한 현실이었습니다.

방 정환은 학교도 보성 소학교에서 미동 공립 보통 학교로 옮겼습니다.

하루 아침에 밑바닥 신세가 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살 의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병환으로 누워 있는 어머니와 늙은 할머니…….

상상만 해도 우울해지는 집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맡아서 꾸려 나가는 누나의 고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에도 또 죽이야?”

하고 방 정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누나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니…….”

누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누나, 정호네에 가서 쌀 꺾으러 올까?”

하고, 방 정환은 누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정호네는 친척집입니다. 부잣집은 아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빚장이에게 모든 것을 넘겨 준 방 정환네보다는 낫게 살았습니다.

방 정환은 쌀자루를 들고 여러 집안으로 쌀 꾸러 다니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굶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시절에 방 정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크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배를 주려야 하다니…….’

훗날, 그가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동정의 손길을 뻗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그러한 소지는 자신이 고생을 겪은 어릴 때에 이미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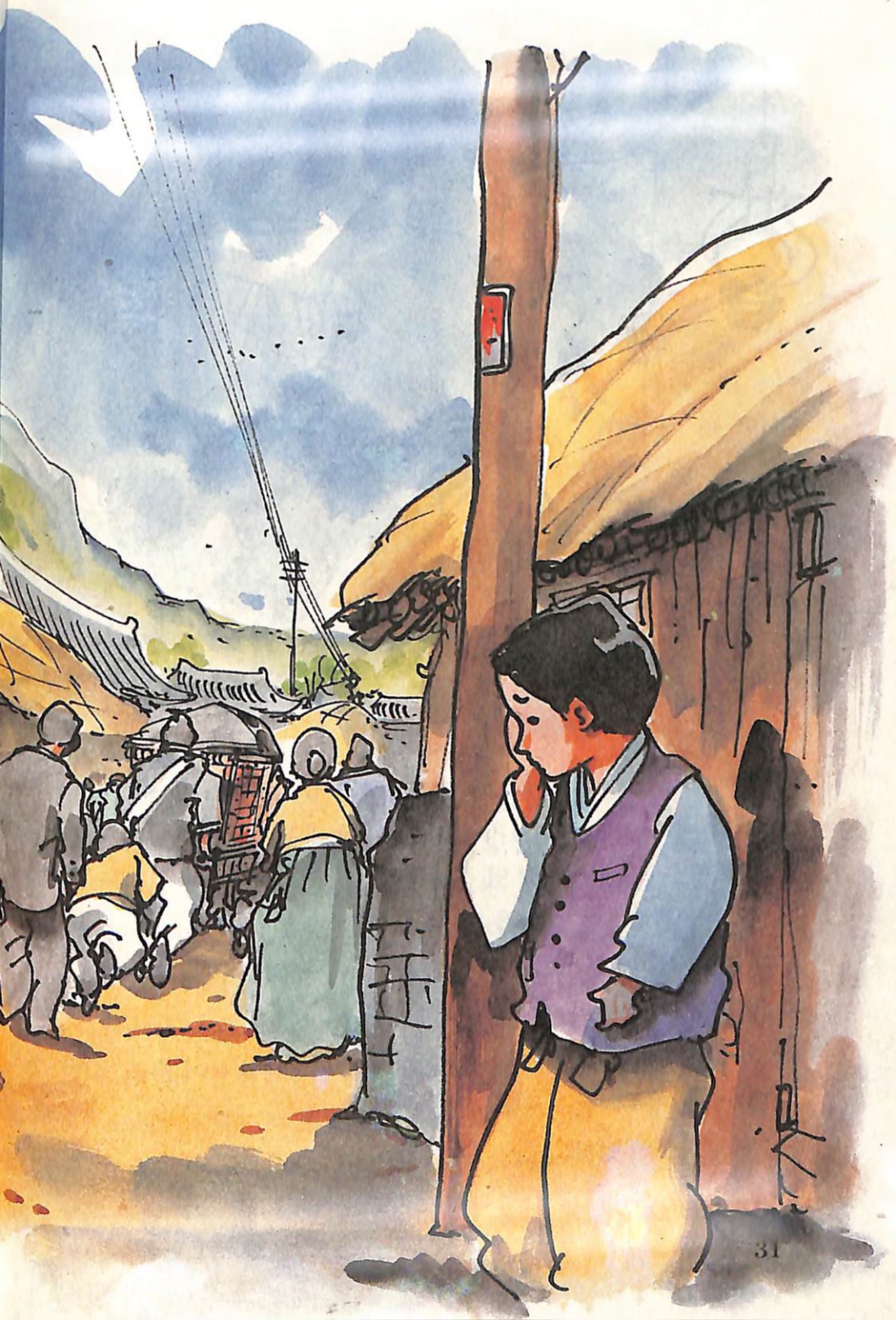
어린 손자들까지도 배를 주려야 하는 형편에서, 할아버지는 조상의 제사는 깎듯이 지냈습니다. 남아 있는 물건을 팔아서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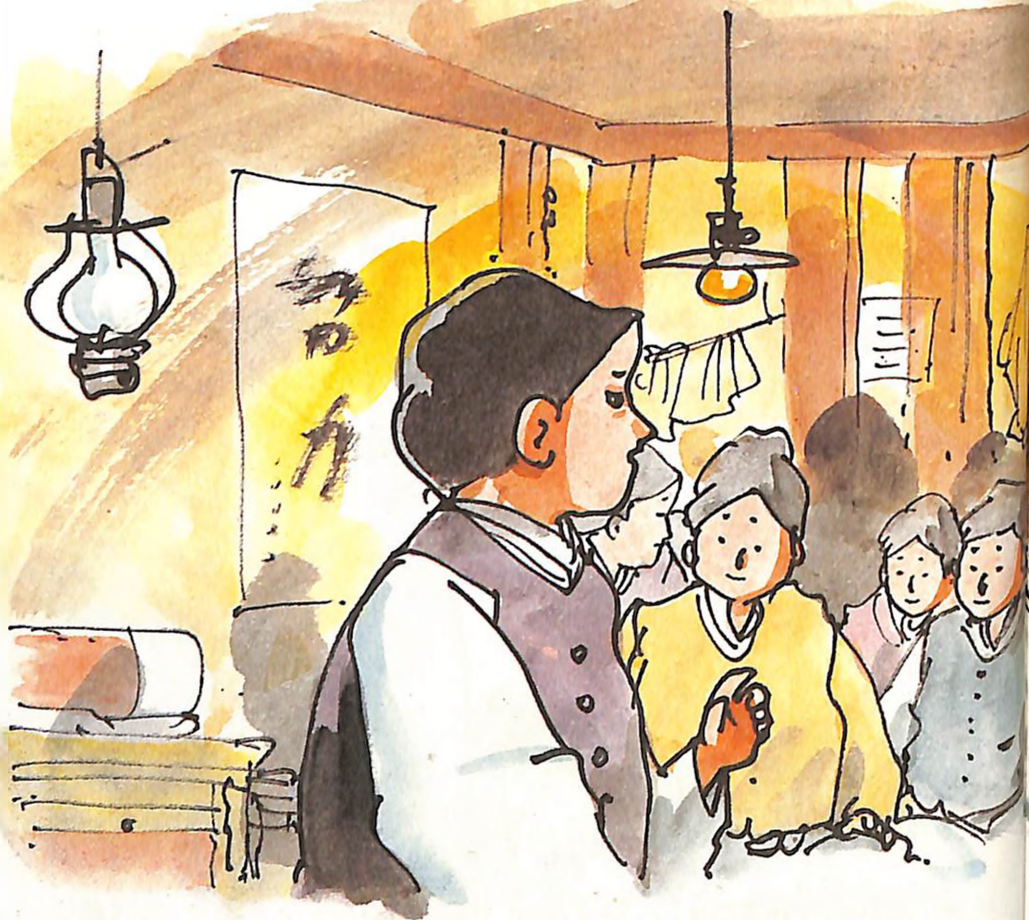
아버지는 그러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할아버지에게 불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방 정환에게는 또 한 가지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누나가 시집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때까지 병환으로 누워 있는 어머니의 시중을 들어야 했고, 또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돌봐야 했던 누나가 한 입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집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시집 가는 날, 방 정환은 골목에 숨어서 눈물로 아롱진 눈으로 가마가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 정환은 슬기로운 소년이었으며, 또 용기가 있고 쾌활한 소년이었습니다. 한숨만 쉬지는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울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커갔습니다.





어느 날, 방 정환은 동네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이
게 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마루에는 여남은 살짜리
남자아이들 9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여기 모이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끼리 어떤 모임을 가져 볼까 하는 생각에서 너
희들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오라고 했어.”

하고, 방 정환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제법 어른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모임인데?”

하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의 아이가 방 정환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정환아, 친목회 같은 것 말이나?”

하고 말했습니다.

“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모임 말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가르치고 또 힘을 합하여 배워 나가는 것이 어떻겠니?”

하고 방 정환은 모임의 목적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가 한복차림입니다. 땡기머리도 있고, 또 머리를 짧게 깎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해. 공부란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목적, 즉 커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정해 놓고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방 정환은 덧붙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해?”

하고 또 한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저마다 다르겠지.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커

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 본 사람 있니?”
하며 방 정환은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답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것 봐, 우리는 목적도 없이 공부를 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방 정환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모임을 가지는 데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소년 입지회(少年立志會)>라고 했습니다. 뜻을 세운 소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장으로서는 방 정환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방 정환네 집은 좁아서 회원들이 모이는 데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의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하자.”

하고 덕수궁 앞쪽에 사는 최 창수라는 소년이 말했습니다.

최 창수네 집은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래, 창수네 집은 커서 좋아.”

라고, 방 정환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 9명 모두 최 창수네 집에 모였습니다. 방 정환은 널빤지를 옆구리에 끼고 왔습니다.

“정환아, 그게 뭐니?”

하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건 소년 입지회의 간판이야.”

하고 방 정환은 자랑스럽게 말하며 내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붓글씨로 <소년 입지회>라고 크게 써어 있었읍니다.

“야! 신난다!”

아이들은 저마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읍니다.

“이 간판을 대문 앞에 붙이는 거야.”

하고 방 정환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읍니다.

그러나 곧, 방 정환의 표정이 어두워졌읍니다.



“그런데 창수야. 우리가 너의 집에 모이게 되는 걸
너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 하지만 허락해 주
실 거야.”

하고 최 창수는 말했으나, 아이들은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최 창수는 방 정환을 데리고 아버지의 방으로 갔읍
니다.

최 창수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얼굴
빛을 달리
하면서,



“어허, 이놈들. 하라는 공부는 할 생각 않고, 무슨 엉뚱한 짓을 하려는 거야.”

하고 성난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하려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은, 그저 막연하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워 가지고 공부를 하자는 뜻에서입니다. 우리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나라도 훌륭하게 됩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를 도우며 깨우쳐야 합니다.”

방 정환은 조리 있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방 정환의 조리 있는 말에 창수의 아버지는 감동되었습니다.

‘이놈이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군. 창수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어.....’

하고 생각한 최 창수의 아버지는

“좋다, 그러면 쓰지 않는 사랑방이 있으니 거기 모여도 좋다.”

하고 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최 창수네 대문 앞에 소년 입지회의 간판을 달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열싸안고 뛰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토론하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 물어 보고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소년 입지회의 회원들은 서로 배우는 것도 많았고, 또 깨닫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겨우 얻은 모임의 장소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 창수네가 살림이 어려워져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데가 어디지? 그래 집은 크냐?”

하고 방 정환은 힘없이 물었습니다.

“너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간대. 빗 때문에 집을 판 거야.”

“그래…….”

그 후, 소년 입지회의 아이들은 철판을 가지고 사직 공원으로 갔습니다. 나뭇가지에 철판을 걸어 놓고 서로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 정환이 불과 아홉 살에 만든 소년 입지회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조직 생활을 하기 시작한 최초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장가 든 방 정환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방 정환은 마침내 미동 공립 보통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상급 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어린 방 정환은 집안일을 돌보기도 하고, 또 가끔 산에 가서 나무를 하여 팔기도 했습니다.



방 정환이 열 세 살 때입니다. 아버지는 그 때 인쇄소에서 연판공(鉛版工)으로 일을 했습니다. 형편 없는 월급이었습니다. 그 무렵, 다행히 어머니의 병환은 나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샅바느질을 하여 살림에 보태기도 했습니다.

방 정환은 열 네 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방 정환에게,

“우리 집 살림이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까지 공부할 계속 못 한다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우리 집은 본시 장사로 내려온 집안이니, 너 상업 학교에 다니는 게 좋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방 정환은 상급 학교에는 꼭 가고 싶었지만, 상업 학교에 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장사에는 소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냐.”

그리하여, 방 정환은 선린 상업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방 정환은 도중에서 퇴학하기까지 2년 동안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상업에 대한 학과들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학교에 다니기보다 몇 배 나을 거다.’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방 정환은 당시 밀물처럼 밀려드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독서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집안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아버지의 월급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제때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또 어머니의 건강은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방 정환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놀고 먹을 수 없는 집안 사정입니다. 그래서, 방 정환은 조선 총독부의 토지 조사국의 임시 서기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당시 월급도 4 원이었습니다.

방 정환은 이 토지 조사국에서 좋은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일에 언론인으로 대성한 유 광렬<柳光烈>이었습니다. 유 광렬은 방 정환보다 한 살 더 위었습니다. 그도 방 정환처럼 집은 가난했으나, 두 사람은 서로 뜻이 잘 맞았습니다.

함께 다니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주 나누기
도 했읍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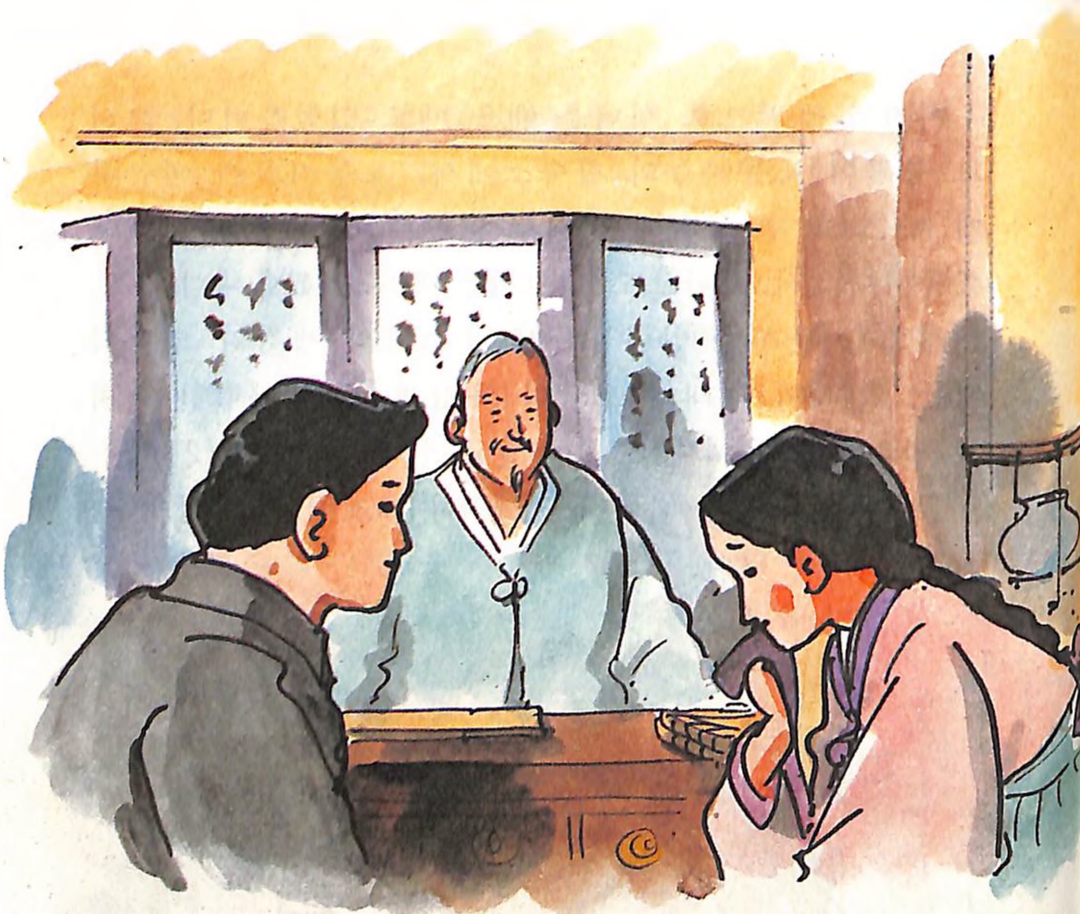


미지와 호박으로 끼니를 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팔이 노동자들의 합숙소에서, 노동자들이 피곤하게 자는 그 한 구석에서 서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로 위로도 하고 또 격려도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그들의 생각의 밑바닥에는, 민족의 장래며 조국의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일본놈들 밑에서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될 때가 많아.”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래, 보람 있는 일을 해 보자!”

하고, 그들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무렵, 방 정환에게 기쁜 일이 찾아왔습니다. 열여덟 살에 장가를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천도교 제 3대 교주인 손 병희(孫秉熙)의 딸인 손 용화(孫溶華)였습니다.

손 병희는 민족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손 병희는 첫눈에 방 정환의 인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으면서도, 장래에 대한 포부가 큰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정환을 사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 정환이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음력 5월 6일에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가난과 병고에만 시달리시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방 정환은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결혼한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청년 구락부와

《독립 신문》

불과 나이 아홉 살에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소년 입지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었던 방 정환입니다.

아홉 살이면 부모에게 응석을 부릴 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찍 세상 물정에 눈을 뜬 그는 어떤 큰 일을 하려면 혼자서의 힘보다는 뜻이 맞는 여러 사람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일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토지 조사국의 임시 서기에 불과했으나, 그는 뜻이 맞는 유 광렬과 함께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방 정환은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여윈 얼마 후인 1917년, <청년 구락부>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구락부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힘을 결합하여 조국 독립의 주춧돌이 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헌의 감시가 매우 심할 때여서 표면상으로는 친목 단체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청년 구락부를 조직한 것은 방 정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장에는 이 중각이라는 청년을 앉히고, 또한 부회장에는 이 복원이라는 청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유 광렬은 그 아래에서 실제적인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청년 구락부는 발족할 당시에는 회원이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200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 커졌습니다.

청년 구락부 회원들은 빼앗긴 조국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정신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청년 구락부에서는 회보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했고, 또 야외에서 자주 모임도 가졌습니다.

청년 구락부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1918년에는 《신청년(新靑年)》이라는 이름의 잡지까지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창간호의 머리



말은 당시 민족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널리 활동하고 있던 한 용운(韓龍雲)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청년》은 청년 구락부 사업의 하나로 펴냈던 것이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방 정환의 힘이 컸었습니다.

잡지 《신청년》 창간호가 나온 그 해 12월에는 망년회라는 명목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일본 관헌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망년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장소는 소의 학교 강당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원령(動員令)》이라는 연극이 상연되었습니다. 방 정환이 희곡을 썼고, 또 주역도 연출도 맡은 연극이었습니다.

이 연극의 주제는 우리 겨레가 힘을 합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방 정환은 장인 손 병희가 운영하는 보성 전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방 정환은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청년 구락부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청년 구락부는 점점 힘이 커 갔습니다.



매마침 1919년 3월 1일을 기해 기미년 독립 만세 운동이 서울을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번졌읍니다. 이러한 기회를 기다려 온 청년 구락부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어섰읍니다.

많은 회원들이 일제의 관헌에게 체포되었읍니다. 그들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살인적인 고문을 받았읍니다. 그리하여, 회장인 이 중각은 종로 경찰서에서 고문으로 끝내 죽었고, 부회장인 이 복원은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하였읍니다.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독립 신문》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독립 신문》은 보성 전문 학교의 교장인 윤 익선이 발행하고 있던 일간 신문이었습니다.

발행인인 윤 익선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또 감시가 심하여, 신문을 계속 발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방 정환은 어느 날 청년 구락부 회원들에게,

“《독립 신문》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등사판으로 인쇄를 해서라도 우리들이 계속 발간합니다.”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뉴우스는 어떤 방법으로 얻지요?”

하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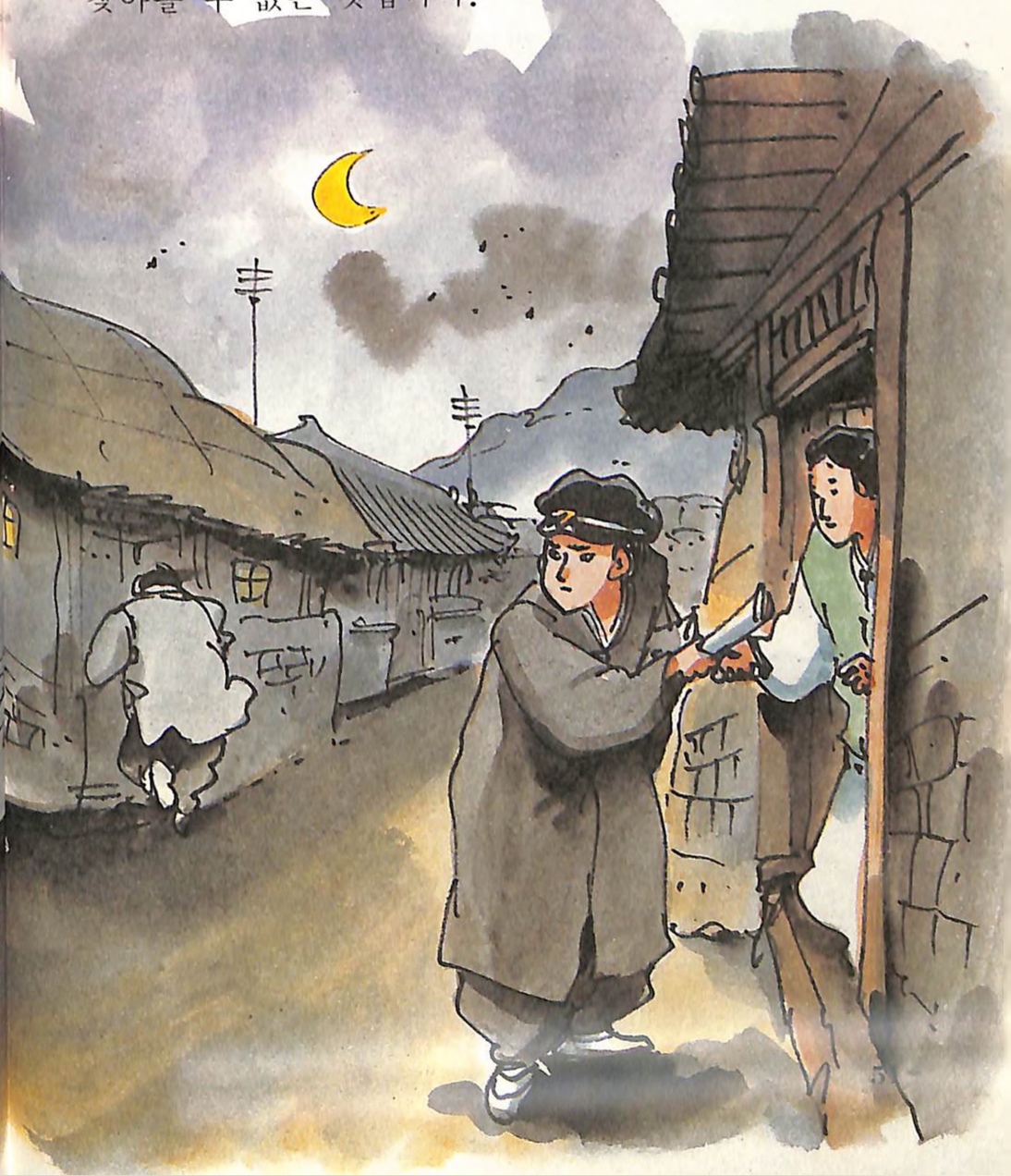
“문제 없습니다. 외국 소식은 외국 선교사들에게 부탁하고, 나라 안 소식은 각 지방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하고 방 정환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외국 선교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으며, 각 지방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뉴우스가 모아졌습니다.

방 정환을 비롯한 그들은 밤을 새워 가면서 원고도 쓰고 또 등사 원지에 옮겨 쓰기도 하여서, 등사판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작된 신문은 남녀 중학생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 가면서 집집에 배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독립 신문>을 3주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도 나쁜 앞잡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민족 양심이라든지 동포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독립 신문》의 발행은 일제의 앞잡이에 의해 일본 경찰에 밀고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들은 어느 때 처럼 신문을 만들고 있다가 일본 경찰의 습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문 열어!”

대문 밖에서 호통 소리가 새벽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금방 새파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서로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걱정 없어, 모두 누워 자는 체해!”

하고 방 정환은 낮은 소리로

말하더니, 등사판이며

종이며 등사 잉크

등을 재빨리

우물 속에

넣어 버렸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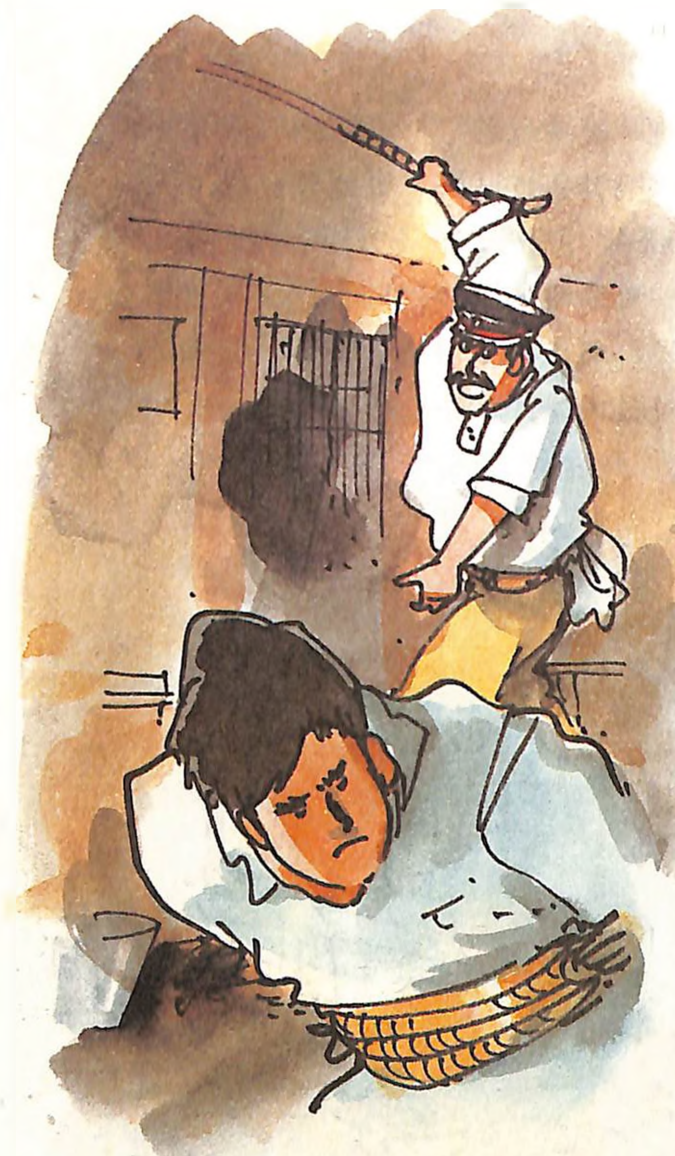


집 안에 들어온 일본 경관들은 방마다 뒤졌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한데……이 집에서 신문을 만들었을 텐데…….”
그들은 방 정환만을 체포해 갔습니다.

방 정환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동
지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그들도 즉시 피신을 해
야만 했습니다.





방 정환은 일본 경찰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방 정환은 끝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계속 수사를 했고 또 고문을 했으나 결국은 증거를 잡지 못해, 1주일 만에 방 정환을 석방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경찰에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온 방 정환은 계속 《독립 신문》을 한동안 발행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거족적으로 봉기했던 3·1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부터 일제의 탄압은 더욱 교활해졌습니다.

그러나, 방 정환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지금 일본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바위에 머리를 박치기 하는 거나 같다. 그

보다도 민족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민족 운동을 돌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고 방 정환은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일시적으로 떠올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방 정환의 가슴 속에 튼튼히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생을 소년 운동에 바치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1919년, 방 정환은 일본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을 잘 알아보자. 그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소년 운동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는 없을 거다.’

하는 굳은 결심으로, 방 정환은 낯선 땅 일본의 토오쿄오로 갔던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어린이 잡지

일본 토오쿄오로 간 방 정환은 토요요오 대학(東洋大學)의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토오쿄오에 유학을 와 있는 천도교 청년들로 조직된 천도교 토오쿄오 지부의 회장직을 맡기로 하고, 한편으로는 소년 운동의 전개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방 정환입니다. 그런, 그의 생각은 토오쿄오에 가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강해져 갔습니다.

‘비록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밑에서 가난하게 살며, 또 자유를 잃고 자라는 아이들이지만, 바르고 씩씩하게 길러야 한다. 그것을 위해 나는 일생을 바쳐야만 한다.’

하고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때, 우리 나라에서는 빼앗긴 조국의 앞날을 짊어질 이는 소년 소녀 들이므로, 그들을 잘 키우자는 소년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방 정환이 일으킨 소년 운동은 좀 달랐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당시 우리의 민족 지도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주장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도, 방 정환은 뛰어난 소년 운동
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
다.’

방 정환의 나날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천도교 지부의 회장 일도
보아야 했고, 《개벽》
잡지의 특파원
일도 보아야
했기 때문
이었습
니다.



그래서, 그는 토오쿄오와 서울 사이를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친일파의 한 사람인 민원식(閔元植)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해 혐의로 천도교 청년 회원들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방정환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소설 두 편을 썼으며, 《동아 일보》에 <작가로서의 포부>라는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20년대 초에 우리 나라 사람으로 유명한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창남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일본 경찰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 때, 방정환은 자기가 당할 위험을 알면서도 그를 하숙집 자기 방에 숨겨 두고, 고국 방문 비행을 《동아 일보》에 주선했어 주기로 부탁하여 그 일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중에도, 소년 운동에 대한 그의 의욕은 더욱 커 가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1921년, 여름 방학으로 서울에 돌아온 그는 즉시 소년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선 뜻이 맞는 동지들과 선배들의 협력을 얻어, 천도교의 간부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드디어 <천도교 소년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수많은 소년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맨 처음으로 조직된 천도교 소년회는 한국 소년 운동의 횃불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방 정환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청중들에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줍시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의 부모들은 방 정환의 이러한 외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청년으로 눈에 비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는 방학이 끝나면 토오쿄오로 갔고, 또 방학이 되면 고국에 돌아와서 소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때, 방 정환은 우리 나라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읽어야 할 동화책이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이 한 권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양식이다.
내가 동화집을
만들어야
겠다.’



하고 방 정환은 결심했습니다.

1921년 겨울이었습니다. 방 정환은 바쁜 나날의 틈을 타서, 밤이면 하숙집에서 세계 명작 동화의 번역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정신과 푸른 꿈을 안겨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골랐습니다.

그리하여 겨울이 다 갈 무렵, 드디어 동화집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봄에는 이 책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해야지.’

방 정환은 참으로 만족했습니다.

1922년 봄이 되자, 방 정환은 동화 원고를 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원고는 얼마 후에 《사랑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나온 동화집입니다.

《사랑의 선물》에 수록된 작품들은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선물》은 우리 나라 아동 문학의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방 정환은 《사랑의 선물》의 머리말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들처럼 또 자라는 불쌍한 어린 영(靈)들을 위하여, 그웁이 동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을 엮었습니다.’

방 정환은 이 머리말에서 <어린 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나이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방 정환은 이 말에 의해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즉, <어린이>라는 낱말입니다. 그전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애> 또는 <애금>, <애새끼>, <자식놈> 등의 낱말만이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낱말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나 소년운동가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어린이…….





참으로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한 말이며, 또 아름답기도 한 말입니다.

《사랑의 선물》을 세상에 내놓은 방 정환은 다음 해인 1923년 3월, 또 하나의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인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였습니다.

잡지의 이름은 《어린이》였습니다.

이 잡지는 타블로이드란 4면의 신문 모양의 것이었지만, 방 정환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처음 호를 사서 보는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엽서로 신청하면 무료로 보낸다고 해도, 신청한 어린이는 고작 1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방 정환은 실망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에 내놓은 잡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주저앉을 방 정환이 아닙니다.

그는 직접 잡지를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솜씨가 좋은 방 정환은 동화를 들려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방 정환의 재미있는 구연 동화(口演童話: 어린이들은 상대로 입으로 들려 주는 동화)에 끌려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연 동화가 끝나면 방 정환은 모여든 아이들에게 《어린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어린이》는 차차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호, 2호를 거듭할수록 내용도 충실해졌고 붓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는 4·6판 60페이지인 잡지 형태로 바뀌었고, 그 후 국판 60페이지로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어린이》는 1930년 7월, 76호부터는 30,000부



이상을 발행했습니다. 창간 당시 엽서로 신청하면 무료로 준다고 해도 고작 18명의 희망자밖에 없었던 《어린이》가 이처럼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해 왔던 것입니다.

《어린이》는 1934년까지 12년 동안, 통권 123호를 발행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의 정서 교육에 하나의 큰 몫을 담당했으며, 또 우리 나라 아동 문학의 길을 터 주었고, 소년 운동의 육성에도 크게 이바지한 중요한 잡지였습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서울에서 <천도교 소년회>를 발족시키고 여러 가지 행사까지 하고 토오쿄오에 돌아온 방 정환은, 소년 운동을 천도교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로 하고, 그 계획을 여러 모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지, 진 장섭(秦長燮)을 찾아가 보자.’

하고 혼자말을 하였읍니다.

방 정환과 진 장섭은 이미 1918년 서울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 때, 진 장섭은 보성 고보의 학생이었으며, 3·1운동 때에도 함께 참가했었습니다.

진 장섭은 토오쿄오 고등 사범 학교(東京



高等師範學校) 학생이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에 진 장섭은 2층에서 현관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사람은 방 정환이 아닙니까!

“여, 방 형, 반갑습니다.”

하고 진 장섭은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정환이 하숙에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은 그 동안 서로의 지내 온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현실과 또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소.”
하고 방 정환은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서로 하숙을 찾아다니며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 동안 그들은 소년 운동에 뜻을 가진 동지들을 찾았고, 드디어 다음 해인 1923년 3월 16일, 방정환의 하숙집에서 첫번째 준비회를 가졌습니다.

그 날 모인 사람들은 강영호(姜英鎬), 손진태(孫晉泰), 고한승(高漢承), 정순철(鄭順哲), 조준기(趙



俊基), 진 장섭(秦長燮), 정 병기(丁炳基) 등 8명이었습니다.

맨 처음, 방 정환이

“오늘 우리들이 이같이 모이게 된 취지는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동화와 동요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동 문학을 통해서 소년 운동을 전개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열띤 말투로 말했습니다.

소년 운동은 하나의 애국 운동이며, 또 계몽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노골적으로 밖으로 내놓으면, 일본 관헌의 주목을 받고 또 탄압을 받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임의 명칭을 뭐라고 할까요?”



하고 진 장섭이 말했습니다.

모임의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임의 명칭도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단체인지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칭은 다음 모임에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하고 방 정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원을 더 늘릴 것도 결정했으며, 또 국내에서나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로서 이 모임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격 있는 사람이면 참가시킬 것도 결정하고 모임은 끝났습니다.

첫번째 모임을 끝낸 방 정환은 토오쿄오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능한 학생들을 회원으로 맞이하려고 여러 가지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김 군,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문학에도 소질이 있고, 애국 정신이 투철한 학생이 없을까?”

“글쎄.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러나, 어디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지요.”

하고, 방 정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호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 며칠 후, 방 정환은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방 형, 잘 만났소. 전에 만났을 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방 형이 찾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아주 적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형, 그래요? 어떤 사람인데요?”

하고 방 정환은 기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윤 극영(尹克榮)이라고 하며,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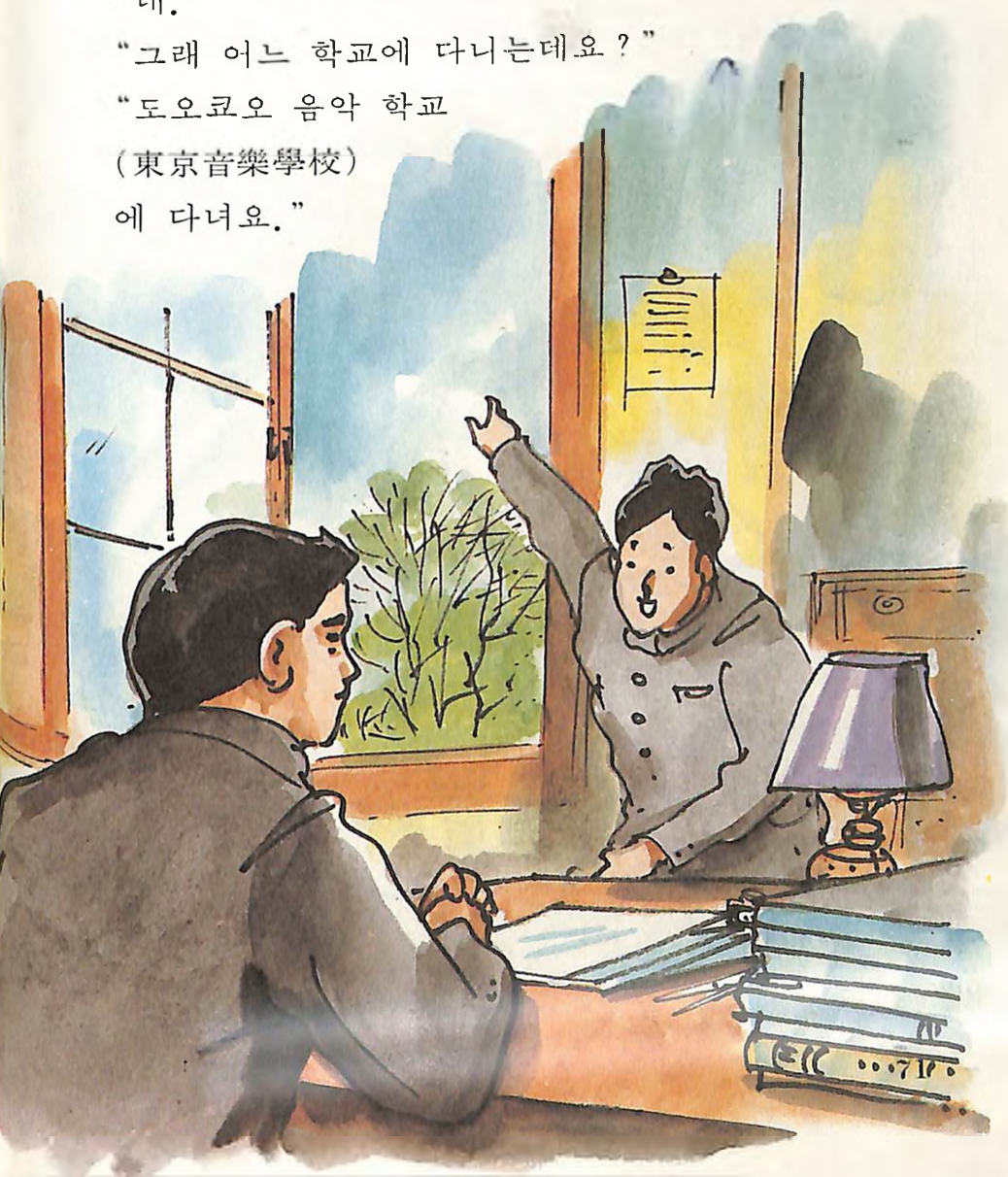
“네.”

“그래 어느 학교에 다니는데요?”

“도오쿄오 음악 학교

(東京音樂學校)

에 다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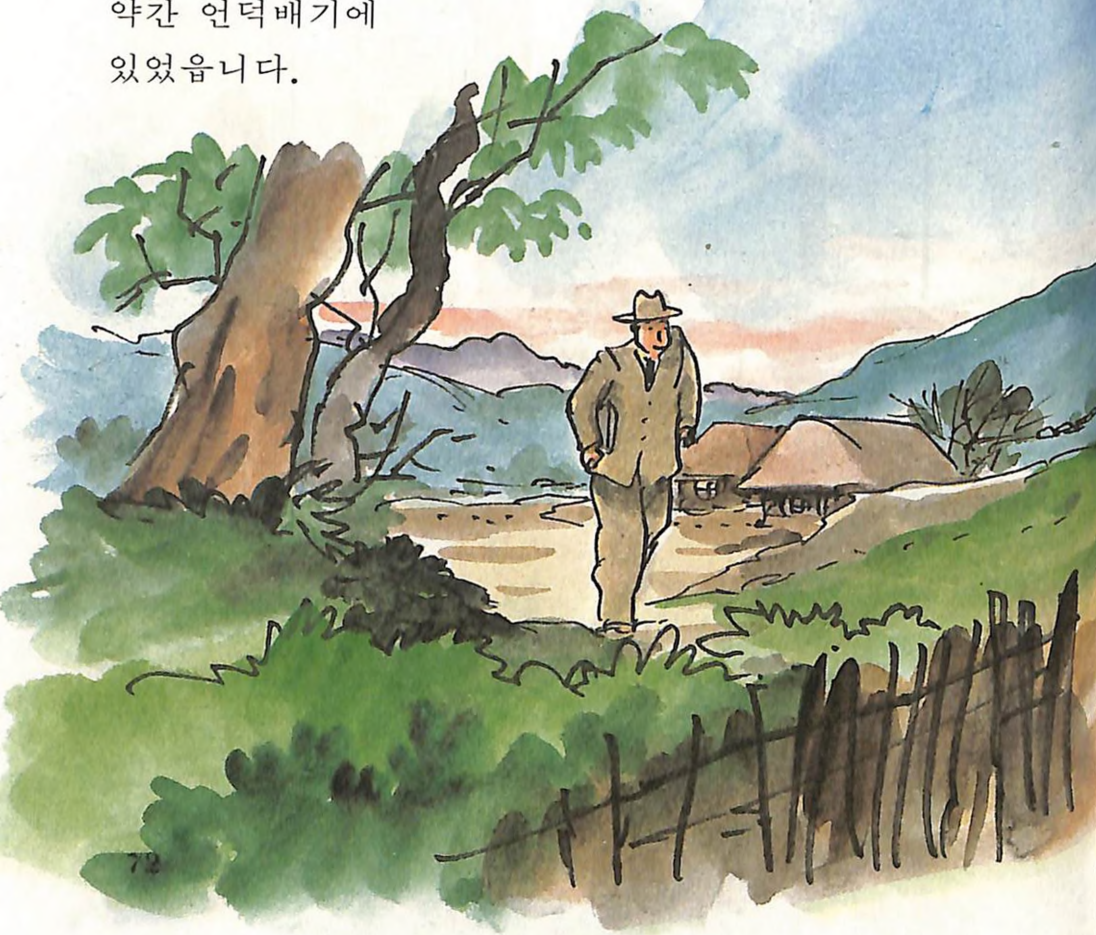
“그 사람 적격자 같은데……. 그래, 주소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말고.”

“고맙소.”

윤극영의 주소를 알게 된 방정환은, 그 길로 윤극영을 찾아갔습니다.

1923년 3월, 따스한 봄날 저녁때였습니다. 그 때 윤극영은 하숙집 마당에서 황혼에 물든 시골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약간 언덕배기에 있었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땀뻘뻘한 청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까와지자 얼굴 모습은 뚜렷했으나,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절모를 쓴 그 청년은 서슴없이 윤극영의 하숙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
윤극영
이지요?”

하고 방 정환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는 방 정환이오.”

두 사람은 그 날 처음 만났지만, 남의 나라 땅에서
동포끼리 만나게 된 것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 집에 피아노는?”

하고 방 정환이 물었습니다.

피아노는 구석진 골방에 있었습니다.

윤극영은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방정환을 안내했습니다.

“나는 이 노래를 좋아해요.”

하고 방정환은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비치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집니다.

라는 《형제별》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애뜻하게 들렸습니다.

“윤형, 어때요?”

“좋은데요, 누가 가사를 번역했지요?”

“내가.”

두 사람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노래는 일본 사람이 작곡한 일본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슬픈 곡은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에게
꼭 어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방 정환이

“왜 우리가 일본 노래를 부르지?”

하고 말했습니다.

윤극영은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라 멍청하게 방 정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방 정환은 자기가 윤극영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도, 말도 빼앗겼는데 왜 노래마저 일본 노래를 불러야 하나?”



“우리 고유한 노래가 없잖소?”

“맞아요, 노래가 없지. 우리는 3·1 운동으로 뭔가 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실패만 했지요. 그래도 우리 끈참아요. 문제는 어린이들입니다. 윤 형, 어린이들에게 줄 노래를 작곡해요. 그들은 10년, 20년 후에 우리 나라를 지고 갈 일군이요.”

하고, 방 정환은 열을 내서 말했습니다.

“윤 형, 형이 혼자 음악을 공부해서 출세하면 뭘 해요. 어린이를 위해 일해 봅시다.”

“알았소. 나도 어린이를 위해 노래를 짓겠소.”

두 사람은 뜻이 통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눈에 눈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색동회 창립

그리하여, 윤극영은 〈색동회〉 창립을 위한 두 번째 준비 모임부터 출석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1923년 3월 30일, 토오쿄오 교외에 있는 윤극영의 하숙에서 열렸습니다.

“그럼, 첫번째 모임에서 우리 모임의 명칭을 두 번째 모임으로 미루었는데, 오늘 결정하기로 합시다.” 하고 방정환이 제의를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색동회가 어떨까 합니다.” 하고, 윤극영이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것 좋은 생각인데요.”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찬성을 했습니다.

방정환

그리고, 그들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각자가 아동 문학을 창작하여 서로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의 준비 모임은 다음 달인 4월 14일에 열렸습니다.

두 번째의 모임에서 대체



로 합의했던 모임의 명칭인 색동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자인 윤극영은,

“색동은 순수한 우리 말이오. 또 아이들의 색동저고리는 우리 나라 고유의 모습입니다.”

하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모임의 명칭이 정식으로 색동회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 후 1923년 4월 29일, 토오쿄오 고등 사범 학교에 다니는 조 재호가 입회를 했고, 5월 1일에는 정식으로 색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 때의 회원은 방 정환을 비롯하여 손 진태, 윤 극영, 정 순철, 고 한승, 진 장섭, 조 재호, 정 병기 등 8명이었습니다. 그 후 문예 춘추사의 마 해송, 와세다 대학의 정 인섭 등 여러 사람이 색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색동회는 적극적으로 소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잡지를 키워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강 연회, 동화 대회, 어린이 예술 강습회 등의 행사를 실시할 것도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색동회 회원들은 각자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달 서울에서 《어린이》잡지가 오면, 동화를 비롯하여 동요, 낱말 박사, 독자 작품, 차례, 표지그림까지도 일일이 평을 써서 방 정환에게 넘겨 주곤 했습니다. 마 해송은 일본의 유명한 잡지사인 문예 춘추사에 있으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어린이》지의 월평을 우리말로 프린트하여 회원들에게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우리의 어린이들을 잘 키워 보겠다는 욕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월평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요나 동화에 있어서 눈물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로 작품을 써야 한다고 스스로 반성도 했습니다.



어린이날 제정

어느 날, 방 정환은 색동회 회원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어린이날을 정하는 게 어떨겠소? 늘려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하루라도 기쁨과 자유를 갖게 하자는 거지요.”

방 정환의 의견을 들은 회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좋고 말고. 합시다.”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 년 중 어느 달, 어느 날이 좋을는지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일 년 중에 날씨가 화창하고, 또 모든 것들이 생동하는 5월이 가장 좋겠소. 그리고, 날짜는 초하루로 하고……. 5월 초하루는 《어린이》 잡지가 창간된 날이며, 또



우리 색동회가 창립된 날이니까요.”

하고, 방 정환은 즐거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회원들은 방 정환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 참 좋은데요. 그래요, 5월 초하루로 결정합시다.”

하고, 만장 일치로 어린이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색동회 회원들은 모두 토오코요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어린이날 행사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 천도교 소년회와 개벽사 간부에게 제 1 회만은 색동회 회원들이 참석을 할 수 없지만, 여러 단체와 손을 잡고 성대하게 시행해 달라고 3 월 20 일에 방 정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색동회 회원 중 진 장섭은 방 정환에게, “우리 회원이 한 사람도 가지 않아서야 어디 되겠소. 나 혼자서라도 가 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진 동인이 혼자서라도 가겠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보오. 그러면 잘 부탁하오.”



이리하여, 진 장섭은 3월 25일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진 장섭은 개벽사를 찾아갔습니다. 개벽사의 주간인 김 기전과 《어린이》잡지의 박 달성을 만났습니다. 이미 토오쿄오에서 보낸 방 정환의 편지를 받은 두 사람은 진 장섭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먼 데서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 정환의 편지는 잘 받았습니다. 행사 준비는 잘 되어가니까 염려 마십시오.”

하고 김 기전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 장섭은 혼자서라도 서울에 오기를 잘 했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 기진과 박 달성은 불교 소년회를 비롯하여 몇몇 소년 단체와 사회 단체와 의논을 했습니다.

그 준비는 잘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제 1 회 어린이날 행사는 5 월 1 일 오후 3 시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 축하식이 천도교당에서 성대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4 시에는, 어린이를 50명씩 1 조로 하여 4 조를 조직하여, 전 단 12만 장을 시내에 배부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개성, 김해, 진주, 대전, 안주, 창녕, 공주, 신상, 선천, 남포 등 지방에서도 열렸습니다.

제 1 회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 나라 소년 운동의 획기적인 햇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년 문화 운동의 선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1. 취지

젊은이나 늙은이는 일의 희망이 없다. 우리는 오직 나머지 힘을 다하여, 가련한 우리 후생(後生) 되는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자.

2. 소년 운동의 기초 조건

본 소년 운동회는 어린이날의 첫 기념이 되는 5월 1일인 오늘에 있어, 고요히 생각하고 굳이 결심한 끝에 감히 아래와 같은 세 조건의 표방을 소리쳐 전하며, 이에 대한 형제 천하(天下)의 심심한 주의와 공명과 또는 협동 실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인,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許)하게 하라.



-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無償), 또는 유상(有償)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기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2. 어른에게 드리는 글

-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 주시오.
- 2)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 3) 어린이에게 경어(敬語)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4)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5)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6) 산보와 원주 같은 것을 가끔가끔 시켜 주시오.

7)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8)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4. 어린이날의 약속

오늘이 어린이날, 희망의 새 명절 어린이날입니다.

5. 어린 동무들에게

1)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 2)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 3)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 4)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 5)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 6)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 7)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이상은 제 1 회 어린이날에 사람들에게 나눠 준 전단 내용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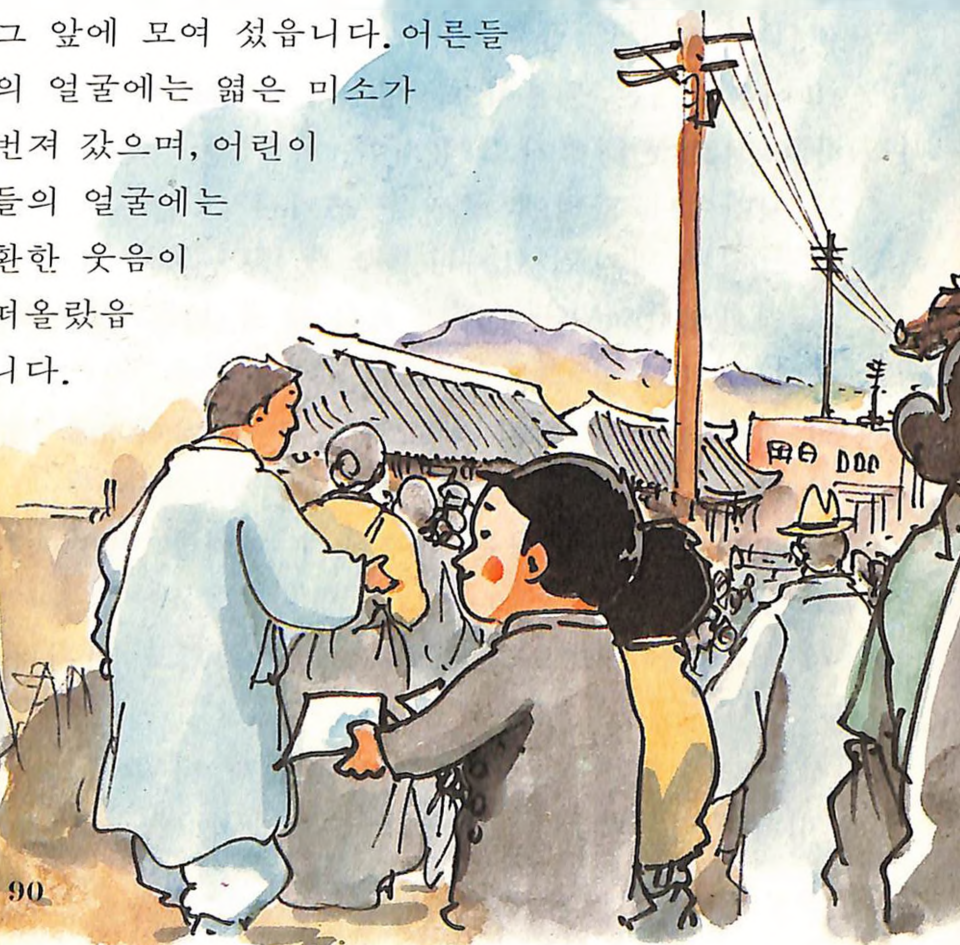
제 2 회와

제 3 회 어린이날

1924년 5월 1일은 제 2 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제 1 회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방 정환은 제 2 회 때부터는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는 10,000장의 어린이날 포스터가 나붙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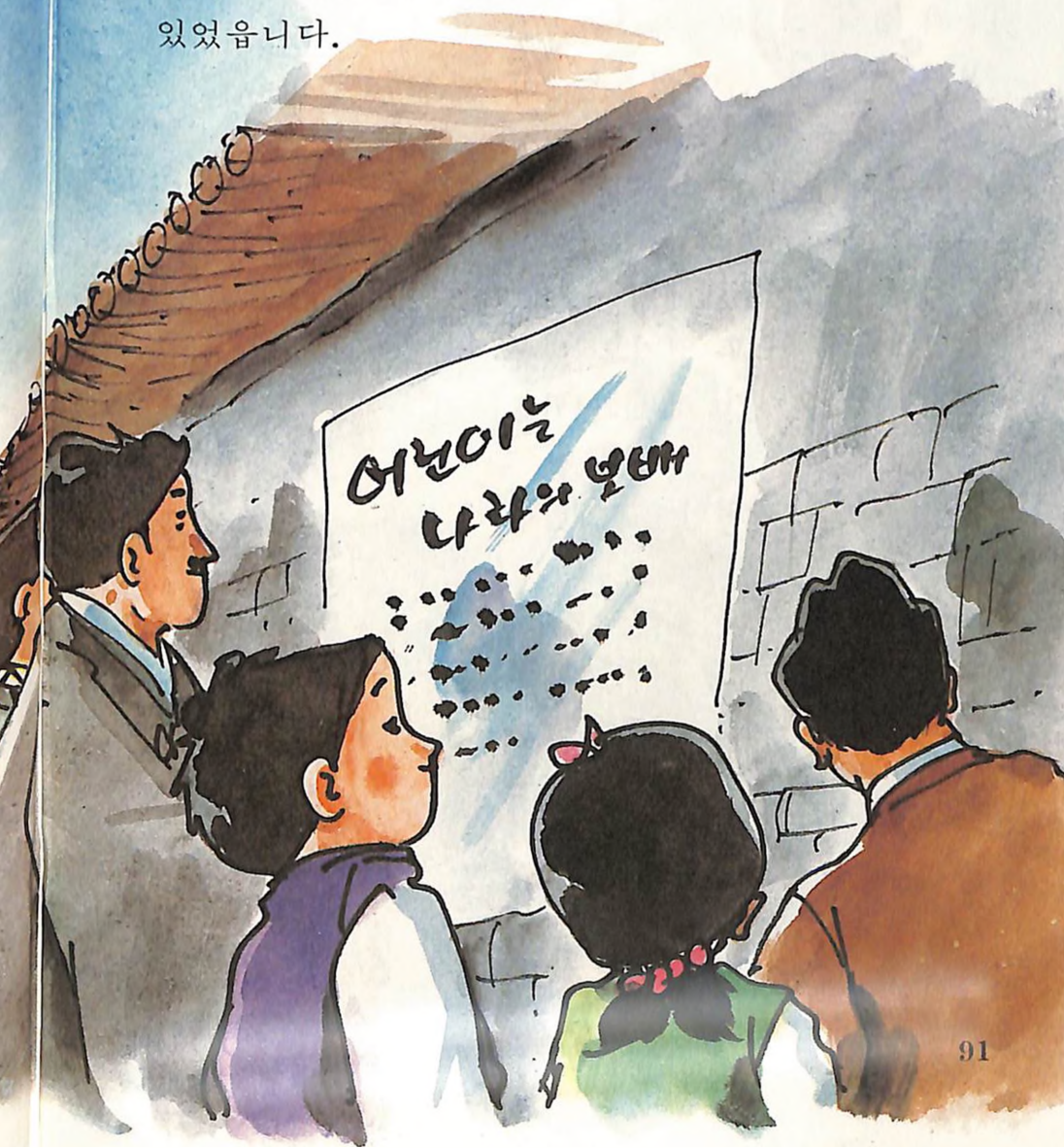
길 가던 어른은 물론 어린이들이 그 앞에 모여 섰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에는 얇은 미소가 번져 갔으며,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이 점차로 달라져 갔습니다.

거리거리의 모퉁이에서 어린이들이 길 가는 어른과 어린이들에게 전단을 나눠 주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 나눠 준 전단은 전국적으로 30만 장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 하나의 명절처럼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천도교당은 개최 시간도 되기 전에 1000여 명의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운동에 뜻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들도 어린이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브라스밴드의 주악이 우렁차게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이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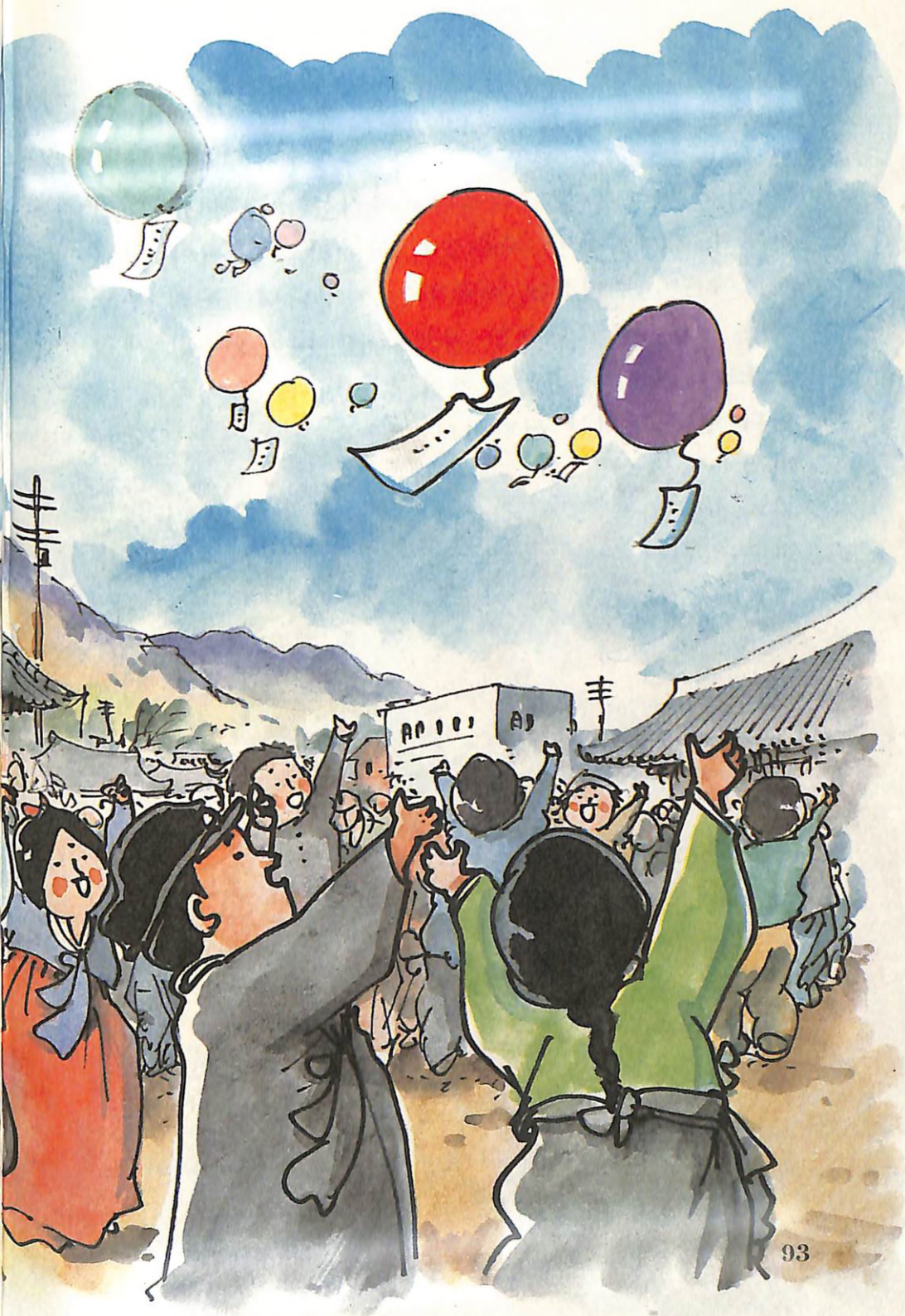
그리고, 노래극도 공연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무대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연기도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한없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쓴 고무 풍선을 일제히 하늘에 날렸습니다.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간 어린이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어린이들을 이해해야 할 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도 노래극





을 상연했고, 또 강연도 했습니다. 강연은 물론 방 정환이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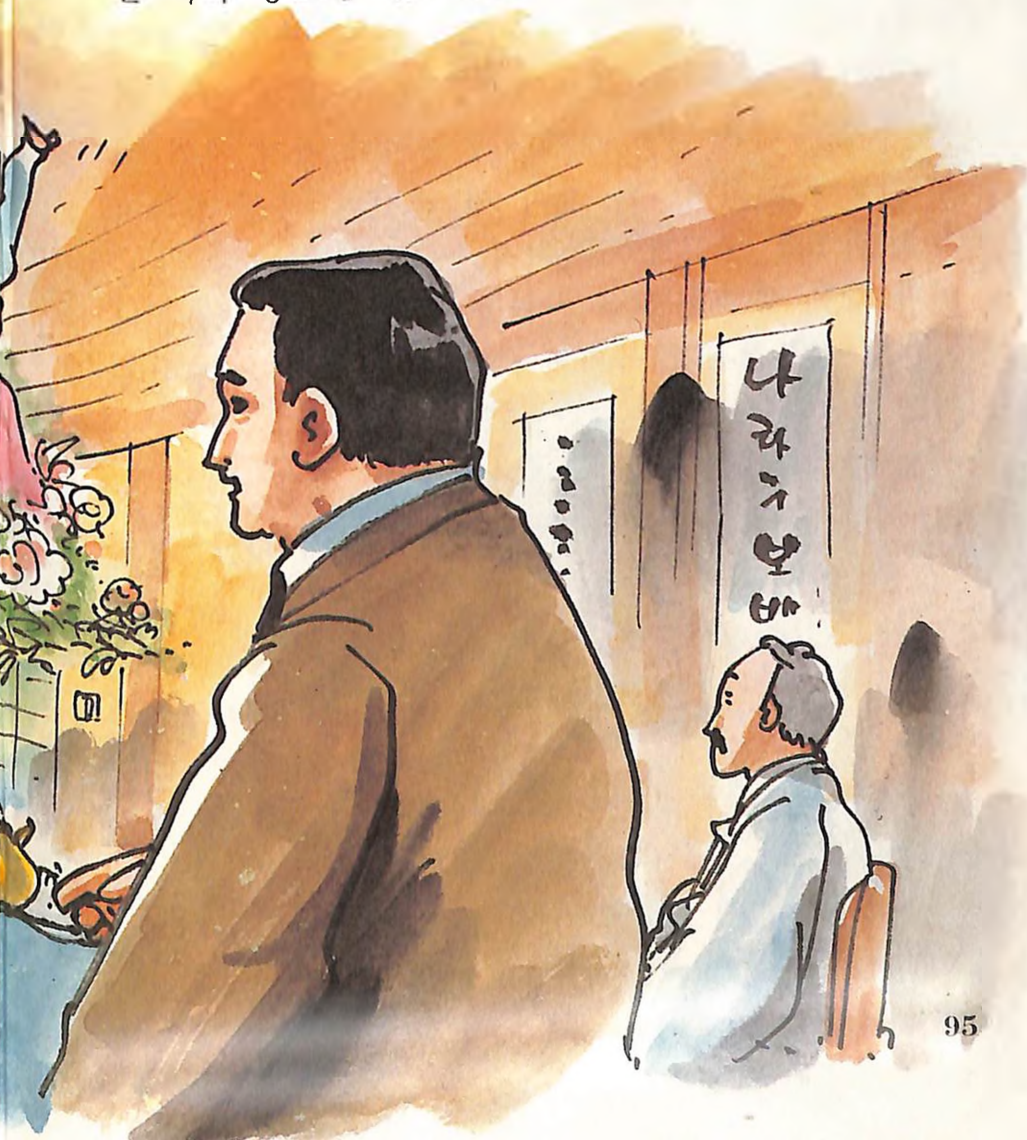
“여러분! 어린이를 내려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와 가까이하며 자주자주 이야기도 나눠야 합니다. 어른이 뿌리라면 어린이는 싹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대개 가정 교육은 엄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 자녀의 일생을 망쳐 놓습니다. 육박지를 때마다 뺨어 나가는 어린이의 기운은 바싹바싹 줄어들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훌륭한 인물이 못 됩니다.”



어른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방 정환의 연설은 더욱 열렬해지고, 사람들은 그 연설에 깊이 끌려들어갔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준다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도 자녀에 대해 옛날 그대로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을 눈 뜨게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인 네 번째 날에는, 나이 어린 소년들로서 학교에도 못 가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직업 소년을 위한 위안회가 열렸습니다. 소년들은 햇볕 밝은 들에 물어 놓은 망아지처럼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네도 뛰고 씨름도 하는 등 가지가지 재미있는 경기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하는 행사였습니다.

‘어린이를 잘 기르자. 어린이를 잘 기르는 것이 단 한 줄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 각각 자기 집의 가운을 위하여, 다 같이 새 조선의 싹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즐겁게 축복하자.’

이와 같은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들겼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목적인 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에서만이 아닙니다. 평양, 개성, 선천, 광주 등 여러 지방에서도 성대하게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정환이 색동회 정신에 따라 직접 간접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제 3회 어린이날 행사는 1925년 5월 1일부터 열렸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나뉜 10,000여 장의 어린이날 포스터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만 장의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그보다 앞선 4월 29일, 색동회는 《어린이》사와 공



제3회
어린이날
1925. 5. 1.

동 주최로 어린이날 전날 밤 잔치를 천도교 기념관에서 가졌습니다.

개최는 밤 8시부터였는데, 벌써 7시에 장내는 어린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 정환을 비롯한 색동회 회원들은 어린이들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며 서로가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우리가 해 온 일이 허사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고, 방 정환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도 달라졌는걸.”
하고 색동회 회원들은
저마다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날 밤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귀만의 설움 <동화>.....방 정환
 백일(百日) 처녀 이야기 <동화>.....고 한승
 동요 독창.....정 순철
 어린이날 이야기.....방 정환





장내의 어린이들은 모두가 구연 동화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 자신을 잃고 방정환의 이야기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대목에 가서는 눈물을 흘리고, 또 이야기가 우스울 때는 배를 움켜쥐고 깔깔거렸습니다.

방정환은 이야기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재주였습니다.

어린이날은 세 번째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다채로왔습니다.

특히, 이 날 방정환은 《어린이날 노래》를 지었습니다.

1. 기쁘다 오늘날 5월 1일은
우리들 어린이의 명절 날일세
복된 목숨 길이 품고 뛰어노는 날
오늘이 어린이날

2. 기쁘다 오늘날 5월 1일은
반도 정기 타고 난 우리 어린이
. 길이길이 뻗어날 새 목숨 품고
즐겁게 뛰어 노는 날

<후렴>

만세 만세 함께 부르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가세

이 노래의 곡은 그
당시 누구나 알고 있
는 서양 행진곡조에
맞추어 부르게 되어
있어, 어린이들은 누
구나 쉽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노래》
의 우렁차고 아름다
운 노래 소리는 천
도교 기념관을 뒤흔
들어 놓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겁
게 노래하는 것을 흐
뭇한 마음으로 바라
보고 있던 방 정환
은

“그래, 노래를 짓
기를 잘 했어.”
하고 만족스럽게 말
했습니다.

이리하여, 어린이
날을 축하하기 위한
전야제는 성대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들은

“참 재미있었지.”

“그래, 난 어떻게나 웃었는지. 배가 아파.”

“나는 그 얘기가 너무너무 슬펐어.”

“내일도 또 했으면 좋겠어.”

하며, 어린이들은 행사가 끝난 것을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어린이들의 시가 행진은 예정보다 늦게 거행됐습니다. 까닭은, 어린이들이 들고 행진할 깃발이 붉은 색뿐이어서, 좋지 않다는 일본 경찰의 트집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없소. 다시 깃발을 만들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깃발을 다시 만드느라 시가 행진은 오후 4시경에야 시작됐습니다.





화창한 봄 하늘
에 갖가지 색깔의
깃발들이 물결쳤
습니다.

방 정환의 구령
에 의해 대열이
앞으로 나아가자,
갖가지 색깔로 인
쇄된 전단이 뿌려
졌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린이.’

‘앞날의 임자는
어린이.’

‘내일을 위하여
어린이를 잘 키
우자.’

플래카드가
악대의 뒤를 따랐
습니다.

길 양쪽에서 구
경하던 시민들이
우렁찬 박수로 어
린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목받는 방 정환

방 정환은 언제나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하고, 《어린이》잡지의 일도 보아야 했으며, 또 색동회의 일도 해야 하고 개벽사의 특파원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서울에서의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에도 가야 했습니다.

토오쿄오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더군다나 방 정환은 <청년 구락부>를 비롯하여 《독립 신문》, 3·1 운동, 색동회 등의 일로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뒤에는 항상 일본 경찰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토오쿄오에서는 학교와 하숙집에서, 기차를 타면 이동 경찰, 연락선을 타도 이동 경찰, 서울에 돌아오면 서울의 일본 경찰이 뒤따라다녔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는 경우 반드시 2층에까지 올라와서 손님이 왔다고 전해 주는 하숙집 주인 여자가

“방씨, 손님이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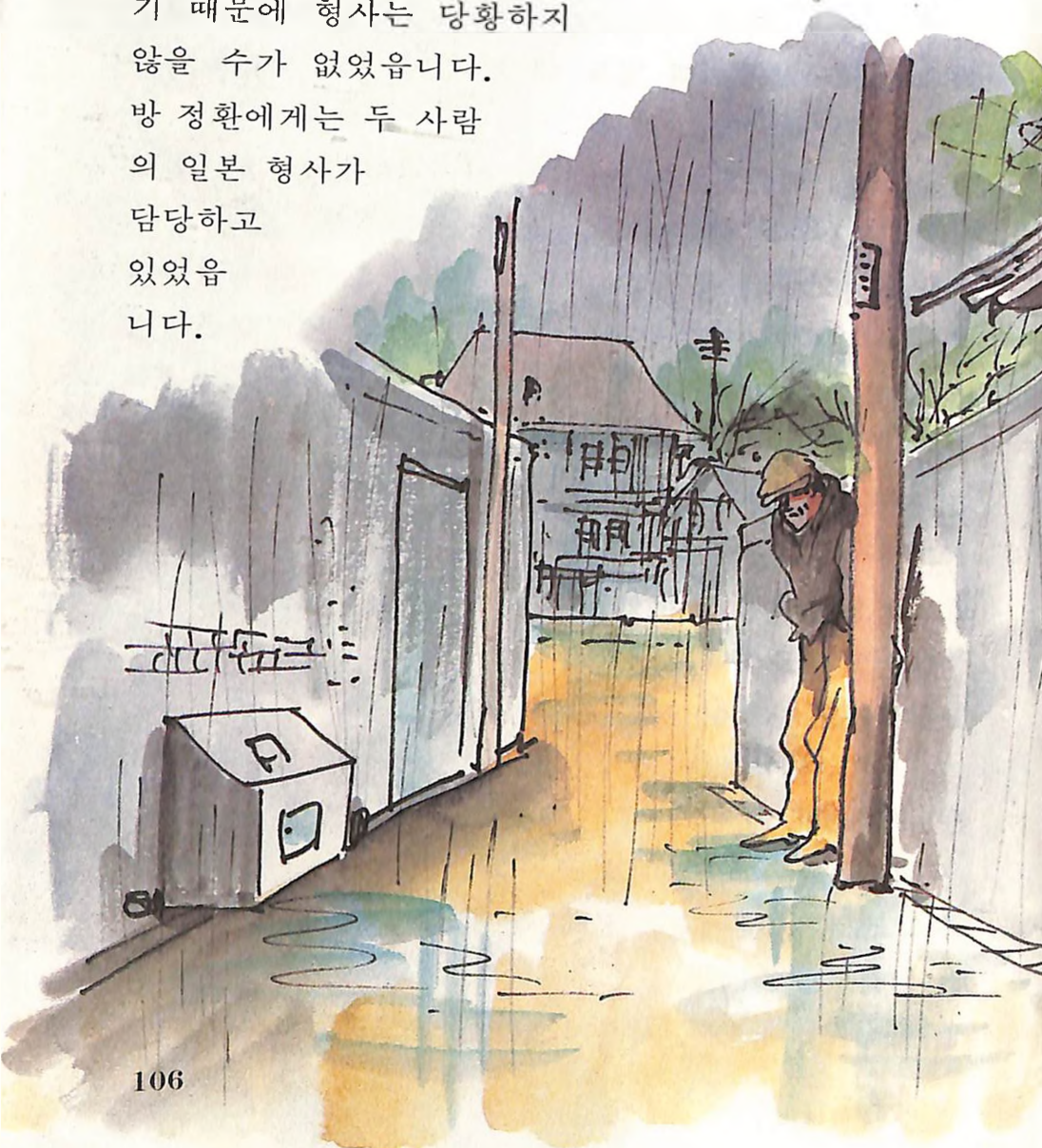
하고 소리칠 때에는, 정해 놓고 형사가 찾아왔을 경우입니다.

“아니, 아니……, 계신지 안 계신지만 알려고 왔습니

다. 내려오게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사가 당황해하는 것을, 방 정환은 2층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방 정환이 하숙집에 있는지 외출했는지만 주인에게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눈치가 빠른 주인 여자는 형사만 나타나면 2층을 향해 소리치기 때문에 형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정환에게는 두 사람의 일본 형사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국 학생들은 혹시 뒤를 밟는 형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골려 주기를 잘 하지만, 방 정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읍니다. 방 정환이 그들에게 짓궂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고맙게 여기어 방 정환을 별로 괴
롭히지 않았으며, 어떤 때에는 방 정환의 심부름도 잘
해 주었읍니다.

두 형사 중에 한 사
람은 야간 대학의 법
과를 다니는 청년이었
으며, 또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형사였읍
니다.

방 정환은 가끔 그
젊은 형사를 자기 방
에 올라오게 하여 이
야기를 나누기도 했읍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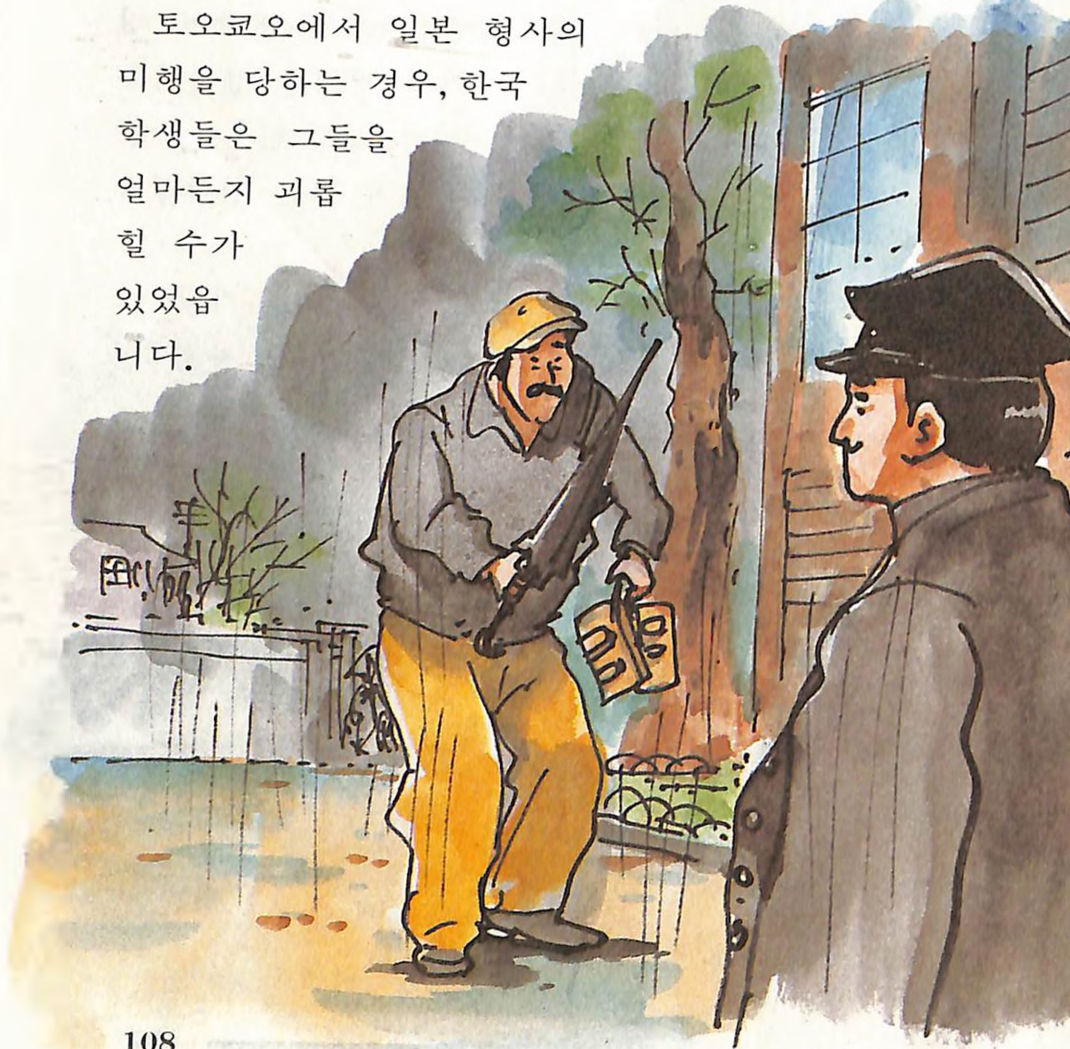
어느 날, 비가 내리
고 있어 날씨가 으스
스한데 늙은 형사가
골목에 서서 고생하고
있었읍니다. 방 정환은
그가 가없어서 자기
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차를 대접하면서,



“오늘은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책만 보고 있을 테니, 안심하고 가서 그렇게 보고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데 방해가 안 되게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꼭 외출 안 하시죠. 그렇게 믿고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늙은 형사는 좋아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토오쿄오에서 일본 형사의
미행을 당하는 경우, 한국
학생들은 그들을
얼마든지 괴롭
힐 수가
있었읍
니다.



그러나, 방 정환은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위낙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컸으며, 또 그들을 고생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토오쿄오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아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가, 하학 시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자연히 젖 젖 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방 정환을 미행하는 높은 형사는 방 정환의 하숙에 가서 우산과 높은 나막신을 가지고 와서, 교문 밖에서 방 정환에게 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평소 방 정환이 그를 진심으로 동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토오쿄오에서 미행하는 형사의 경우는 문제가 없었으나, 여행을 할 때면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토오쿄오를 떠나 서울로 돌아올 때면; 토오쿄오 역에서 서울의 그의 집까지 형사들이 미행했는데, 토오쿄오에서 서울까지 한 사람의 형사가 계속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처음 구역 형사가 다음 구역까지 가서 그 곳 형사에게 넘겨 주고 넘겨받은 하기 때문에,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몹시 불쾌한 꼴을 보게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토오쿄오의 형사가 요코하마까지 가면, 요코하마 경찰서의 형사가 나와 기다리다가 서로 암호를 하여 만나서는,

‘저기 양복을 입고 앉은 상고머리 사나이가 그 사람이다. 머리 위 선반에 있는 가죽 가방 두 개가 소지품이며, 그 옆에 앉은 사람은 동행인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인 모양이다.’

하는 식으로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인계를 받는 형사가 명함에다 무엇인가 적어서 넘겨 주는 형사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방 정환은 자주 토오쿄오와 서울을 왕래하기 때문에, 미행 형사가 교체하는 정거장이 어디인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정환은 열차가 정거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그들이 교체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방 정환은

‘이번 미행은 저자로구나.’

하고,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루한 여행에 있어서 하나의 재미도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고, 또 때를 가리지 않는 형사의 미행은 그리 유쾌한 일은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너그럽고 담이 큰 방 정환은 그러한 것을 조금도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면에서 그들을 동정했고, 사랑의 정신으로 맞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방 정환의 큰 인물다움은 20대의 초기에도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교포 어린이를 위한 잔치

1926년, 그 당시 토오쿄오에 있던 색동회 회원들은 매우 뜻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색동회 회원들인 진 장섭, 손 진태, 조 재호, 마 해송, 정 인섭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조 재호가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고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토오쿄오에도 우리 어린이들은 많습니다. 그들은 국내에 있는 어린이들보다 더 한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엾은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참 좋은 데 착안했습니다. 정말 토오쿄오에 있는 우리 어린이는 국내의 어린이들보다 더 심한 천대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준다는 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마 해송이 말했습니다.

“나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논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뜻있는 일을 하기로 합시다.”

하고, 정 인섭이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후카가와나 시나가와 등지의 공장에서 무거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포들의 자제들은 학교에도 못 가고 또 민족적인 차별을 받으며 가엾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뿐더러, 그들에게 관심도 두지 않았읍니다.

색동회 회원들은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습니다.

우선 그들을 위하여 하루
라도 즐겁게 해 주는
행사를 벌이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읍
니다.



그리하여 1926년 1월 1일, 다시 말해서 정월 초하루에 우에노(上野) 공원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일본 키모노(일본 재래의 옷)를 입은 아이, 한복을 입은 아이 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감돌고 있었지만, 모두가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어린이들을 보는 '색동회' 회원들의 가슴은 감개 무량했습니다. 모두가 눈시울이 뜨기위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잘 했군!’

‘벌써 이런 행사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로 피는 물보다 질다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는 일로군…….’



색동회 회원들은 우에노 공원 앞에서 어린이들에게
과자며 점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날의 비용은 모두가 색동회 회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 행사에는 색동회 회원이 아닌 와세
다 대학생인 이 현구(李軒求)와 이 선근(李宣根)도 참
가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가슴은 벅차기만 했습니다. 같은 피를 이어받은 동포 청년들이 자기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즐겁게 뛰놀기도 하고, 또 처음으로 동물원도 구경했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모임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있는 후, 색동회 회원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요일마다 후카가와에 있는 한국인 예배당의 주일 학교를 찾아가서 재미있는 동화도 들려 주고 함께 놀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색동회 회원뿐만 아니라, 뜻을 함께 하는 마 해송의 누님인 의학 전문 학교 학생 마 복순 등도 참가했습니다. 모두가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웬만한 열성과 성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후카가와 일대 공장에서는 나이 어린 소녀들이 싼 임금을 받고 노동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그들은 편지조차 쓸 줄 몰랐고, 또 돈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조 재호는 그들을 찾아가서, 한글도 가르치고, 또 산수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주인을 만나 그 소녀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 싸다는 것을 지적하여, 그릇된 처우를 고치는 데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눈 뜨게 해야 할 어머니들

방 정환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소년 운동을 비롯하여 《어린이》사의 일,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동화 구연 대회를 가지는 일, 또 강연회의 연사로도 나가야 했으며, 동화와 동요도 창작하였으며, 중앙 보육 학교와 경성 보육 학교에서 아동 문학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1927년 2월 16일에는 라디오를 통해 <어린이와 직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건 어린이와 관계가 없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여러 모로 어린이 운동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런데 1927년, 방 정환이 중심이었던 <소년 운동 협회>와 다른 사람이 이끌고 있는 <5 월회>는 그 전해부터 시작된 견해 차이로 두 단체가 제각기 어린이날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 월 30일,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여 어린이 운동 단체의 통합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때, 색동회의 대표이며 《어린이》사의 대표인 방 정환은 준비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 운동 단체를 통합하여 10월 16일에 창립한 <조선 소년 연합회>의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해부터는 어린이날을 5월의 첫째 일요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1928년 2월 7일, 조선 소년 연합회의 주최로 어머니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모임에서 방 정환은 <소년 운동과 가정 교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습니다.

즉, 어린이 운동을 가정의 어머니에게까지 보급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은 어린이 운동과 또 가정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3월 22일에 있었던 조선 소년 연합회의 제1회 정기 총회에서 단체의 이름을 <조선 소년 운동 총동맹>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당국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
니다. 그리하여, <조선
소년 총연맹>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방 정환은 이 단
체가 순수함을 잃어
가며, 어떤 층의 어
린이들만을 위한 운
동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단
체에서 손을 뗐습니
다.

이 단체의 성격이
색동회가 뜻하던
어린이 전체를 위한
순수한 것이 아니었
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5월 1
일, 방 정환은 단독
으로 천도교 기념관
에서 동화 구연 대
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는 1500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

방 정환은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되며, 또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줄 일만을 언제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방 정환은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을 한 자리에 모아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관람을 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중국 상하이(上海)에 있는 우리의 모든 친지와 도이칠란트 정부에 독일 어린이들의 그림을 수집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방 정환은 이렇게 하여 한 나라씩 어린이들의 그림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행사를 쉽게 벌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토오쿄오에서 대학을 다니며, 또 색동회의 일도 도와 주고 있던 이 헌구가 방 정환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구는 동화, 동극, 인형극, 외국 어린이들의 그림, 동요와 동화책,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어린 시절의 초상화, 세계 각국의 풍속도, 어린이를 소재로 한 유럽의 미술가들의 그림을 복사한 것 등 1000 점에 이르는 자료를 이미 모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 헌구와 함께 한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

는 와세다 대학의 동창생인 정 인섭이

“그 아동 전람회를 우선 부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소?”

하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부산? 좋기는 하겠지만, 그 곳은 생소한 고장이며,
머무는 동안의 경비도 문제가 돼서…….”

하고 이 현구는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할 것 없소. 나도 도울 테니까……. 내
가 발벗고 나서겠소.”



하고 정 인섭은 기꺼이 함께 일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정 형, 정말 고맙소. 그렇게 되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소.”

하고 이 헌구는 정 인섭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크고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이 헌구는 처음 이 계획을 세웠을 때, 여름 방학 동안 자기의 고향인 함경 북도에서만 순회를 하며 전시를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 인섭의 제의로 처음 계획은 수정되어 크게 발전된 것입니다. 또 여기

에는 이 헌구의 동창이며

고향도 같은 김 광섭

(金珖變)도 가담

하게 되었

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7월 16일부터 부산에서 시작하여 8월 16일까지 경남 일대에서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전시회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온 것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 헌구, 정 인섭, 김 광섭 등 세 사람은 서울에 있는 색동회 동인 방 정환, 조 재호, 정 순철, 진 장섭과 만났습니다.

“마침 잘 됐소. 서울에서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가지려고 몇 해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소. 상하이에 있는 나의 친지가 그 곳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내 왔고, 또 도이칠란트 정부에서도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계〉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곤란하여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던 참이오.”

하고 방 정환은 그 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온 자료를 합쳐서 전시하면 세계라는 이름을 붙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전람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고 이 헌구는 자신에 찬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그 정도면 글자 그대로 세계적인 전람회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전람회가 되지요. 참 다행입니다. 일이 이같이 쉽게 실현될 수 있다니 정말 뜻밖의 일이오.”

하고 방 정환은 환한 웃음을 띄우고 힘차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의 그림도 있어야죠.”

이 말은 정 인섭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낸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남을 순회하는 동안, 그 곳 어린이들의 그림을 약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어린이의 그림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 전국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그림을 모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은 적어도 한 달은 여유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 인섭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라고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의 작품을 빼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참 좋은 의견이요. 사실 그렇게 되어야죠.”

방 정환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작품 모집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작품은 예상대로 잘 모아졌습니다.

당시 《동아 일보》는 3면 머리기사로 <중추(仲秋) 서늘한 시절의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라는 3단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의 《동아 일보》는,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의 충실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사가 3년 전부터 준비했고, 토오쿄오의 <외국 문학 연구회>가 작품들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출판 내용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제 1 부.....전조선 아동 작품.

제 2 부.....세계 각국 아동 작품(십여 개 국)

제 3 부.....내외국 유치원 아동 작품.

제 4 부.....아동극, 인형극, 가면극(내외국 사용 실
물과 사진).

제 5 부.....내외국 아동 영화 사진, 세계 저명 동화
극 사진.

제 6 부.....각국 아동 잡지 및 과외 서적 및 각국 아
동 서적.

제 7 부.....각국 아동 생활 풍속 사진.

제 8 부.....세계 각국 아동 예술가 초상, 동화 작가.
동요 작가 기타.

제 9 부.....각국 소년 소녀 회합 포스터 및 프로그램.

제 10 부.....내외국 아동 장난감.

특별관.....일본 화가 협회 걸작 원화 40점.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아, 이 전람회는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어린이 운
동을 시작하여 5 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과 아울러 생
각할 때, 그 뜻은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읍
니다.

전람회를 1 주일 앞둔 9 월 25일, 《동아 일보》는
‘장차 올 신세계의 트이기 시작한 싹을 모아 전인
류의 내일 살이를 계시할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가
조선의 서울에서 꽃밭보다 더 찬란히 열리는 10월

2일도 이제 고작 1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는 그 정리와 진열 등 계획 준비에 들어가게 되어서,
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9월 26일의 《동아 일보》는 이 전람회를 후원한다는
광고를 내고, 28일에는 <개회전 대인기인 국제적 대전
람회>라는 제목으로 단체 관람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
며, 지방 학교에서는 수학 여행까지 올 계획이라는 보
도 기사를 실었습니다.

방 정환을 비롯한 준비 위원들은 더욱 어깨가 무거
워졌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 가면서
전람회의 준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928년 10월 2일에 드디어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장소
는 천도교 기념관
이었으며, 기간
은 1주일
동안이었
습니다.

세계아동



세계 각국과 우리 나라 어린이들의 정성어린 작품과
여러 가지 진기한 예술품들이 회장 가득히 진열되었습
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충실한 내용의 전람
회입니다.

회장 밖에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 들까지도 길게 열
을 짓고 순서대로 회장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공이야! 이 관람자들의 줄을 좀 봐요.”

하고 방 정환은 감격어린 말투로 말했습니다.



“모두 방 형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고 이 헌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오. 이 형 덕분이오.”

하며, 방 정환은 이 헌구와 다른 준비 위원들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오랫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친 전람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전람회는 많은 어린이와 또 많은 어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으며, 큰 감명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에 대해 《동아 일보》는 그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선에서 처음 계획되는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는 조선 교육계 및 소년 운동사에 다대한 참고 내지 자극이 될 것을 확신한다. 소년 소녀의 자유스러운 상상력을 광활한 지구의 저 끝까지 퍼게 함으로써 그 안목과 포괄력을 확대케 하는 등 일상 교과 이상의 다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실로 아동의 전유물인 천진 난만의 세계는 성인이 된 사람들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독특한 경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동 예술 전람회에 있어서 교육자, 일반 소년 지도자, 또는 부모도 배울 점이 다 대하리라고 생각한다. 금번의 예술 전람회가 조선의 아동에 대한 관념을 세계적 수준에 올리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눈을 좋아 했던 방 정환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성공적으로 끝낸 방 정환은 곧 다음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전에도 방 정환은 소년 운동과 가정의 관계를 어머니들에게 라디오를 통해 강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방 정환은 《신여성》이라는 주부들을 위한 잡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방 정환은 자기의 건강을 조금도 돌보지 않았읍니다. 무엇이든지 어린이를 위하는 일이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방 정환은 몸집은



뚱뚱했으나 늘 머리가
아팠고, 또 몸에는 열도
높았습니다. 코피도 자주
쏟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에서
동화나 강연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방 정환은 그러한 일
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은 하늘이 내
린 천직으로 알고 있었
습니다.

방 정환은 남달리 어
린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자신도
언제나 어린이들처럼 깨끗한 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
니다.

어린이들도 무척 좋아했지만, 또 친구들도 무척 좋
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눈을 좋아했습니다. 눈
이 내리면 으레히 눈을 맞으면서 길을 걷곤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지도력도 어
릴 때부터 이미 지니고 있었으나, 반면 매우 눈물이 많
고 또 감상적인 일면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나, 친구





들과 어울리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도 그 위치에 있지만, 신흥사와 고려 대학교 근처에 있는 영도사(永導寺)로 방 정환은 색동회 동인들과 자주 놀러 갔습니다.

방 정환은 신흥사 입구에 서 있는 지하 대장군을 좋아했습니다.

“이봐, 이 지하 대장군은 정말 걸작품이야. 나는 이 지하 대장군만 보면 즐겁기만 해요.”

하고 방 정환은 어린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방 정환은 눈만 내리면 색동회 동인들과 함께 눈을 맞으며 동대문 밖에 있는 형제 주점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추어탕과 탁주를 먹고는 눈이 쌓인 논두렁 밭두렁을 걸어서 영도사까지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 주점은 그 시절에는 집 옆에 큰 강을 끼고 있어, 거기서 기른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색동회 동인들은 그 집을 좋아하여 자주 찾아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앞박골 약수터(오늘날의 서대

문 교도소 뒷산 계곡)로 가서, 말린 굴비를 뜯어 먹고 약수를 마시며 재미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방 정환은 신흥사나 형제 주점이나, 또는 영도사를 찾아가지 못할 때에는, 한밤중이라도 팔판동 구석에 있는 조 재호 동인의 대문을 두들깁니다.

“조 형, 벌써 자는 거요? 자, 빨리 일어나서 대문을 열어요.”

하고 방 정환은 소리칩니다.

“아니, 지금 초저녁인
줄 아는 모양인데,
이거 큰일났군.”



하고 조 재호가 대문 밖에 나가 보면, 언제나 같이 불
어다니는 손 진태, 진 장섭, 정 순철, 정 인섭 등이 방
정환을 앞세우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쇠고기 두서너 근, 동태 몇 마리가 들
려 있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랑방에서 밤참을 먹어 가며 《어린이》 잡
지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웁니다.

“자, 이번 호에 대해
기탄 없는 의견을
듣고 싶소.”



하고 방 정환이 말을 꺼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표지, 차례, 수록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방 정환은 한 쪽 구석에서 쿵쿵 코를 골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포도 대장 이야기나 해야지. 좀 길기는 하지만 아주 재미가 있지.”

하고 방 정환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도 대장 이야기는 어떻게나 길든지 한 시간은 족히 걸렸으나,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슬아슬 조리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날이 세기도 했습니다.

방 정환의 동화 구연술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동인들이 모여서 한참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이야깃거리가 떨어져 따분해지면, 방 정환은 으레히 우스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동화 대회 같은 때에도 처음에는 《그림 동화집》에 있는 《콩알, 솟검정, 지푸라기》 같은 명랑하고 짙막한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백설 공주》 같은 길고 슬픈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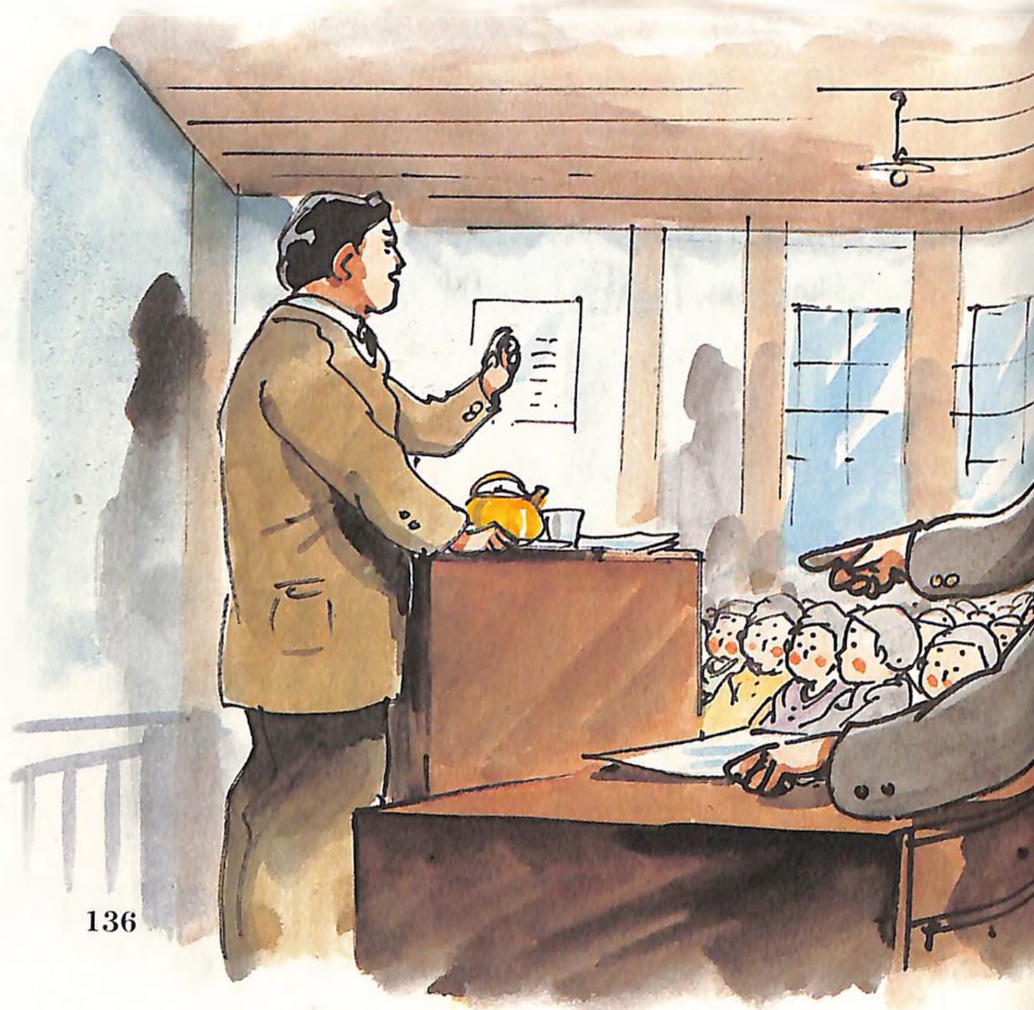
“한편, 일곱 난장이들은 여느 때처럼 해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난장이들의 웃던 얼굴이 갑자기 슬픈 얼굴로 변해 버렸습니다. 백설 공주가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의

끈을 풀고, 머리에 꽂은 빗을 뽑아도 그전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방 정환이 자기도 눈물을 흘려 가면서 그 불쌍한 공주 이야기를 하면, 듣는 어린이들도 함께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슬픈 감정에 비유하는 대목이 나오면, 경찰서에서 나와 있는 경관은 “주의!”

하고, 큰 소리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을 알고 있는 방 정환의 이야기에 청중들의 감정이 폭발하여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임석 경관은 자주 주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도 눈이 많이 쌓인 아침이었습니다. 소격동에 살고 있는 방 정환은 그리 멀지 않는 진 장섭 동인의 집을 새벽같이 찾아갔습니다.

진 장섭은 그 때 눈을 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흔드는 소리와 함께 방 정환의 굵직한 목소리가 울렸읍니다.

대문을 열자 조 재호, 최 진순, 정 순철 등 색동회 동인들이 방 정환을 중심으로 우루루 마당으로 들어섰읍니다.

“아니, 눈이 오는데 새벽같이 이게 웬일들이오?”

하고 진 장섭은 놀라 소리를 질렀읍니다.

“눈이 오니까 일부러 찾아왔는데, 눈이 오는데 웬일이냐가 무슨 소리요?”

하고, 방 정환은 진 장섭





까지 끌고, 가회동 꼭대기에 있는 취운정(翠雲亭)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정환은 그 날 아침 세 친구를 일일이 찾아가서 깨워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얀 눈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서 취운정으로 올라가서, 아침밥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눈 경치만 감상하였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밤, 방 정환은 잠자리에 누웠다가 멀지 않는 곳의 여관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지난날 총독부 토지 조사국에서 사귄 유 광렬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눈이 오네, 눈을 맞으며 밤을 세우지 않겠나?”

하고 방 정환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찬 눈을 맞고 다니자는 거야? 눈은 개
나 좋아하지 사람도 좋아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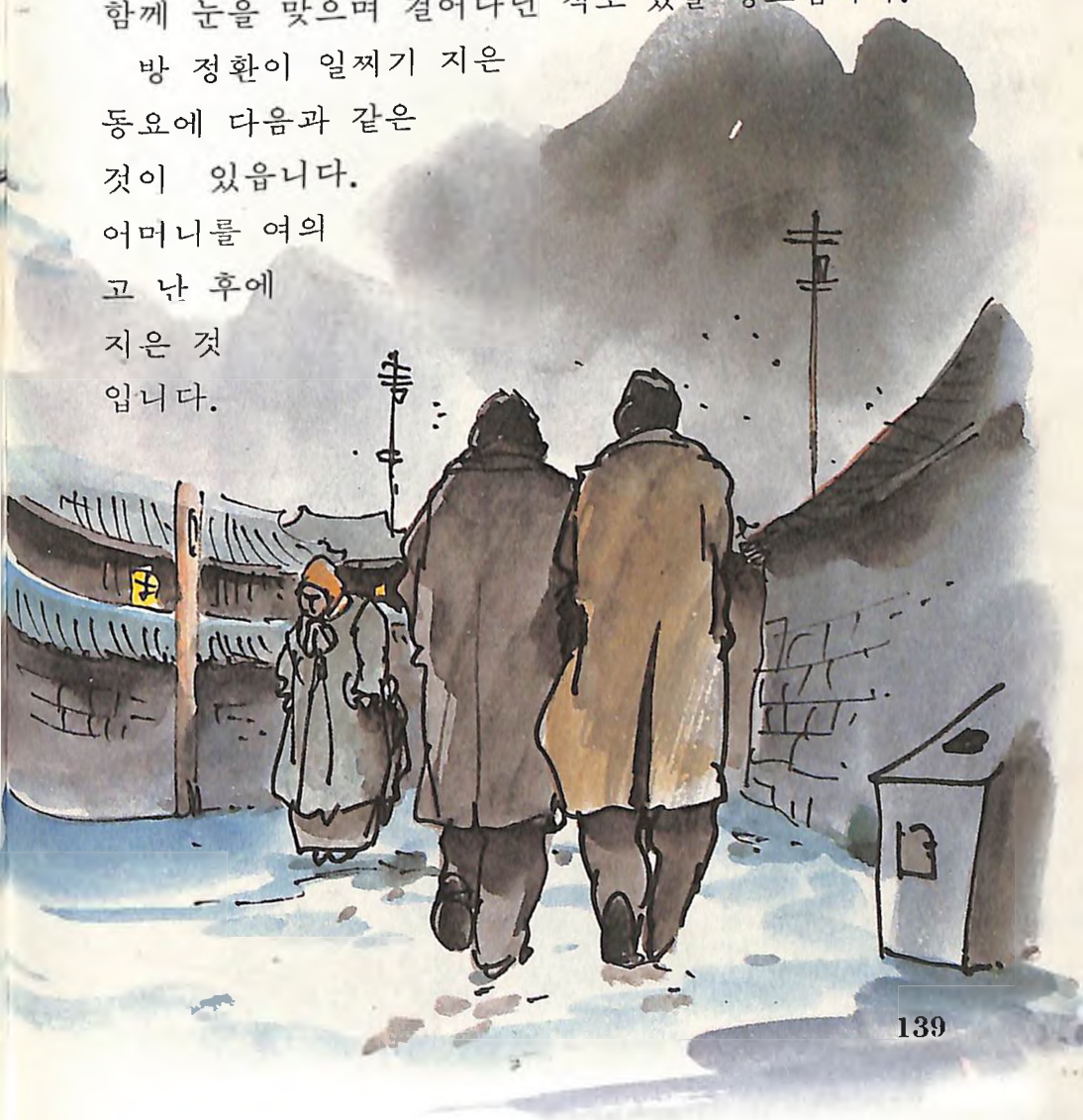
하고 유 광렬은 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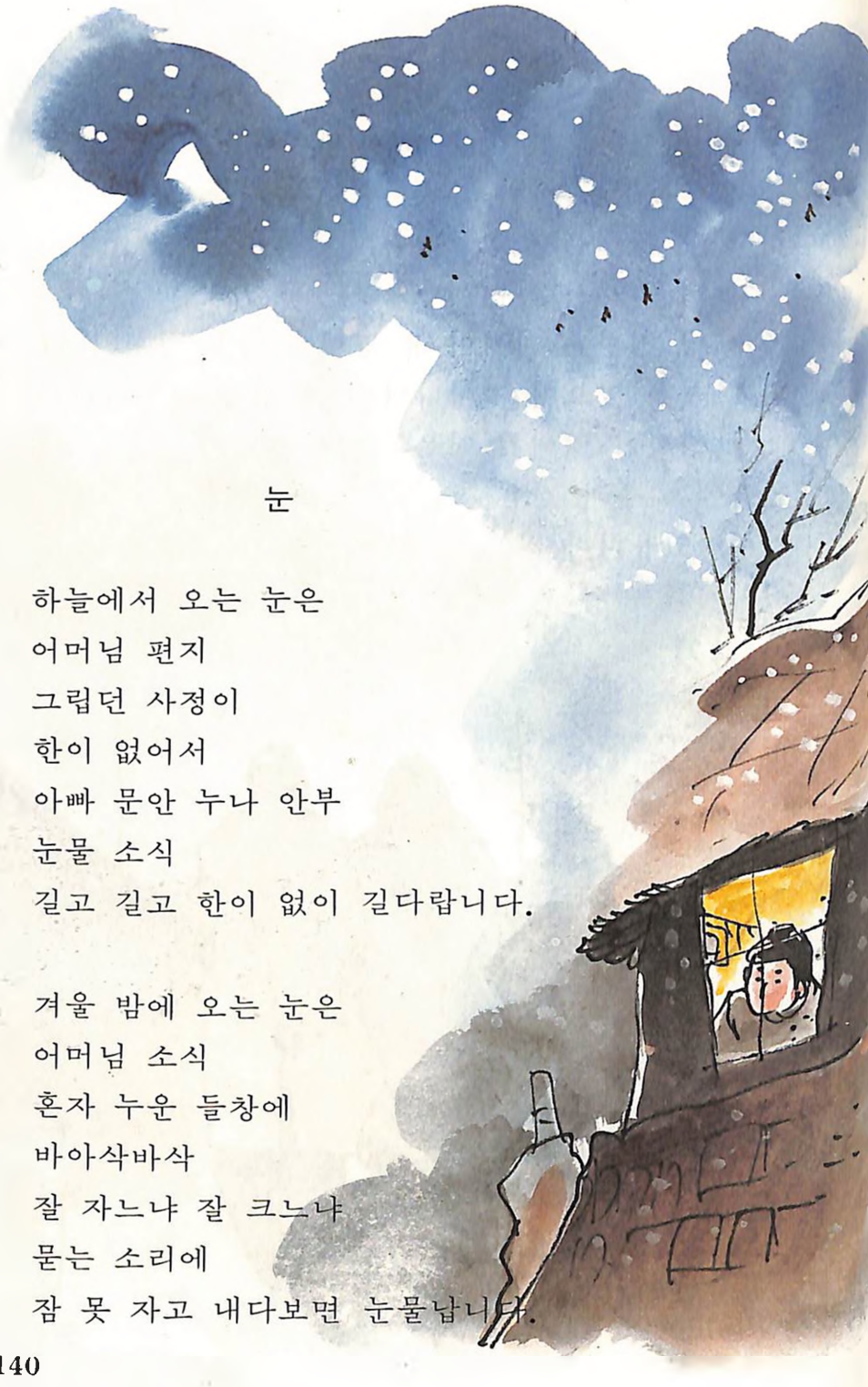
“에끼, 이 사람아.”

하고 방 정환은 기어이 유 광렬을 끌고 밤거리에 나가,
함께 눈을 맞으며 걸어다닌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방 정환이 일찌기 지은
동요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여의
고 난 후에
지은 것
입니다.





눈

하늘에서 오는 눈은
어머님 편지
그립던 사정이
한이 없어서
아빠 문안 누나 안부
눈물 소식
길고 길고 한이 없이 길다랍니다.

겨울 밤에 오는 눈은
어머님 소식
혼자 누운 들창에
바아삭바삭
잘 자느냐 잘 크느냐
묻는 소리에
잠 못 자고 내다보면 눈물납니다.



경관도 눈물

흘린 구연 동화

방 정환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말로 들려 주었습니다. 그는 동화를 말로 하는 동안 자신이 어린이가 되어, 어린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동화의 세계로 깊이깊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은 방 정환의 이름을 모르는 어린이가 없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방 정환이 자기 고장에 와서 동화를 들려 준다고 하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동화를 들으러 왔습니다.

1925년 설달 그믐께였습니다. 수원에 있는 <화성소년회>는 해마다



서울에서 방 정환을 모셔다가 동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해에도 방 정환을 모시고 공회당에서 동화 대회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회당을 못 쓰게 되어, 하는 수 없
이 좁은 장소인 화성 학원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방 정환이 이야기를 막 시작했을 때
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경관이

“왜 경관석은 없는가?”

하고 생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경관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중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 경관석이 어디론가 밀려났던 것입니다.

화가 난 경관 앞에서 사회를 맡았던 최 영주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방 정환은 태연히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가엾은 처지를 말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방 정환이 우리 민족의 가엾은 처지를 말하고 있는 중인데도 조금 전까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던 경관이 방 정환의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엾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조선의 어린 사람들입니다.”

방 정환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자, 경관은 마구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지 못해 돌아서서 닦고 있었습니다.

방 정환의 놀라운 이야기 솜씨는 얼음장같이 차디찬 일본 경찰 앞잡이의 마음을 녹여 버린 것이었습니다.

방 정환의 구연 동화와 강연은 우리 나라 13도 어디서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번은 방 정환이



발행한 《어린이》 잡지의 《쫓겨 가신 선생님》이라는 소년 소설이 조선 총독부의 검열에 걸려 잡지는 팔지 못하게 되고, 방 정환은 서대문 형무소에 열흘 동안이나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방 정환은 감방에서 많은 죄수들을 모아 놓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어떻게나 재미나게 잘 하는지, 감방을 지키던 간수들까지도 자기네 들끼리 돌려 가며 망을 보면서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풀려서 나올 무렵에는, <동화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죄수들이 매우 섭섭해 했다는 것입니다.



검은 마차를 타고

1930년 제 8 회 어린이날은 겨우 기념식만으로 끝났습니다. 방 정환이, 어린이 운동의 제 2 단계로 발행했던 《학생》 잡지도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또, 1931년 5 월의 어린이날에도 소규모의 기념식만을 가졌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경찰은 소년 운동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말로 발간되어 온 유일한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도 경영이 차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방 정환의 얼굴에는 병색이 짙어졌습니

서울 남산에 있는 소파 방 정환 동상



다. 육체적인 병도 컸지만, 정신적인 고통 또한 컸읍니다.

일본 당국의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화(日本化) 정책은 점점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우리의 글과 말까지도 없애려고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글과 말까지도 영영 빼앗기고 마는가. 아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글과 말을 가르쳐야 한다!’

방 정환은 더욱 분발했습니다. 그는 잡지의 편집과 글을 쓰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방 정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방 정환은 서른 두 살이 되는 1931년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린이》를 발간하던 개벽사가 빗에 쪼들리게 된 것입니다.

일본 당국의 더욱 심한 탄압으로 《개벽》 잡지도 팔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정환은 여러 가지 일로 피로하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신장염에서 오는 고혈압으로 7월 17일 경성 제국 대학 부속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색동회 동인인 조 재호가 근무하고 있는 경성 사범 학교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조 선생이십니까? 소파 선생이 위독합니다. 그리고, 조 선생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는 전갈이었습시다.

조 재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시다.

방 정환은 삼베 홀이불을 몸에 감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시다. 부인과 장남 윤용(云容)이 정신 없이 그 옆에 서 있었고, 극작가 박 진(朴珍), 담당 의사와 간호원도 서 있었습시다.

“소파!”





하고
조 재호는
방 정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방 정환은 말은 알아들었으나,
눈은 이미 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조 재호가 다시

“소파, 이게 웬일이오?”

하고 말했더니,

“우리 어린이들을 어찌하오?”

하고, 방 정환은 꺼져 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야겠어. 문간에 마차가 왔군.”

“마차라니, 무슨 마차가?”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어.”

“그건 환상입니다.”

“아니야, 말도 새까맣고 마차도 새까만 마차야. 나는
저 마차를 타고 가야 해.”

하고 방 정환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디까지나 동화적인 환상이었습니다. 그는 《산드롱
의 유리 구두》에 나오는 마차를 생각한 것이었을까요?
아무튼,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
라, 동화의 나라로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1주일이 되는 7월 23일 오후 6
시 54분, 서른 두 살의 아까운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
나고 말았습니다.

방 정환이 세상을 떠난 7월 23일은 그가 토요일로
에서 색동회를 조직하고, 또 서울에서 전국 소년 지
도자 강습회를 열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방 정환의 인생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 온 길은
짧았으나 보람찬 길이었습
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에서 굳은 의지와
신념과 열성을
다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했으며, 빼앗긴 조국의 앞날을 걱정했고,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아무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어린이 문제에 눈을 뜨고,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지도에 일생을 바친 그는 확실히 선각자적인 위대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정환의 영결식은 7월 25일 오후 1시, 천도교당 앞마당에서 《어린이》사와 색동회 주최로 엄숙히 거행되었으며, 그 이튿날 7월 26일에는 색동회 주최로 소파 추도식이 거행되었고, 8월 20일에 나온 《어린이》 87호는 소파 추도호로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그를 기념하기 위해 <새싹회>에 의해 소파상(小波賞)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소파상은 어린이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아동 문학의 선구자

박 홍 근

〈아동 문학가〉

방 정환 선생의 소년 시절은 매우 불우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내색을 남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행이나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털끝만큼도 비굴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정환 선생은 현실이 주는 시련을 묵묵히 견디어 나갔고, 그렇다고 현실에 때묻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당주동에서 자라, 처음에는 보성 보통 학교에 입학했다가, 그 후 미동 보통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상업 학교는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린 상업 학교에 입학했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뜻을 품은 소년으로서는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으며 조선 총독부의 토지 조사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그의 나이 불과 16세였습니다. 꿈 많은 소년은 이렇게 자기가 뜻을 품은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빼앗긴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길을 꾸준히 찾고 있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방 정환 선생은 20세의 젊은 청년이었고, 보성 전문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인 육 익선 선생은 《독립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육 익선 선생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자, 《독립 신문》은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방 정환 선생은 《독립 신문》을 계속 발행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동지들을 모아 자신의 집에서 등사판으로 신문을 인쇄한 후 집집마다 배달했습니다.

그러나 3주일 후, 일본 경찰은 이런 사실을 탐지하고 방 정환 선생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러자, 방 정환 선생은 침착하고도 재빠르게 등사판을 비롯하여 증거가 될 물건들을 우물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집안을 온통 뒤졌으나,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 정환 선생은 체포되어 무서운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끝끝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1주일 후에 석방되었는데 계속 비밀리에 《독립 신문》을 발행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을 뛰게 하고 애국심을 불타오르게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일본 토오쿄오에서 토오요오 대학(東洋大學)에 다니게 된 방 정환 선생은 민족과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1 운동의 실패에 대하여 특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정의로운 민족적인 쟁기라도 무력 앞에서 맨주먹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많은 동포들이 일제의 총칼에 쓰러지고, 헤아릴 수 없는 동포들이 야만적인 고문을 받아 죽거나 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방 정환 선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 어린이들을 바르고 아름답게 기르는 운동,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운동, 불행한 나라를 젊어지고 나갈 제2세 국민을 용기 있고 진실한 인간이 되게 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21년, 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에 돌아온 그는 천도교 소년회를 창립했습니다. 한편, 부모의 정신을 깨우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말 하나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라는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예속물로 밖에 어린이를 보지 않던 당시에, 그 말은 참으로 혁신적



인 어휘였습니다.

방 정환 선생의 소년 운동은 딱딱한 이론을 앞세우지 않았읍니다. 그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동화 구연 대회와 강연회를 열었는데, 그의 화술이 어찌나 훌륭했던지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똑같이 웃고 울며 동화의 세계에 빠져들곤 하였읍니다.

그는 우리의 전래 동화에서부터 자신의 창작 동화, 그리고 외국의 동화를 가리지 않고 이야기했지만, 구연 동화들이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야한 몸짓이나 말씨가 없었고, 순박하고도 섬세하며, 경쾌하면서도 무게가 있는 태도로 동화를 들려 주어, 구연 동화를 예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방 정환 선생은 잡지 《어린이》를 꾸미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초조와 피로, 거기에서 오는 건강의 악화는 마침내 신장염과 고혈압의 증세를 나타내어, 1931년 7월 23일 저녁 6시 54분, 32세로 그는 짧고도 긴 일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방 정환 선생의 주요 작품으로는 《사랑의 선물》 《동생을 찾아서》 《7·7단의 비밀》 《까치옷》 등이 있습니다.

연 표

연대	나이	방 정환의 생애와 업적	
1899		11월 9일, 서울 야주개(지금의 당주동)에서 방 경수의 장남으로 출생.	
1903	4	《천자문》을 배움.	
1905	6	보성·보통 학교 유치반에 입학함.	
1913	14	미동 보통 학교 졸업. 선린 상업 학교에 입학. 잡지 《청춘》에 투고함.	
1914	15	선린 상업 학교 중퇴.	
1915	16	조선 총독부 토지 조사국에 취직.	
1917	18	천도교 제3세 교조인 의암손 병희 선생의 3녀 용화여사와 결혼함. 소년 운동에 전념하기 시작.	
1918	19	장남 윤용 출생. 보성·전문 학교에 입학. 청년 구락부의 기관지 《신청년》의 편집을 맡아 보고, 영화잡지 《녹성》을 여러 친구들과 함께 발간함.	
1919	20	3·1 운동이 일어난 후, 《독립 신문》을 등사판으로 박아 돌리던 중 체포되었다가 1주일 만에 석방됨.	

연대	나이	방 정환의 생애와 업적	
1920	21	일본 토오쿄오 대학(東洋大學)에 입학. 천도교 청년회 토오쿄오 지부의 회장을 맡고, 서울과 토오쿄오를 왕래하며 소년 운동을 전개함. 천도교에서 발행한 《개벽》 잡지의 토오쿄오 특파원이 됨. 어린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창안하여 사용함. 장녀 영화 출생.	
1921	22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 청년들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종로 경찰서에 구속됨.	
1922	23	장인 손 병희 선생이 세상을 떠남. 번안 동화집 《사랑의 선물》 간행.	
1923	24	《어린이》 창간호를 토오쿄오에서 간행. 색동회가 정식으로 발족. 어린이날을 제정.	
1924	25	5월 1일, 제2회 어린이날 기념 축하식을 가짐. 《개벽》지와 함께 《어린이》와 《신여성》지를 육성하고자 힘씀.	

연대	나이	방 정환의 생애와 업적	
1925	26	차남 하용 출생. 소년 운동 협의회를 조직하고 각 처에서 동화 구연 대회를 가짐.	
1926	27	7월에 동화 《어린이와 직업》을 최초로 라디오 방송함. 《개벽》이 발간 금지됨.	
1927	28	필화 사건으로 차 상찬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되었다가 1주일 만에 석방됨.	
1928	29	소년 운동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일본 경찰의 탄압이 심해지자 주로 동화 구연과 라디오 방송 등으로 어린이 운동을 벌임. 중앙보육 학교와 경성 보육 학교에서 강의를 맡음. 일본 경찰에 의해 강연과 동화 구연이 금지됨. 차녀 영숙 출생.	 
1929	30	월간지 《학생》 창간.	
1931	32	월간지 《혜성》 창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피로에 의한 신장염으로 7월 23일,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남.	

학습 역사 인명 사전

감 수/심 경석(아동문학가·서울 서초국민학교 교장)
〈부수〉 김 종상(아동문학가·서울 유석국민학교 교사)
도 재희(아동문학가·서울 광장국민학교 교사)
김 일한(아동문학가·서울 당곡국민학교 교사)
최 영재(아동문학가·서울 신원국민학교 교사)

● 프리델	162
● 플라톤	164
● 플레밍	170
● 플로베르	178
● 플루타아크	180
● 피어리	182
● 피카소	187
● 피타고라스	195
● 하마술드	200
● 하 멜	202
● 하아그리브스	204

● 이 <학습 역사 인명 사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공부나
전기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역사 공부에 나오는 인물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큰 사건에 관
련된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므로 이 사전은 이런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 뢰 벨 (1782~1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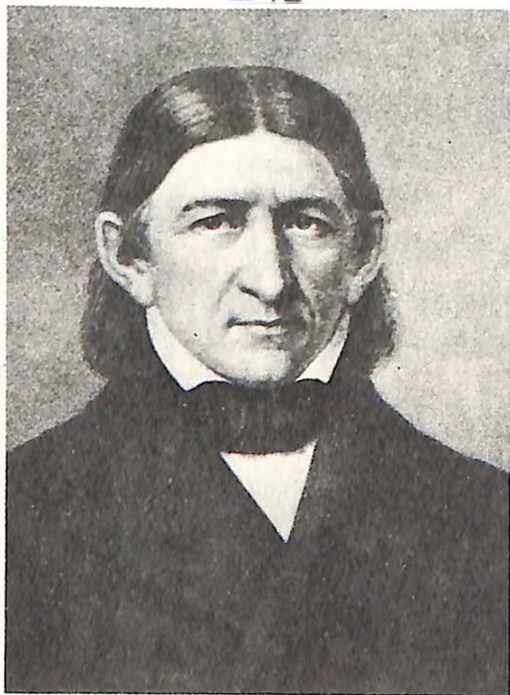
—유치원을

창설한 사람—

프리드리히 프뢰벨은 페스탈로찌의 사상을 이어받아,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시작한 사람이다. 프뢰벨은 목사의 여섯째 아들로 튀링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프뢰벨은 나이가 들자 토지 측량사, 농부 등의 직업을 가졌는데, 1805년 건축가가 될 생각으로 프랑크푸르트에 나가, 거기서 우연히 페스탈로찌의 제자인 그루너의 권유를 받아 국민 학교 선생이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프뢰벨



교육 사업에 생애를 바치게 되었다.

프뢰벨은 자신이 어렸을 때 쓸쓸하게 자라난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는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루너로부터 소개장을 받아 페스탈로찌가 경영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 2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그 동

안에, 그는 자기 나름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1816년, 마침내 자신의 이념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형들이 사망하여, 조카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아이들도 모아 카일하우 산 마을에 새로운 학원을 열어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진보적인 교육은 다른 교육자와 교회 및 정부로부터 위협한 사상이라는 지목을 받아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았다.

그러나, 프뢰벨은 그런 것에 굽히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에 온 정성을 쏟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년 동안이나 이 학원을 계속했다.

1837년, 그는 블랑켄부르크에 어린이들의 <놀이터, 작업하는 장소(유치원)>를 열어, 아이들과 놀면서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 교육을 시작했다. 노래나 유희를 통해서, 어린이의 성격을 바르게 이끌어 가고 창조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행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또 보모를 양성하거나 강연 여행을 하면서 그런 일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이칠란트 각지에 유치원을 개설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프로이센 정부 때문에 유치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되고 말았다.

이 소식은 교육에 일생을 바친 그를 매우 슬프게 했다. 이런 슬픔 속에서, 70세의 생애를 마쳤다. 그러나, 그가 사망한 후, 비로소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세계 각지에 유치원이 서게 되었다.



플라톤

(기원전 427 ? ~ 347)

—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

플라톤은 형이상학(形而上學)을 수립한 고대 그리이스의 위대한 철학자이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명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엔 정치에 뜻을 두었으나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어리석고 어두운 아테네의 정계(政界)에 정이 떨어져서 관계를 끊고, 인간의 존재(存在)를 참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찾기 위해 애지(愛知), 즉 철학을 파고들게 되었다.

플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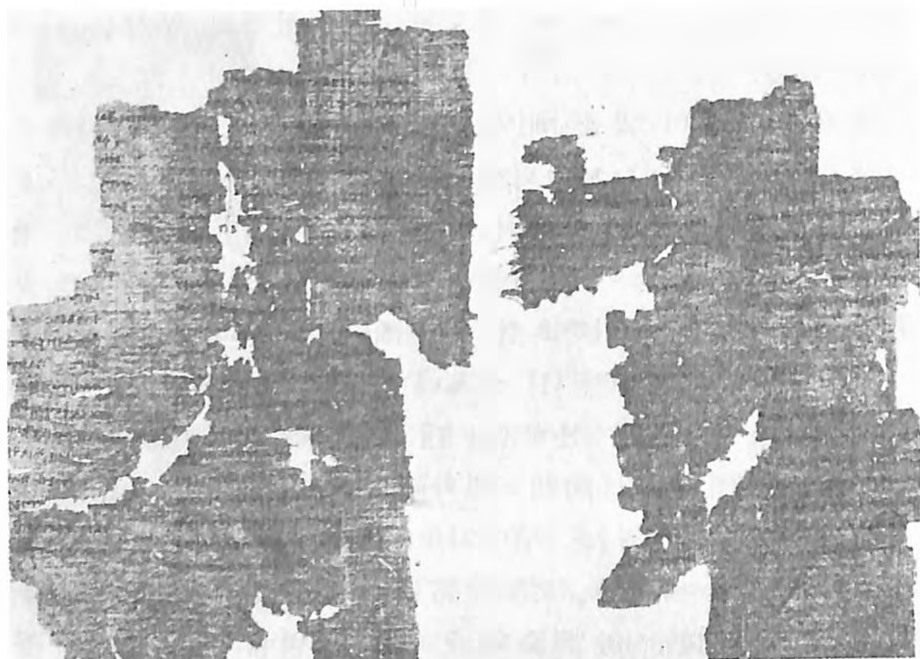
기원전 385년경에 아테네의 교외에 있으며 영웅 아카데모스에게 바친 신역(神域)에 아카데메이아라는 학원(學院)을 설립하고 철학 연구에 전념하여 나이가 80세의 고령에 이르렀다. 그 동안 시칠리아에 두 번이나 건너가서 시라쿠사의 참주 디오니시우스 2세를 교육(敎育)해서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좌절되었는데, 이 시도는 그의 철학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플라톤이 살아 있을 때 발표한 약 30편에 이르는 저작은 그대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으나, 한 편을 제외하고 모두가 일종의 희곡 작품이며 여러 가지 논제를 둘러싸고 철학적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편(對話篇)》이라고 부른다. 소크라테스가 주요한 등장 인물이다.

집필 연대에 따라서 (1)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덕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대개 아포리아(정돈 상태)에 빠져서 끝나는 전기(前期) 대화편. (2) 영혼의 불멸에 관한 장려한 미토스(신화)로 꾸며지고, 소크라테스가 이데아 론을 말하는, 문예 작품(文藝作品)으로는 가장 무르익은 중기(中期) 대화편. (3) 철학의 논리적 방법에 대한 관심이 강하고, 영혼과 이데아에 관한 설이 소크라테스의 모습과 더





플라톤의 《파이돈》의 파피루스 단편

불어 차차 사라져 가는 것같이 보이는 후기(後期) 대화편으로 나누어진다.

플라톤의 사상을 대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포리아]

플라톤에게 있어서 애지(愛知:철학)란 소크라테스의 애지이며, 소크라테스는 바로 철학자(哲學者) 자체였다. 전기부터 중기에 걸친 대화편이 대부분 소크라테스의 추억을 보존하고, 소크라테스 가운데 나타나는 〈철학자〉를 변호하고 찬양하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는 모양을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 죽음을 대하는 철학자의 자세를 묘사한 《파이돈》은 물론이고 《향연》과 《국가》도 또한 그런 뜻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의 하나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애지란 가장 소중한 것을 모르는

자기의 무지(無知)를 아는 데 있었다. 이 <무지를 아는> 가운데 머무르고, 아포리아 가운데 있으며, 근원으로부터의 불음에 대해 자기를 넘겨 주는 것이 바로 애지인 것이다.

진리의 대화편에 있어서 대화가 언제나 아포리아에 수렴(收斂)하고 무지를 고백함으로써 끝나는 것은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포리아에서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포리아에 머무르기 위한 애지의 술책이 미토스와 디알렉티케(문답법)이다.

[미토스]

시간과 더불어 변하지 않고 영원 불변한 것을 플라톤은 이데아(형상: 形相)라고 불렀다. 이데아는 생성에 대한 존재, 많은 것에 대한 하나, 다른 것에 대한 같음이며, 육체의 감각에 의해서 파악할 수 없고, 영혼의 눈인 이성(理性)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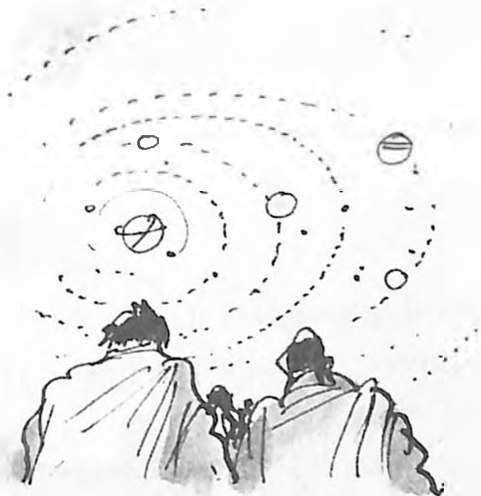
해서 볼 수 있다. 생성의 세계는 존재의 세계를 나누어 가지며, 모방하는 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존재하며 두 세계 사이에는 실물(實物)과 그림자, 진짜와 가짜의 비례가 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망함으로써 한계가 지어지는 〈이승〉과 〈저승〉의 다른 점을 플라톤은 이 두 세계가 다른 것에 응하는 것이라고 구상했고, 이 두 세계를 편력하는 불멸의 영혼에 관한 광채가 영롱한 미토스로써 이것을 장식했다. 영혼은 원래는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진실을 관조(觀照)하며 즐거워했으나 사악한 생각을 한 탓으로 지상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혀서 생물이 되었다. 에지는 영혼이 지상의 사물 중에서 하늘나라의 사물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진실이 생각나 이것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토스를 도그마로 삼고 거기서 고정된 철학설을



구성하는 것은 플라톤이 뜻하는 바가 아니다. 미토스는 차라리아포리아에 있는 자기 자신이 놓여 있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포리아 밖으로 내던지는 자신의 존재의 겨냥도이며, 아포리아로서 응축된 <근원에



대해서 쏘림>을 형상으로 해서 우주론적인 규모 가운데 테두리를 하고 투영(投影)하는 것이다.

[디알렉티케]

아포리아에 있는 자가 미토스의 형상을 거부하고 아포리아에서 묻고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로 묻는 데에 디알렉티케가 성립된다. 아포리아 가운데 있는 자는 질문 가운데 놓인다. 질문은 사물이 <무엇인가, 아닌가>를 묻는데 이것은 그 무엇인가를 그것과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가능하며,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사람은 이 양자(兩者)를 포괄하는 전체와 관련이 있게 된다. 이 전체와 부분이 얽힘에 있어서 많은 것을 관통하는 하나를 보는 자가 애지자이다.

플라톤은 지식이 고정된 체계로 문자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근원을 묻는 애지의 걸음에 있어서 이 질문을 하게 하고, 이 걸음을 배후에서 받치고 있는 것이 이데아이다. 이데아는 애지의 걸음 가운데 갑자기 볼 수 있다.



플레밍 (1881~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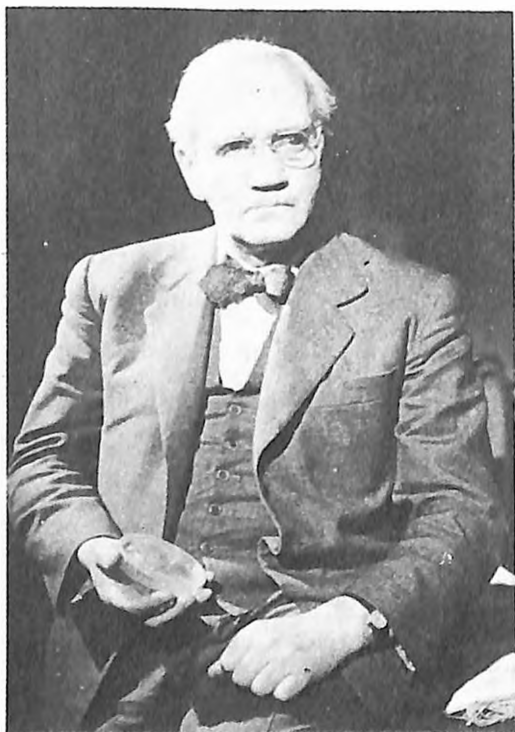
— 페니실린을

발견한 세균학자 —

페니실린을 발견하여 의학계에 커다란 전환기를 마련해 준 앨릭잔더 플레밍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록피일드에서 태어났다.

플레밍은 13살 되던 해에 런던에 있는 이공과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고,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기선 회사에 근무하였다. 그러나, 형이 의사였으므로 자기도 의사가 되고

플레밍



싶다는 생각에서 런던 대학의 세인트 메어리 병원 부속 의학교에 입학하여 의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학위를 얻은 플레밍은 병원의 연구실에 들어가 유명한 세균학자인 A.E. 라이트 밑에서 일했다. 그 후 40년 동안 이 연구실에서 세균 연구를 계속했다.

제1차 세계 대전 때는 군의 대위가 되어, 프랑스로 건너가 전장에서 부상당한 전상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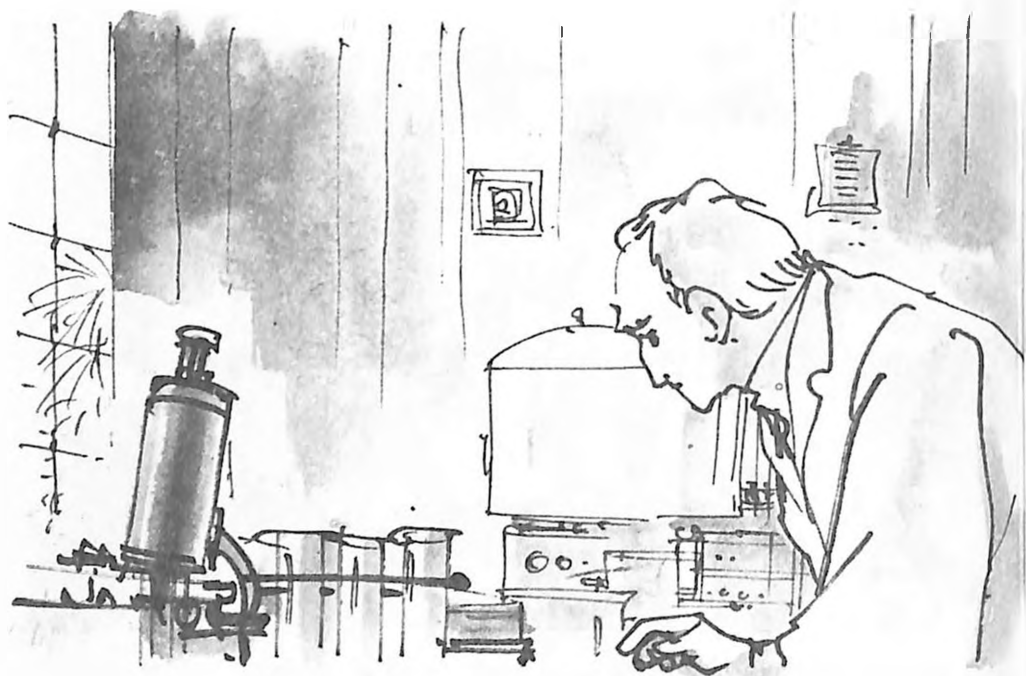


돌보았다. 그러는 중에, 상처에 그다지 자극을 주지 않는 새로운 살균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병원의 세균 부장이 되어 박테리아를 녹이는 물질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다. 1928년 어느 날, 그는 화농증의 병원(病源)이 되는 포도상 구균을 세균 배양기를 이용하여 배양하고 있었다.

포도상 구균은 세균의 한 종류로서, 공 모양으로 생긴 여러 개의 세포가 불규칙하게 모여서 포도 송이 모양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도처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연쇄상 구균과 더불어 화농증 병의 근원이 되는 세균이다.

한천에 육즙(肉汁) 등의 양분을 섞은 다음 굳혀서 만든 반투명의 세균 배양기에 포도상 구균을 심어 놓으면, 거기서 노란 깨알을 뿌려 놓은 것처럼 포도 구균의 집합체가 자라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배양기의 뚜껑을 열고 보니 어찌 된 셈인지 배양기 안에 가득히 푸른곰팡이가 번식해 있었다. 언제나 학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던 플레밍은 심상치 않게 관심을 쏟았다.

그리고, 플레밍은 전에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현상과 눈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박테리아를 녹이는 성분을 연구하고 있었으므로, 푸른곰팡이의 둘레에서 포도상 구균의 집합체가 녹아서 없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처럼 이상한 현상을 본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번뜩였다.

‘이것은 푸른곰팡이에서 무엇인가 포도상 구균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이 나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이 그 푸른곰팡이 둘레에서만 번식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 생각이 맞는다면, 그 푸른곰팡이에서 그런 물질을 뽑아 내어 포도상 구균으로 생기는 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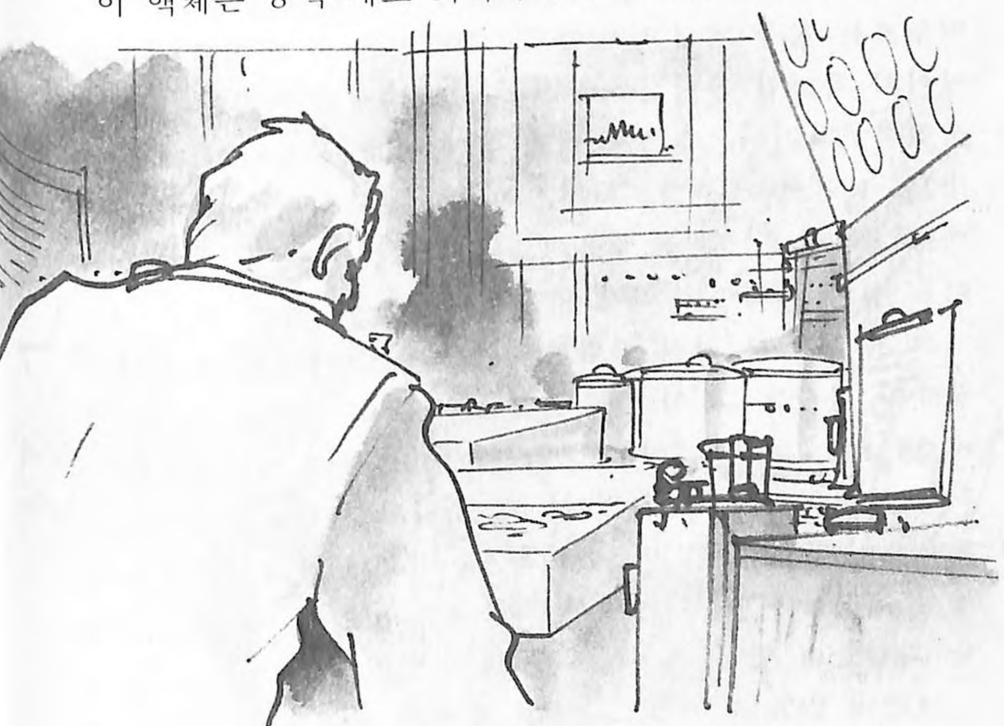
치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플레밍은 곧 그 푸른곰팡이의 포자를 다른 세균 배양기에 옮겨 심어 놓고,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섭씨 23도가 되는 방 안에 넣어 두었다. 그 후 8일쯤 지나자, 배양기의 표면은 용단을 깔아 놓은 듯이 푸른곰팡이의 균사(菌絲)로 덮여 있었고, 그 밑의 액체는 아름답게 빛나는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다.

‘포도상 구균을 죽이는 물질이 바로 이 액체 속에 녹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은 옳았던 것이다. 그 황금빛 액체는 석탄산보다도 훨씬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액체는 8백 배로 희석하더라도 세균이 자라는 것을





억누르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플레밍은 이 물질을 푸른곰팡이의 학명인 페니실륨을 따서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 액체 중에서 그 물질만을 적출(抽出)해 내지는 못했다. 다만, 페니실린은 독성이 적기 때문에 치료약으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논문을 1929년에 어느 학술 잡지에 발표했을 뿐이다.

그 논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목을 그다지 끌지 못했다. 플레밍 자신도 그 이상은 깊이 파고들어 연구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약 10년 동안 과학자들의 머리에서 잊혀진 채로 있었다. 그 무렵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치료제인 술파제(劑)에 관심을 돌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합성 화합물 중에서 강력한 치료제를 발견해 내려고 새로운 화합물의 합성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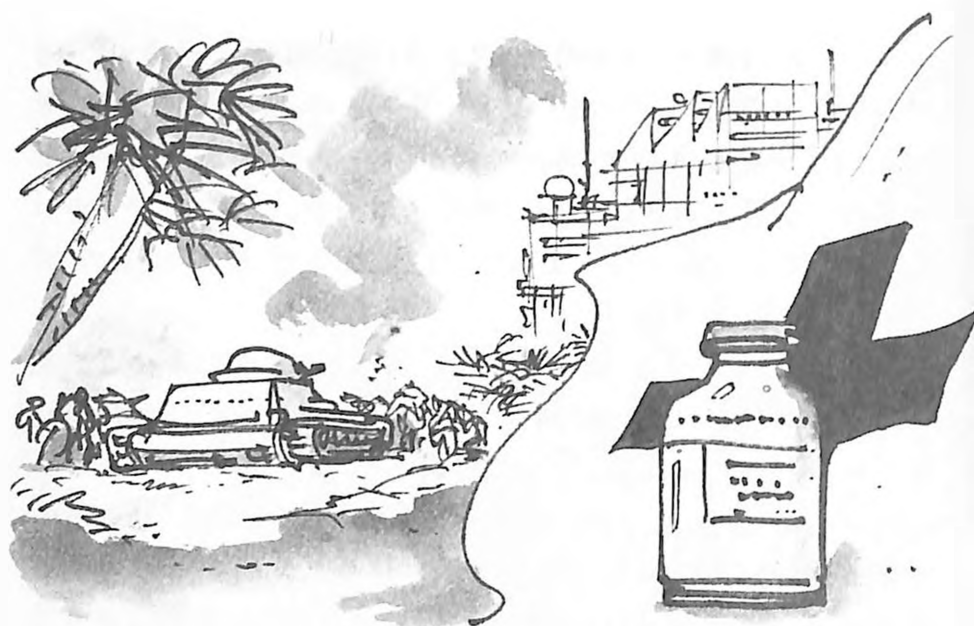
그런데 1938년 무렵, 미국의 록펠러 연구소에 있는 뒤보

스가 토양 속에서 생활하는 아포균(芽胞菌)의 일종이, 여러 가지 병원균이 자라는 것을 억누른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 성분의 결정체를 타이로드리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표했다. 세균으로써 세균을 억제시킨다는 일은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되어, 다른 것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학자들은 생각했다.

스트렙토마이신을 발견한 셀먼 웨스먼도 이것과는 별도로 혼자서 같은 연구를 계속하여 토양 속의 세균에서 항생 물질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뒤보스의 발표에 자극을 받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원인 에른스트 보리스 체인, 하워드 월터 플로오리는 이 연구를 진행시켜,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사람들의 논문을 찾아내고 있는 동안에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었다는 사실을 알아 냈다.





그리고 1940년에, 그들은 페니실린이 세균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병에 대단히 좋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했다.

플로오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현대 영국의 병리학자로서,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영국으로 건너가 케임브리지 대학과 런던 병원에서 연구를 했으며, 그 후 셰피일드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염증, 모세 혈관류, 림프구 등의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치료제로서의 항생 물질에 눈을 돌려 체인과 함께 페니실린을 연구한 끝에 그 효력을 확증했다.

그리고, 체인은 베를린에서 태어난 영국의 생물학자로서 베를린 대학을 졸업하고 화학자가 되었다. 그는 베를린의 자선 병원 연구소에 들어가 효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나찌스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자 1933년 영국으로 망명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생화학을 연구하고 있던 중,

1935년에 플로오리의 초대를 받아 옥스퍼드 대학의 강사가 되었으며, 그 후 플로오리와 함께 페니실린 연구에 착수하여 빛나는 공적을 남겼다.

그런데, 정제(精製)로 된 페니실린은 천만 배로 무게가 더라도 역시 포도상 구균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이토록 강력한 약은 지금까지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으며, 더우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약이었다.

술과제조차도 전혀 효력이 없던 악성 폐렴이나 패혈증도 약간의 페니실린으로 즉시 낫게 된다. 그 밖에도 유행성 뇌막염, 중이염, 임질, 디프테리아 등의 병에도 잘 들었다. 더우기, 전장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괴저(壞疽)에도 유효했다.

때마침 제 2 차 세계 대전 중이었으므로, 이 연구의 성과는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켜 싸움터에서, 또는 공장에서 페니실린을 요청하는 소리가 차차 드높아 갔다. 그래서, 많은 부상병을 구제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과 미국 정부는 서로 협력하여 페니실린의 연구를 원자력 연구에 다음가는 중요한 연구로 지정했다. 미국에서는 즉시 이 연구에 2 천 5 백만 달러를 연구비로 내놓았다.

이리하여 1945년도의 영광스런 노벨 생리학, 의학상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과 플로오리 등의 세 사람에게 수여되었다.

플레밍은 런던 서남부의 자치 구역인 첼리스의 자택에서 1955년 5 월 11일, 74세로 숨을 거두었다.



플로베르 (1821~1880)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 《성 앙트완의 유혹》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이다. 플로베르는 문학사상 본격적 사실주의 문학을 창시한 작가로서 그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는 세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를 답사한 후, 작자의 주관이나 선입관이 작품에 반영되는 것을 애써 피하고,

플로베르



철저히 객관적 태도로 작품을 썼다.

플로베르는 1821년 12월 12일에 노르망디의 르왕에서 출생했다. 아버지는 르왕 시립병원의 외과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유명한 의사였다.

플로베르는 중학에 다닐 때부터 소설 창작을 시작하여 《광인(狂人)의 수기》 《11월》 등을 썼다. 파리 대학에 다닐 때에는

법학부에 적을 두고 있었으나, 간질과 비슷한 신경성 지병(持病)이 발병한 것을 계기로 문학에 전념하게 되었고, 《감정 교육》의 초고와 《성 앙트완의 유혹》의 초고를 쓴 후, 낭만파의 영향으로 공상이 지나치고 산만했던 작품을 극복하여 확고한 문체와 긴밀한 구성을 가진 대표작 《보바리 부인》을 발표함으로써, 일약 당시의 최고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그는 르왕 교외 센강변의 크르와세의 별장에서 독신의 연금 생활자로서 어머니와 일찍 죽은 누이동생의 딸인 조카와 늙은 하녀와 조용히 살아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를 은자로 비유했으나, 기분 전환이나 취재를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일도 있었고, 파리에 나가 공쿠우르, 도데, 졸라, 투르게네프 등과 만날 때는 좌담(座談)의 명수이기도 했다.

《보바리 부인》에서 현대의 풍속을 치밀하게 묘사한 플로베르는 방향을 바꾸어 고대 카르타고의 서사시적 문체로 역사 소설 《살람보》를 썼고, 다시 자서전적인 요소가 강한 현대 소설 《감정 교육》을 썼으며, 이어 고대 이집트 시대에 고행하던 성직자의 환상을 묘사한 대화 형식의 《성 앙트완의 유혹》을 썼다.

플로베르의 저작들은 수는 적지만 어느 작품이나 잘 같고 다듬은 독자적인 문체를 자랑하고 있으며, 주옥 같은 단편을 모은 《세 가지 이야기》는 이들 다채로운 문체의 표본 같은 느낌을 준다.

플로베르는 그의 마지막 작품인 《부바르의 페퀴세》를 집필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1880년 3월 8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플루타르크 (46? ~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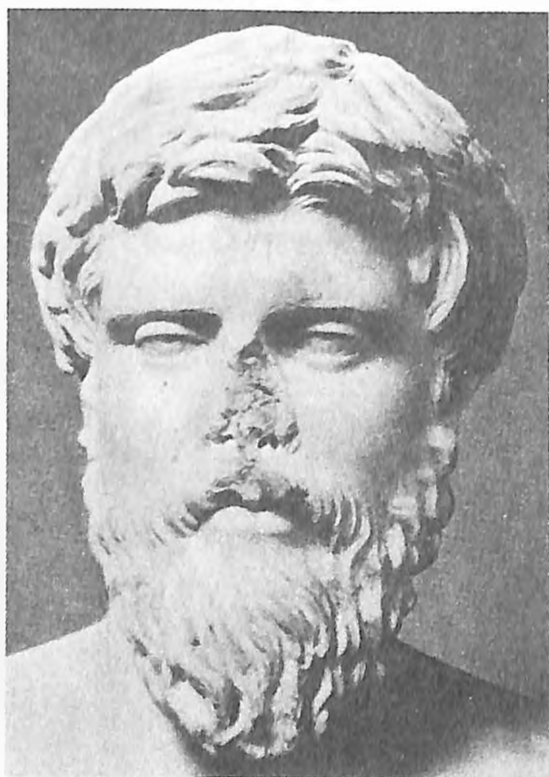
— 그리이스의

철학자, 작가 —

플루타르크(플루타르코스라고도 함)는 그리이스의 철학자, 전기 작가로서, 특히 그의 《영웅전》은 후세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널리 읽혀지고 있다.

플루타르크는 46년경, 그리이스의 카에로네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테네에서 수사학, 즉 독자에게 감동을 주

플루타르크



기 위하여 문장, 사상,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과 과학, 철학을 배웠는데, 특히 철학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리이스, 소 아시아, 이집트,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한 후,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살았다. 그러다가 카에로네아로 돌아와 집정관을 지냈다. 카에로네아에 사설 학원을 열고, 그리이스와

로마 철학을 강의하는 틈틈이 플루타르크는 독서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그의 철학 저술들은 별 깊이가 없고 너무 조잡하다는 약점이 있으나,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고학, 교육학, 인종학, 병원학, 음악, 언어학, 정치학, 역사학, 문학, 천문학, 지리학, 수학, 물리학, 심리학, 동물학 등 다방면에 걸친 저술을 남겼다.

플루타르크의 이름을 후세에까지 남게 한 것은 역시 《영웅전》이다.

이 《영웅전》은 그리이스와 로마의 유명했던 정치가, 군인, 위인 50명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이다. 처음에 그리이스 사람이 나오고 다음에 로마 사람, 그리고 이 두 나라 사람의 비교 연구가 뒤따른다.

《영웅전》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스스로를 반성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었기 때문에, 후세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면서 지금까지도 널리 읽힌다.

비록 역사에 나타난 사실과 약간 어긋나는 점이 없지는 않다 하더라도, 《영웅전》은 플루타르크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생애의 기록인 것이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줄리어스 시이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코리올라누스》 등의 작품을 쓰는 데 《영웅전》의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영웅전》 중에서도 테미스토클레스, 페리클레스, 아리스티데스, 알렉산더, 술라, 케사르, 키케로, 카토 등의 전기가 뛰어난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피 어 리 (1856~1920)

— 북극점을

정복한 탐험가—

북극점을 사상 최초로 정복한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에드윈 피어리는 1856년 5월 6일, 펜실베이니아 주의 크레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1877년 메인 주의 브런즈윅에 있는 바우도인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의 졸업 성적은 전교에서 2 등이었으며 기계과에서는 수석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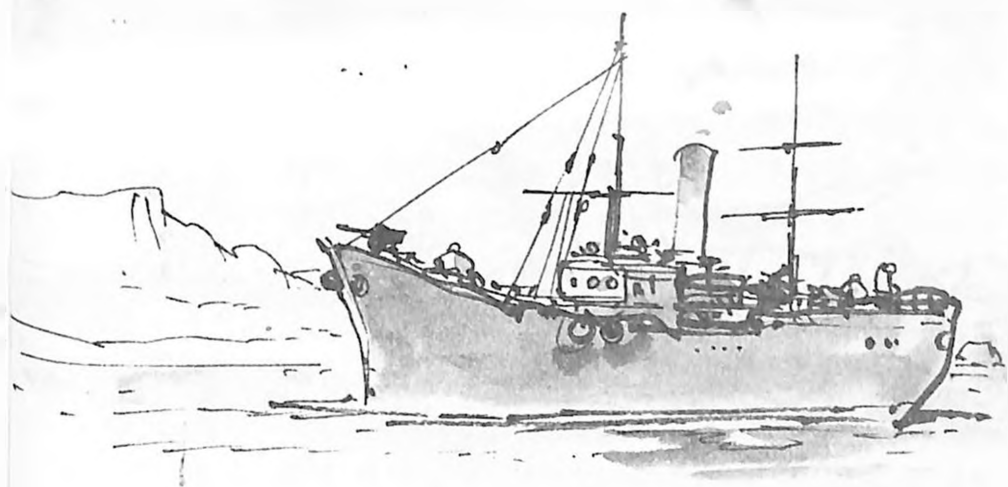
1881년, 피어리는 미국 해군의 민간인 기술자로 근무했으며, 1884년부터 1885년까지 계속된 남아메리카의 니카라

피어리



구아 운하 측량 작업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어리는 탐험에 대한 꿈과 야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본디 피어리는 열대 지방에 대한 탐험 계획을 세웠으나, 그리 인란드의 얼음에 덮인 내륙에 관한 책 등 북극 관계 서적을 탐독한 뒤로 극지 탐험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886년, 30세의 피어리는 3개월 동안 휴가를 얻어 포경선 이이글 호를 타고 북쪽 항로로 나아가 그리인란드 내륙 탐험을 떠났다. 덴마크의 무명 탐험가 메이고오르를 동행했을 뿐 자금은 5백 달러뿐이었다. 그는 메이고오르의 도움으로 당시로서는 그리인란드 내륙 탐험 최고 기록인 1백 마일 지점까지 들어가, 해발 7천 5백 25피트나 되는 빙원을 탐사했다. 이 때부터 그의 탐험가로서의 험난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첫 탐험을 마치고 돌아온 피어리는 1891년, 마침내 그의 최초의 탐험대를 조직하여 2차 탐험에 나섰다.

이 해 6월, 그의 친구인 외과의 프레드릭 쿡 박사와 한 명의 흑인 조수, 매튜 헨슨, 그리고 갓 결혼한 부인 조세핀을 포함한 6명의 대원을 이끌고 그리인란드의 잉글피일드 만을 향한 피어리는, 93일만에 걸쳐 영하 45도에서 50도에 이르는 혹한을 무릅쓰고 그리인란드 내륙 1천 2백



마일을 주파하여, 일약 미국 제일의 탐험가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후에 피어리는 그의 저서 《북극 탐험의 비결》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내가 북극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기술자로서 익힌 경험과 군대식 조직에 의한 행동, 그리고 에스키모식 여행 방법이었다.’

피어리는 이 탐험에서 소총이나 크로노미터, 육분의(六分儀) 등 몇 가지 기구를 제외하고는 서구식 용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텐트도 없이 눈집을 대응했다. 눈집은 따뜻하고 북극의 강풍에도 강했다.

해군의 현역 장교로 편입된 피어리는 1893년에서 1895년, 1896년, 1897년, 1898년에서 1902년, 그리고 1905년에서 190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극 탐험에 나섰다. 그는 그때그때 수집한 과학적 자료와 경험을 살려서 매회 북극점을 향해 첨진적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몇 차례의 도전에

도 불구하고 극점 도달에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전국 1 백 30년을 갓 넘긴 미국은 국력이 착실히 성장하여, 선진 열강들이 다투고 있는 북극점 경쟁에 뛰어들어 <성장 미국>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 온 국민의 공통된 소망이었다. 뉴우요오크의 경제인, 정치인, 연예인 들은 피어리 북극 탐험을 위한 후원 단체를 만들어 그를 지원하기도 했다.

피어리는 좌절하지 않고 1908년 7 월 6 일, 재차 북극 탐험길에 올랐다. 루우스벨트 대통령은 친히 탐험선 루우스벨트 호에 올라 피어리를 격려했다.

“인간의 힘이 북극점을 정복할 수 있다면 꼭 그대가 정복하게 될 거요.”

이듬해 3 월 1 일, 피어리는 대원 24명과 썰매 19대, 개 1 백 33마리를 이끌고 북극점을 향하여 빙판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피어리는 대원을 지원대와 공격대로 나누어, 지원대(주로 고용된 에스키모)는 전방과 후방을 오가며 길을 내고 이글루(에스키모의 얼음집)를 짓고 데포(보관소)를 만들어 왕복용 식량과 연료를 저장했다. 그리고, 공격대는 지원대의 뒤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지원대를 돌려보냈다.

지원대는 약하고 지친 순서로 돌려보냈다. 4 월 1 일, 피어리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 차례 그의 탐험에 동행했던 심복 선장을 마지막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다. 피어리는 헨슨과 에스키모 4 명을 포함한 일행을 이끌고 전진했다.

드디어 4 월 7 일, 계속되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4 백 65마일을 강행군한 끝에, 발진 기지를 떠난 지 37일 만



에 피어리는 북극점에 도달했다.

피어리가 엘즈미어 섬의 케이프 콜럼비아에 도착한 것은 극점을 떠난 지 16일 만인 4월 23일이었다.

1909년 9월, 래브라도에 도착한 피어리는 전에 그와 함께 탐험한 적이 있는 쿡 박사가 1908년에 이미 북극점을 탐험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쿡은 몇 번인가 피어리와 동행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마치 진짜 북극점을 탐험하고 온 것처럼 상상해서 신문에 이미 발표까지 했던 것이다. 피어리는 매우 당황했다.

그러나, 전미 지학 협회(全美地學協會)는 엄밀한 조사 끝에 최초의 북극점 도달자는 피어리임을 밝혔다.

그 후, 해군 소장까지 진급했던 그는 퇴역 후 탐험기와 회상기를 쓰면서 만년을 보내다가 1920년 2월 20일, 64세로 사망했다.



피 카 소 (1881~1973)

— 20세기 미술

운동의 선구자—

파블로 피카소는 20세기 미술 운동의 선두에 서서 끊임 없이 시대를 이끌어 온 화가이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20세기의 미술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진다.

그는 에스파니아의 지중해 연안인 말라가에서, 가난한 미술 학교 선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마리아 피카소라는 여인으로, 피카소는 어머니의 성을 이어 받은 것이다.

피카소

그는 어려서부터 학교를 무척 싫어하여 부모의 속을 무던히도 썩였으나, 그림만은 매우 잘 그렸다. 그가 12살 때 그린 작품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아무도 소년의 그림으로 생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솜씨는 뛰어나게 훌륭한 것이었다.





1896년, 15살 때 그는 마드리드 왕립 미술 학교의 입학 시험에 합격했다. 이 때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2 학급이나 월반하여 진학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학교 생활이 하도 따분해서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퇴해 버리고 말았다.

1900년, 그는 난생 처음으로 파리에 여행했다. 그 무렵, 파리는 젊은 미술가들에게 무한한 동경의 도시였다. 이 곳에서 피카소는 로오트렉과 고흐 등의 작품을 보고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루우브르 박물관에서 고전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01년에 파리로 이사한 그는 어느 화상(畫商)의 호의와 주선으로 개인전을 열었지만, 별로 호평을 받지 못했다. 단지 이것을 계기로 시인 막스 자코브와 알게 되었는데, 그 후 그의 작품 활동에 자코브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1904년 봄부터 피카소는 몽마르트르의 뒷골목에서, 자코

브를 비롯하여 시인인 아폴리네르와 살몽, 그리고 화가 반
 동젠 등과 어울리면서 애수에 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모
 습을 어둡고 강력한 푸른 색조로 그리기 시작했다. 1901년
 부터 4 년까지의 이 시기를 보통 피카소의 <청색 시대(靑
 色時代)>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의 작품들은 사실적인 묘
 사 속에 불행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의 인
 류애적 정신과 문학적 감상에 젖어 있는 작품이 많다. 《모
 자(母子)》《늙은 기타아레로》《다림질하는 여인》《간소한

피카소 작 《아비뇰의 아가씨들》(1907년)



식사》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1905년, 피카소는 네덜란드에 여행했는데, 이 무렵부터 이듬해에 걸쳐 그의 작품상의 색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도색 시대(桃色時代)>로서, 푸른빛으로부터 분홍빛으로 색조가 바뀌었으며, 작품은 밝고 시적이며 감미로운 경향을 띠어 갔다. 그림의 내용이나 형태는 그전과 다름없었으나, 그는 즐겨 익살꾼이나 곡예사 등을 제재로 많이 삼았으며, 그 중에는 《살탱방크의 가족》 《아를르캥》 등의 작품이 있다.

그러나, 1907년경부터 갑자기 작품이 변했다. 피카소는 세잔의 회화와 에스파니아 이베리아 지방에 남아 있는 고대 조각, 아메리카 흑인의 니그로 조각 등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 점차로 그 때까지의 문학적인 감상을 버리고 조형적인 참신함을 추구하게 되었다. 《게르트루드 스타인 상(像)》 《두 사람의 나부(裸婦)》 등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1907년에 완성한 《아비뇰의 아가씨들》에 이르러서는 이제까지의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조형을 시도했다. 피카소의 존재를 20세기의 미술사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아비뇰의 아가씨들》은 최초의 입체주의(퀴비즘) 작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입체파 운동은 그 후 브라크와 함께 추진시켰는데, 입체파 화가들은 이렇게 그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물체를 보이는 그대로 그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어떤 물체를 보고 마음 속에 느낀 바를 정신적인 면에서 재창조 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 회화의 임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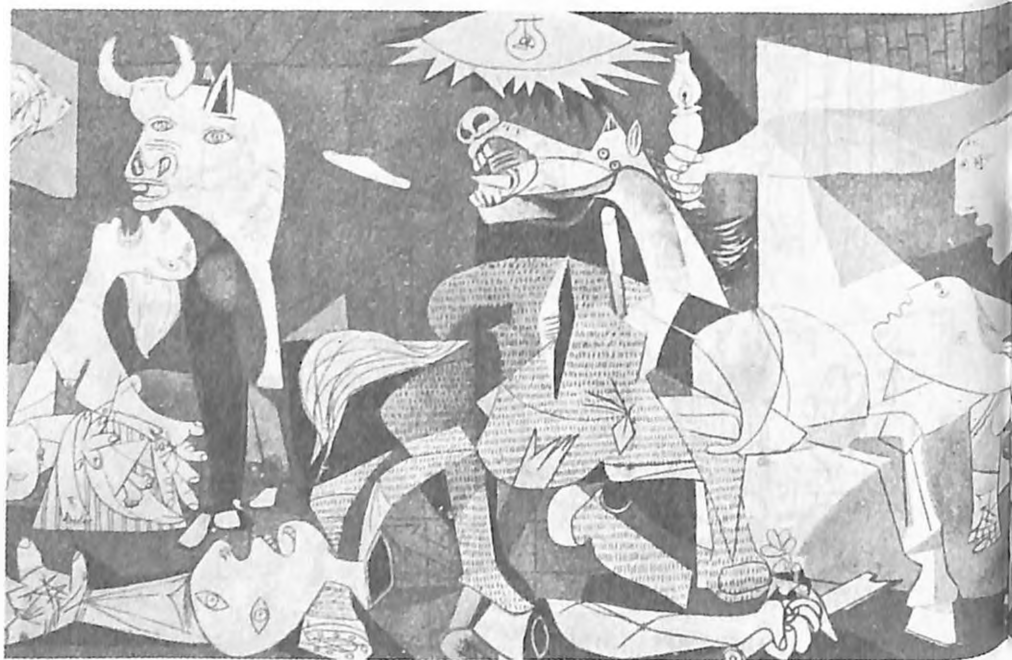
말하자면, 그 때까지의 그림처럼 눈에 비치는 형태를 그



대로 표현한다면 차라리 사진이나 영화가 훨씬 더 정확할 것이며, 회화는 화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대상을 통하여 좀더 자유스런 분위기에 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이 더욱 발전하여 추상적인 그림을 낳았다.

이처럼 그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미의 세계를 창조하여 20세기 미술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 무렵에는 그의 그림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차차 바르게 이해하고 호응하는 사람이 많게 되어 피카소는 전세계의 화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무렵의 작품으로는 《아코오데오니스트》 《기타아가 있는 정물》 《아를의 여인》 등이 유명하다.

그 후, 디아길레프라는 러시아 발레단과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그 이듬해인 1918년에 무용가인 올라 코콜로바와 결혼하면서부터, 갑자기 다시 사실적인 작품을 그리



피카소 작 《게르니카》(1937년)

기 시작하여, <신고전주의의 시대>라고 불리는 작품으로 전향했다. 《피카소 부인상》에 그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마침내 1924년경부터 또다시 표현의 작품이 바뀌어, 입체주의적인 조형 방법을 가미하면서 괴상하고 기분 나쁜 사람의 얼굴 모습 등을 그리게 되어, 초현실주의(슈르레알리즘)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피카소는 카멜레온처럼 자주 변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회화는 파괴의 총체적인 결과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파괴한다.”

결국, 회화에 있어서 피카소의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일시적인 기분에서가 아니고, 모든 사물에 매우 민감한 그의 재



능과 정열이 새로운 시대의 움직임을 재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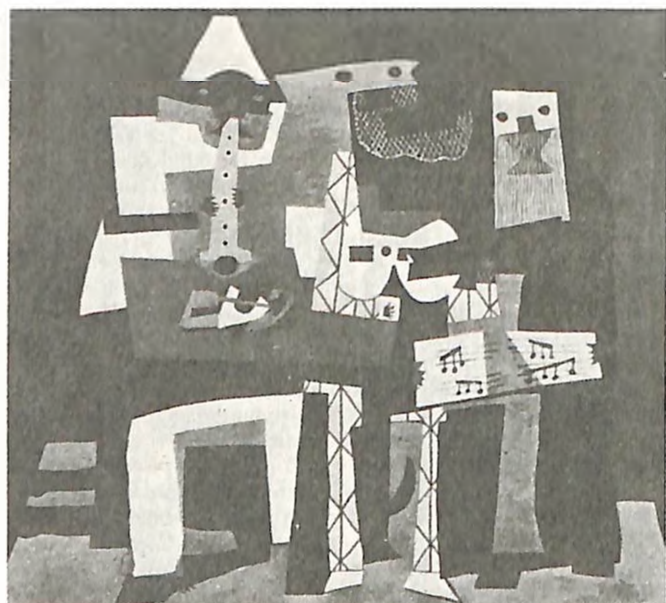
1936년, 에스파니아에 내란이 일어났다. 즉,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들에 의해 수립된 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프랑코 장군의 반란이었다. 피카소는 열렬한 공화파 지지자였다.

이듬해인 1937년, 프랑코 장군을 원조하는 도이칠란트 군(히틀러 군)의 폭격기가 게르니카 시를 폭격하는 것을 보고 피카소는 매우 분노하여, 마침내 불멸의 대작 《게르니카》를 그렸다.

이것은 피카소의 대표작으로, 폭력과 부정을 나타내는 황소, 국민을 뜻하는 말, 창에 찔려 죽은 어린이를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 애처롭게 일그러진 여인의 얼굴 등,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우울함과 비참함이 화면 가득히 펼쳐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애를 느끼게 한다. 이 작품에는 입체주의자로부터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카소의 수법이 종합되어 힘찬 예술을 창조하고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도이칠란트 군이 프랑스를 점령하자(1940년), 피카소는 피난처인 르와이양으로부터 다시 파리에 돌아왔다. 그 후 4 년 동안,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그는 나찌스에 대한 저항 운동을 계속하며, 정물과 인물화에 전쟁의 불안과 저항을 주입한 상징적인 걸작을 많이 남겼다.

피카소 작 《3명의
음악가들》(1921년)



마침내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가 해방되면서부터, 피카소는 유명해지기 시작하여 전세계에 명성을 들날렸다. 대전 후, 그는 프랑스 남부 해안 지방인 앙티브에 머무르며, 밝고 목가적인 작품을 그리기도 하고, 또 발로리스에서 도자기 제작에 심취하기도 했다.

1950년의 6·25 동란 때에는 《한국의 학살》을 비롯해 《전쟁과 평화》 등을 그리는 등 평화 운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상적으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최후까지 제작을 계속하던 피카소는 1973년, 폐수종에 의한 심장마비로 일생을 마쳤다.

몇 세기에 하나쯤 있을까 말까 한 희대의 천재로서, 닥치는 대로 만물을 예술화하는 마법사라고 일컬어지는 피카소는 광범위한 제작과 강인한 표현, 그리고 능률한 수법으로 현대 회화의 모든 경향을 낳게 한 20세기의 거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타고라스

(기원전 582? ~ 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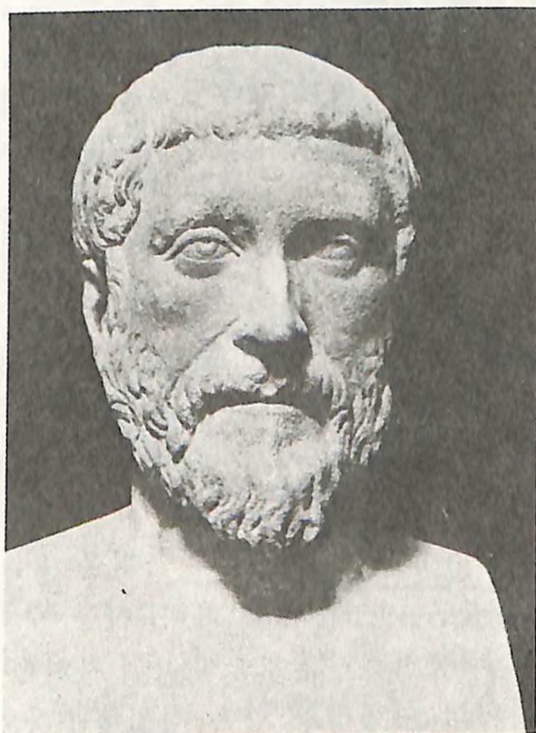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발견자—

피타고라스는 에게 해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난 그리이스의 종교가이며 철학자, 수학자이다.

피타고라스는 남 이탈리아의 그리이스 식민지 크로톤에 옮겨 가서 살았는데, 그 때 일종의 비밀 교단을 결성했다. 나중에 메타폰티온으로 옮겨 가서 살다가, 그 곳에서 일생을 끝마쳤다.

피타고라스는 당시의 밀의(密儀) 종교 형식에 의해서 절제, 질박, 심신의 단련을 목표로 삼았고, 여러 가지 신, 양친, 친구, 계율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실(信實)과 자제와 복종을 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리고, 그 종교적인 교리는 영혼 불멸과 윤회나 사후의 응보를 믿었고, 그와 더불어 또한 인간과 동물은 비슷하다고 했다.

피타고라스





따라서 육식은 금했다.

이론적 방면의 연구로서는 음악과 수학을 중요시했다. 음악에서는 일현금(一弦琴)에 의해서 음정이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음악을 수학의 한 분과로 간주했다.

그는 저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적이 그 자신의 것인지 초기의 제자들의 것인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오늘날에는 제자인 필로라오스와 그 밖의 학자들의 단편적인 기록에 의해서, 당대의 피타고라스와 그 일파의 업적이 알려져 있다.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원을 <수(數)>라고 했다. 이 수는 물론 자연수를 말하며, 이들 수와 기하학에 있어서의 점을 대응시켰다. 예를 들면, 자연수 계열의 연속항 가운데 임의의 항까지의 합은 삼각형수라고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로 기수 계열의 합은 정사각형수, 우수 계열의 합은 직사각형수라는 식으로 정의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전수로서 $6 (= 1 + 2 + 3)$, $28 (= 1 + 2 + 4 + 7 + 14)$ 과 같이 그 수의 모든 부분(1을 포함하는 모든 인수)의 합이 그 수 자신과 같은 것을 들어 우애수(友愛數)라고 하고, $284 (= 1 + 2 + 4 + 5 + 10 + 11 +$

피타고라스(오른쪽)와 보에티우스(왼쪽)



20+22+44+55+110)와 220(=1+2+4+71+142)의 두 수의 경우처럼 그 각각이 다른 수의 1을 포함하는 모든 인수의 합인 것을 들고 있다. 피타고라스는 그 일현금의 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례와 평균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그는 평균에는 3종류가 있다고 했으며, 그것을 산술 평균($a+c=2b$), 기하 평균($ac=b^2$), 조화 평균($\frac{1}{a}+\frac{1}{c}=\frac{2}{b}$)으로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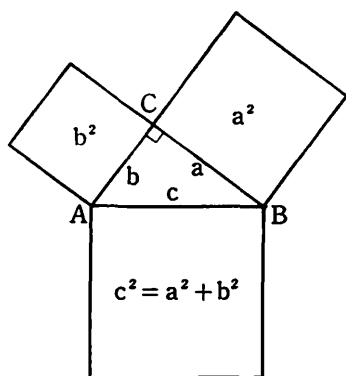
이른바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그 자신이 발견했는지 그의 제자가 발견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게다가 그 증명은 오늘날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이 정리의 증명법은 유클리드에 유래한다). 그런데, 이 정리에서 뜻밖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과 그 대각선과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이 경우의 대각선의 길이는 한 변을 1이라고 하면 $\sqrt{2}$ 가 되어 약할 수 없는 무리수가 된다. 이것은 자연수만 수라고 생각한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에겐 매우 어려운 문제였으며, 그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양(量)>이라고 해서 일단 수에서 제외했다.

또한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은 임의의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 직각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것을 증명했다. 입방체에 대해서는 이른바 <플라톤의 정입방체>라고 불리는 것, 즉 정 4 면체, 정 6 면체, 정 8 면체, 정 12 면체, 정 20 면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정 12 면체는 정 5 각형을 작도할 필요가 있는데, 한 선분을 중외비(中外比)로 끊는 문제로 환원해서 이 작도에 성공했다. 그리하여, 피타고라스는 이 정 5 각형에서 생기는 성형(星形) 5 각형을 그의 교

단의 회장으로 삼았다고 한다. 피타고라스가 수학에 기여한 공적은 매우 크며, 그 영향이 플라톤과 유클리드를 거쳐 근대까지 미치고 있다.

천문학에서는,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고, 또한 불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태양과 그 밖의

혹성이 둥근 궤도로 돈다는 일종의 지동설을 주장했으나 다른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에 의해 증명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 삼각형의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위의 정사각형의 면적을 합한 것은, 빗변 위의 정사각형의 면적과 같다는 정리를 말한다. 즉 직각삼각형의 3 변을 a , b , c 로 하고, c 에 대한 각도가 직각일 때 $a^2 + b^2 = c^2$ 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이스의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증명했다고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며, 또는 3 평방의 정리라고도 한다. 이 정리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인 3 변이 3, 4, 5의 비율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은 예로부터 이집트, 바빌로니아, 인디아, 중국 등지에서도 알려져 있었다.

이 정리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 예로부터 각국에서 그 증명법을 생각해 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증명법은 유클리드가 고안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밖에 비례를 사용해서 증명하는 것, 2개의 정사각형을 잘라서 하나의 정사각형으로 짜 맞추는 것 등 100가지 이상의 증명법이 고안되어 있다.



하마술드 (1905~1961)

— 스웨덴의 외교관 —

다그 하마술드는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며 외교관으로서 제 2 대 국제 연합(유우엔) 사무 총장을 지냈으며, <조용한 외교>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1961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마술드는 1905년 7월 29일, 스웨덴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스톡홀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36년부터 1952년까지 그는 재무성 차관, 스웨덴 은행

하마술드



총재, 외무성 경제 고문관, 외무성 차관 등을 지냈다. 그는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의 스웨덴 대표로서 외교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1952년에는 스웨덴 유우엔 대표단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1953년 4월 7일, 하마술드는 리이 사무 총장의 뒤를 이어 제 2 대 유우엔 사무 총장으로 선

출되었다. 사무 총장이 된 그는 정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민간 외교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고 힘주어 역설하였다.

하마술드는 스스로의 협상 방식을 <조용한 외교>라고 했다. 그는 엄격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분쟁 쌍방이 다 납득할 때까지 진정으로 설득하였다. 그는 협상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뛰어다녔다.

그의 첫번째 성과는 1955년에 중공에 잡혀 있는 미군 조종사 11명을 무사히 석방시킨 것이었다. 유우엔 총회의 요청을 받은 그는 인디아, 영국, 프랑스의 지도자들과 회담을 한 후, 중공으로 건너가서 미군 조종사의 석방을 성공시켰던 것이다.

하마술드가 그의 재임 중 가장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중동과 콩고 문제였다.

중동 지역에 진출하려는 강대국 세력을 막기 위한 그의 노력은 대체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1956년에 영국과 프랑스 군이 수에즈 운하에 진출했고, 1958년에는 미국군이 레바논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하마술드는 즉시 유우엔 비상군을 창설하였다.

1960년에 콩고 내란이 일어나자 그는 세계 21개국 군대로 구성된 유우엔 군을 조직하여 평화 유지에 힘썼다. 1961년 9월 18일, 하마술드는 콩고의 평화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카탕가로 가던 중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다.

죽은 후, 그는 1961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며, 그가 남긴 자서전을 보면 그가 종교와 시에 깊은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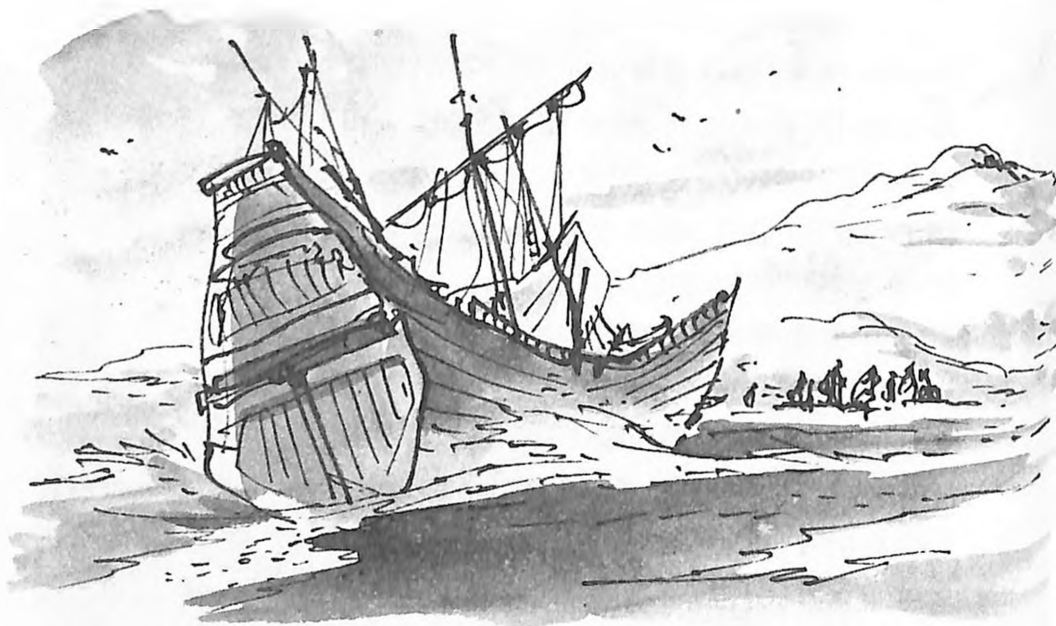
하 멜 (? ~1692)

—조선에 왔던

네덜란드 선원—

헨드릭 하멜은 네덜란드의 선원이었는데, 항해 중 폭풍으로 조선에 오게 되어 14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본국으로 탈출한 후 《하멜 표류기》를 지어 우리 나라를 유럽에 소개하였다.

1653년, 하멜은 동인도 회사 소속 상선 스페르웨르 호를 타고 타이완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를 향하고 있었는데, 폭풍으로 배가 파선되어 일행 36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착(漂着)하였다.



제주도에서 그들 일행은 제주 목사 이 원진의 조사를 받고, 이듬해 서울로 압송되어 그들보다 먼저 조선에 표류해 왔던 네덜란드 인 박 연(朴淵: 웰테브레)의 확인을 받았다.

그런 후 그들은 여수, 순천, 남원 등지의 병영(兵營)에 갈라져 감금된 채 잡일을 하며 10여 년을 보냈는데, 1666년(현종 7) 여수 좌수영에 있던 하멜은 동료 7인과 함께 탈출에 성공하였다.

1668년, 일본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 하멜은 조선에 억류되었던 14년간의 체험을 《난선 제주도 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라는 저서를 통하여 발표함으로써 처음으로 우리 나라가 유럽에 소개되었다.

하멜은 예리하고도 세밀한 관찰을 통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충실하게 당시의 조선 사정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하멜 표류기》는 보통의 기행문이나 견문록 이상의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1653년부터 1666년까지, 하멜은 군역(軍役), 감금, 태형(笞刑), 유형, 구결 등 온갖 풍상을 겪었고, 조선의 모든 계급의 사람들과 접촉하였으며, 남북의 여러 곳으로 끌려다니며 습속(習俗)과 사정을 견문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대한 정확한 관찰을 할 수 있었고, 심각한 인상과 풍부한 경험을 기록할 수 있었다.

부록 《조선국기》에는 조선의 지리, 풍속, 산물, 정치, 군사, 교육, 교역(交易)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유럽인들에게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비교적 뚜렷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사정, 풍속 생활의 일면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하아그리브스

(? ~1778)

—방적기의 발명자—

제임스 하아그리브스는 방적기(실을 뽑아 내는 데 쓰이는 기계)를 발명해 내어 섬유 공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산업 혁명의 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의 업적은 한꺼번에 많은 실을 뽑아 내는 방적기를 최초로 실

하아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





용화한 데 있다.

그의 출생에 관해서나 어렸을 때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고, 초상화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방적기를 발명했을 무렵, 가난하고 무식한 방적공이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대강 탄 솜의 짧은 털을 없애고 그 솜을 가지런히 하는 개량된 소면기를 발명하려고 노력했으나, 이 기계는 결국 발명하지 못했다.

1764년경, 딸 제니가 손으로 돌리고 있던 물레가 어찌다가 넘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생각이 떠올라 방적기를 발명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방적기에다 딸의 이름을 붙여 <제니 방적기>라고 했다.

그가 발명한 방적기도 역시 손으로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종래의 물레와 비교해 볼 때 그 생산량의 차이

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니 방적기>를 사려는 사람은 날로 늘어났으므로, 이 방적기를 만들어 팔아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마을에서 물레를 돌려 생계를 꾸려 가던 방적공들은, <제니 방적기>가 보급되면 자기네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하아그리브스의 집을 습격하여 거기에 있는 <제니 방적기>를 부숴 버렸다.

하는 수 없이 하아그리브스는 1768년에 공업이 발달하고 있는 노팅검으로 옮겨 갔다. 그 도시에서 토머스 제임스라는 사람과 공동으로 공장을 차려 놓고, <제니 방적기>로 실을 뽑았다. 그리고, 1770년 6월 12일에 이 방적기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그는 이 공장에서 착실히 일했으며, 1778년 4월 22일에 사망하였다.



길 리 판 / 소년소녀

위 인 전 기 59

방 정 환



개정신판 인쇄	1982년 9월 20일
개정신판 발행	1982년 9월 30일

글쓴이	박	홍	근
발행인	김	락	준
발행처	금	성	출 판 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42의 63
등록 1965. 10. 19 제 2 - 63호
전화(713)9651 ~ 8 우편번호 121

제 판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칼라
인 쇄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광명인쇄 공사
제 책	삼화인쇄 주식회사 제책부 당산실업 주식회사
제 지	재성제지 주식회사

정가 3,000 원

(본사는 출판윤리 강령을 준수함)

위인전기

소년소녀

전 64 권

- | | | |
|------------|------------|------------|
| 1 김 유 신 | 23 이 순 신 | 45 주 시 경 |
| 2 그 리 스 도 | 24 다 아 원 | 46 난 셴 |
| 3 원 효 대 사 | 25 허 준 | 47 김 구 |
| 4 콜 롬 부 스 | 26 리 빙 스 턴 | 48 쓴 원 |
| 5 고 선 지 | 27 박 지 원 | 49 안 창 호 |
| 6 갈 릴 레 이 | 28 밀 레 | 50 퀴 리 부 인 |
| 7 장 보 고 | 29 김 흥 도 | 51 안 중 근 |
| 8 뉴 우 틴 | 30 휘 트 먼 | 52 라이트 형제 |
| 9 최 치 원 | 31 정 약 용 | 53 한 용 운 |
| 10 페스탈로찌 | 32 나이팅게일 | 54 간 디 |
| 11 왕 건 | 33 김 정 희 | 55 신 채 호 |
| 12 모 짜 르 트 | 34 파 스 퇴 르 | 56 시 바 이 짜 |
| 13 문 익 점 | 35 김 정 호 | 57 홍 난 파 |
| 14 나 폴 레 옹 | 36 파 브 르 | 58 아인슈타인 |
| 15 세 종 대 왕 | 37 홍선대원군 | 59 방 정 환 |
| 16 베 에 토 벤 | 38 톨 스 토 이 | 60 헬 렌 켈 러 |
| 17 장 영 실 | 39 김 대 건 | 61 유 관 순 |
| 18 슈 베 르 트 | 40 노 벨 | 62 마리안 앤더슨 |
| 19 이 황 | 41 김 옥 균 | 63 윤 동 주 |
| 20 안 데 르 셴 | 42 에 디 슨 | 64 케 네 디 |
| 21 신 사 임 당 | 43 전 봉 준 | |
| 22 링 컨 | 44 고 호 | |



조선의 명필
33 김 정 희



세균학의 창시자
34 파 스틱 르



《대동여지도》를 만든
35 김 정 호



곤충학자
36 파 브 르



조선 말기의 풍운아
41 김 옥 군



발명왕
42 에 디 슨



동학 혁명의 지도자
43 전 봉 준



정열의 화가
44 고 호



항일 독립 운동가
49 안 창 호



뛰어난 물리학자
50 퀴리 부인



항일 순국 의사
51 안 중 근



비행기의 발명자
52 라이트 형제



민족 음악가
57 홍 난 파



천재 물리학자
58 아인슈타인



영원한 어린이의 벗
59 방 정 환



여류 교육가
60 헬렌 켈러



조선 말기의 거목
37 홍선 대원군



러시아의 문호
38 톨스토이



한국 최초의 신부
39 김 대 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40 노 벨



국어학의 선구자
45 주 시 경



북극 탐험가
46 난 셴



항일 독립의 혁명가
47 김 구



중국 독립의 아버지
48 쑨 윈



항일 민족 시인
53 한 용 운



인디아 독립의 아버지
54 간 디



민족의 사학자
55 신 채 호



민립의 성자
56 시바이쩌



항일 순국 소녀
61 유 관 순



흑인 가수
62 마리안 앤더슨



저항 문학의 시인
63 윤 동 주



뉴유 프런티어의 기수
64 케 네 디

소년소녀 위인전기 59 방 정 환
특집 부록 : 학습 역사 인명 사전

